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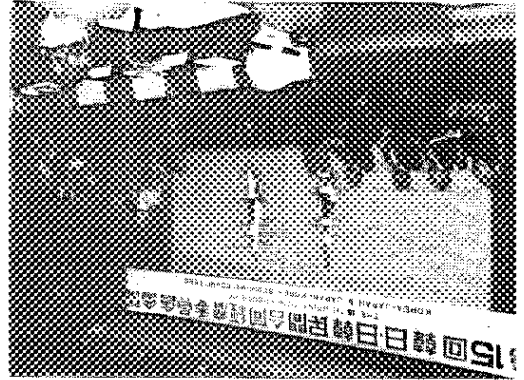
第15回 韓日・日韓 民間合同經濟委員會會議
THE 15TH JOINT CONFERENCE OF
KOREA-JAPAN & JAPAN-KOREA ECONOMIC COMMITTEES

1983. 4. 6~8 SEOUL, KOREA

報 告 書

韓 日 經 濟 協 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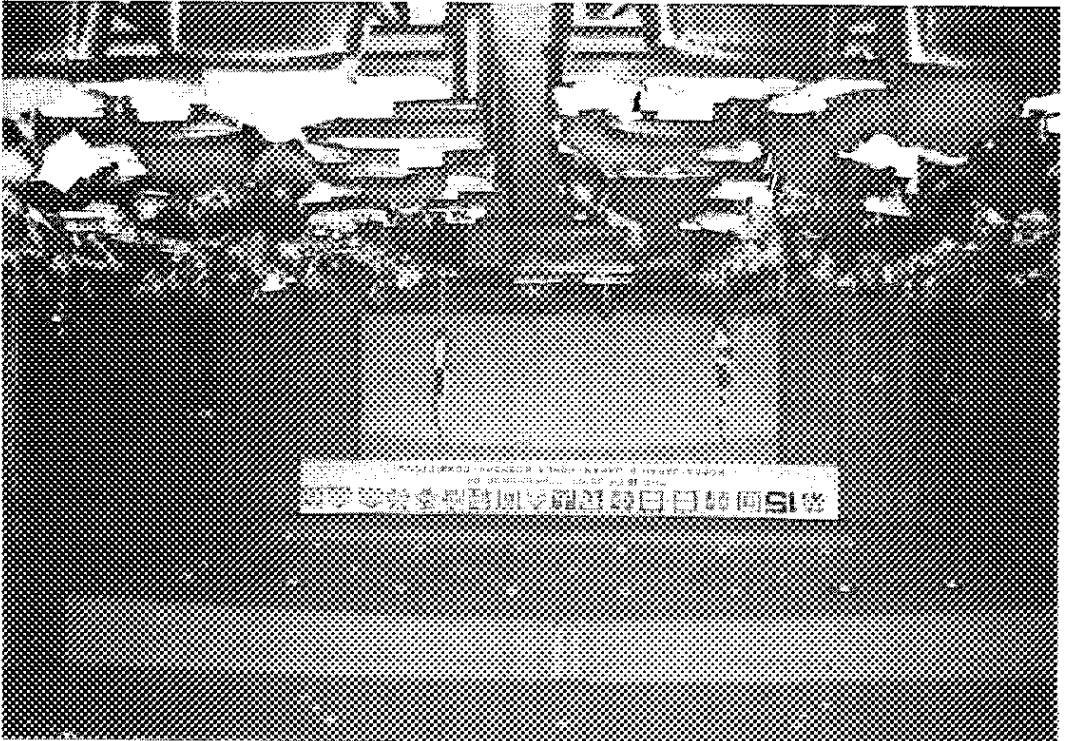
▲朴泰俊 韓國側 團長入京



▲合同會議에 參席한 兩側 代表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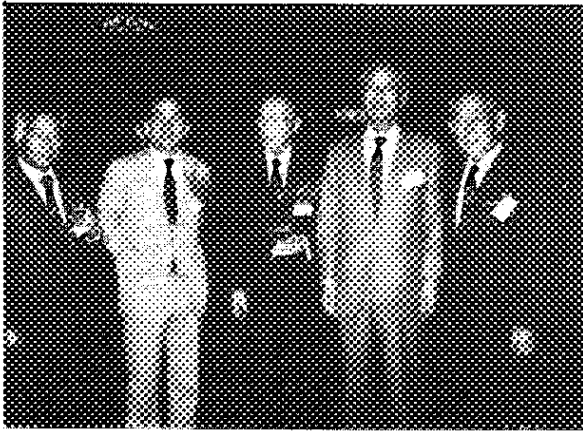


▲第15回 韓日・日韓 民間合同經濟委員會 會議
1983年 4月6日 世宗文化會館大會議室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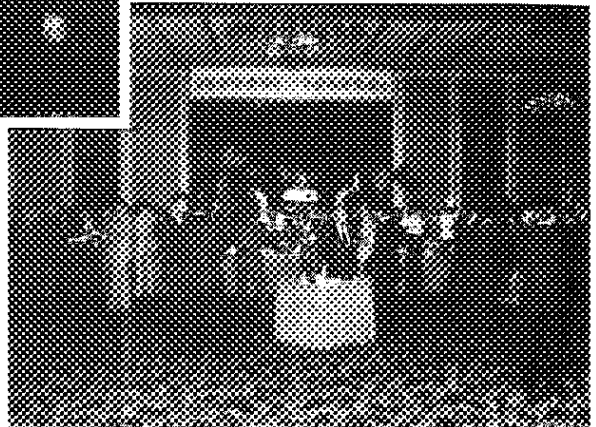




▲ 兩側 代表團의 記念撮影



◀ 리셉션에 參席한 鄭壽昌 大韓商工會議所
會長, 朴泰俊 韓國側 團長,
日高輝 日本側 團長, 金竣成 副總理,
五島昇 日本側 副團長 (左로부터)



▲ 리셉션 光景

目 次

1. 會議日程	5
2. 兩國團長人事	
가) 韓國側	7
나) 日本側	12
3. 致辭 및 祝辭	
가) 金竣成 副總理兼經濟企劃院長官	15
나) 前田利一 駐大韓民國 日本國特命全權大使	20
4. 經過報告	23
5. 會議議題	25
6. 兩側代表團名單	
가) 韓國側	27
나) 日本側	35
7. 基調演說	
가) 韓國側；韓日經濟關係의 效果分析으로 본 技術協力의 意義...	42
曹圭河 韓國產業經濟技術研究院 研究委員	

나) 日本側 ; 日本에 있어서의 技術開發의 現況과 技術協力에 對하여	56
赤澤璋一 富士通(株) 取締役副會長	
8. 韓國의 外資導入政策과 對外債務	
가) 韓國의 外資導入政策과 對外債務에 對한 說明	63
李勇成 財務部國際金融局長	
나) 財務部 說明에 對한 日本側 質疑	73
田島敏弘 (株)日本興業銀行 顧問	
秋田兼三 (株)第一HOTEL 取締役社長	
辻和三郎 日本輸出入銀行 理事	
다) 上記 質疑에 對한 答辯	78
金大泳 經濟企劃院 經濟企劃局長	
9. 새로운時代를 맞은 對韓投資	86
永田敬生 日立造船(株) 取締役會長	
10. 各 專門委員會 報告事項	
가) 第 10 回 韓日・日韓貿易擴大均衡委員會 合同會議	
結果報告	93
나) 第 8 回 韓日・日韓機械工業協力專門委員會 合同會議	
結果報告	95
다) 第 3 回 韓日・日韓 經濟協力長期構想研究委員會	
合同會議結果報告	98

다) 第1回 韓日・日韓 中堅中小企業協力專門委員會

合同會議結果報告 102

11. 産業技術協力

가) 韓國側提案 104

鄭在恩 三星電子工業(株) 社長

나) 日本側答辯 109

三好正也 (社) 經濟團體連合會 常務理事

永田敬生 日立造船(株) 取締役 會長

河井 雅 (財) KDD ENGINEERING &
CONSULTING 常務理事

12. 韓日貿易增進

가) 韓國側提案 (逆調是正等) 121

鄭 昇 翼 國際商事(株) 社長

나) 日本側答辯 142

滿 崑 啓 二 NICHIMEN(株) 常任顧問

鐵 屋 一 夫 伊藤忠商事(株) 專務取締役

武藤稱一郎 (株) TOMEN 常務取締役

室 谷 文 司 日本商工會議所 常務理事

나) 日本側提案 (商社 STATUS 等)	150
山 田 泰 三 三 菱 商 社 株 式 有 限 公 司 常 務 取 締 役	
다) 韓國側答辯	155
李 尚 秀 (社) 韓 日 經 濟 協 會 專 務 理 事	
13. 韓國海運振興法問題 및 日韓・韓日 兩國間 航路問題	
가) 日本側提案	158
三 上 良 造 (社) 日 本 船 主 協 會 常 務 理 事	
나) 韓國側答辯	160
李 孟 基 大 韓 海 運 株 式 有 限 公 司 社 長	
14. 共同聲明	162
15. 閉 會 辭	
가) 韓國側	166
나) 日本側	168

日 程

83.4.6(水)

16:00

開 會 …… 世宗文化會館大會議室

- (1) 韓國側團長人事
- (2) 日本側團長人事
- (3) 致辭……副總理
- (4) 祝辭……駐韓日本大使
- (5) 經過報告
- (6) 議長選出
- (7) 議題採擇
- (8) 基調演說

i. 韓國側：韓國產業經濟技術研究院 研究委員 曹圭河

「韓日經濟關係의 效果分析으로 본

技術協力의 意義」

ii. 日本側：富士通株式会社 副会長 赤澤璋一

「日本에 있어서의 技術革新推進現況과 展望 및
技術協力에 關하여」

18:30-20:00 리셉션 (韓日共同主催) …… 롯데호텔 2層

4.7.(木)

10:00-12:00 合同會議 …… 世宗文化會館大會議室

12:30-13:30 午餐 (韓國側 主催) …… 프라자호텔 22層

14:00-17:00 合同會議

18:30-20:00 리셉션 (駐韓日本大使主催) …… 日本大使官邸

4.8.(金)

08:00~ 會長團, 專門委員會 委員長 朝餐會 및 共同
聲明合意

10:00-10:30 合同會議 …… 롯데호텔

(1) 共同聲明 採擇

(2) 韓國側 團長 人事

(3) 日本側 “ ”

閉會

10:00-12:00 兩側團長記者會見

團 長 人 事

韓日經濟委員會
委員長 朴泰俊

존경하는 「히다카・데루」 단장, 그리고 日本 代表團 여러분!

本人은 지난 1月 「나카소네・야스히로」 日本首相의 訪韓과 歴史的인 양국 頂上 會談을 통하여 두나라 사이에 過去 어느때 보다도 두터운 理解와 協力の 雰囲気가 성숙되어 가고 있는 이 時期에, 양국간의 民間經濟協力方案을 논의하기 위하여 第15回 韓日・日韓 民間合同經濟委員會를 서울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동시에,

다망하신 중에도 본 委員會에 참석하기 위하여 韓國을 訪問해 주신 여러분에게 韓國代表團을 대신하여 감사의 人事를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1965年 國交가 正常化된 以後 오늘에 이르기까지 양국사이에서는 政治・經濟・社會・文化의 각 부문에 걸친 교류가 꾸준히 증진되어 왔읍니다만, 過去의 양국관계를 두고 흔히 「不便한 關係」라고 표현해 온 것과 같이, 이러한 交流의 양적 증대에도 불구하고 두나라 사이의 協力에 있어 어두운 면 또한 없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번의 兩國頂上會談이야 말로 양국간의 不幸했던 過去를 청산하고 相互信賴와 互惠平等의 정신에 입각하여 새로운 次元에서 未來指向의인 善隣友好關係를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해 준 쾌거였다고 생각합니다.

本人은 「各種 經路를 통한 양국간의 폭넓은 對話와 交流를 활발히 촉진시킴으로써 여러 分野에 걸친 양국간의 協力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共同聲明精神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韓國側 委員會의 責任을 맡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頂上會談以後 처음 열리는 本 15 回 合同委員會에 부여된 使命이 그 어느 때보다도 莫重하다는 점을 인식할 때 무거운 責任感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번 東京에서 열린 第 14 回 會議를 통해 「히다카·데루」 단장께서도 강조하신 바와 같이, 1969 年 本 韓日·日韓 民間合同經濟委員會의 會議가 시작된 이후 한번도 빠짐없이 계속되어 오면서, 그때 그때의 시기에 따른 양국간 民間經濟協力の 方向정립과 그 具體化에 노력해 온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실제로 그 동안 本 委員會를 통하여 양국간의 貿易擴大均衡方案, 産業技術의 移轉, 中小企業의 協力, 資本協力の 擴大등 여러가지 問題點들에 관한 깊이있는 研究와 討議가 거듭되어 왔고, 그것이 兩國의 經濟發展과 相互利益의 증진에 상당한 寄與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양국의 利害가 일치하지 않는 중요한 懸案들에 관해서는 대체로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데 그쳤을 뿐이며, 根本的이고 實質的인 協力方案을 마련하는데까지 이르지 못하였다고 하는 점은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本人은 이제 이 韓日・日韓 民間合同經濟委員會가 명실공히 韓日兩國
간의 唯一한 公式的인 民間經濟協力窓口로서의 役割을 다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兩國 代表團員 모두가 自國의 利害를 앞세우는 小我的인
자세에서 벗어나, 相互信賴와 互惠平等을 追求하는 共同聲明의 精神에
바탕을 두고, 兩國頂上간에 논의된 經濟의 懸案問題들에 대하여 하나
하나 實效性있는 協力方案을 모색해나가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점을 강
조하고자 합니다.

친애하는 日本代表團 여러분,

現在 우리 大韓民國은 지난 수년동안의 여러가지 對內外的 시련에
슬기롭게 대처하면서 착실히 다져 온 「安定」을 바탕으로 「先進祖國
의 創造」라는 時代的 召命을 달성하기 위하여 온 국민이 하나가 되
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先進祖國의 創造」를 위해서는 물론 여러가지 先行條件이
있겠으나, 그 중에서도 持續的인 成長을 통한 經濟의 先進化가 그 바
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再言의 여지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韓國經濟의 向方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작금의 國際
的 經濟環境은 좀처럼 好轉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韓國經濟가
안고 있는 문제점인 資本不足과 技術의 부분적 落後性등은 持續的 成
長을 위협하는 잠재적인 不安要因으로 상존하고 있습니다.

本人은 이러한 어려움속에서 우리 韓國經濟가 持續的인 成長을 통한
第2의 跳躍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對外協力-특히 地理的, 經濟的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인 日本과의 技術과 資本 양면에 걸친 協力を 強化
해가는 것이 더욱 重要的 일이라고 믿고 있으며, 이 점에 관한 日本

代表團 여러분의 사려깊은 理解와 協調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자 합니다.

本人은 먼저 이번 會議를 통하여 産業技術의 移轉問題에 관한
진지하고도 內容있는 討議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지금까지 機會있을 때마다 韓國側에 의해 이 問題가 提起되어 왔었
으며 本 委員會에서도 여러번 거론된 바가 있음니다만 늘 原則論에 끝
나고, 內容面에서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本人은 이 問題를 논의함에 있어 兩國 代表團 모
두가 「兩國間에 産業技術協力の 拡大가 바람직하다는데 대하여 意見의
一致를 보았다」고 선언한 兩國頂上의 共同聲明 精神을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兩國頂上이 技術移轉問題에 관하여 양국은 더이상 對立關係에
있는 것이 아니며, 韓國의 技術向上에 日本이 積極 參與함으로써 두나
라 모두를 위해 有益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認識을 바탕으로
兩國間 技術協力の 當爲性을 確認해 준 것이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
다.

따라서 本 委員會에서는 이러한 當爲性的 確認을 基礎로 하여 尖端
技術移轉에 관한 보다 具體적이고도 한 단계 진전된 討議와 合意가
이루어져야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를 위하여 日本 代表團 여러
분께서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本人은 또한 지난번 頂上會談을 통하여 兩國間에 최대의 懸案으로
남아있던 經濟協力問題가 타결을 보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
다.

그러나 이것은 兩國頂上에 의한 政治的 妥結이었으며, 그것이 가깝게는 韓國의 經濟發展, 나아가서는 兩國의 共同利益의 增進이라는 目的을 위해 적절히 사용되기 까지에는 아직도 解決되어야 할 많은 問題가 남아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日本 代表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支援이 있으시기를 기대하며, 아울러 이러한 政府「베이스」의 協力 못지않게 日本의 民間 經濟界에서도 韓國에 대한 長期的인 資本協力部門에 적극 參與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資本協力增進을 위한 日本側의 노력은 長期的인 안목으로 볼 때 현재 양국간에 문제가 되고 있는 經常收支均衡에 寄與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대단히 重要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부터 3日間 계속될 第15回 合同委員會의 會議를 통하여 이상의 問題點들을 비롯한 兩國의 共同關心事 전반에 관한 솔직하고도 깊이있는 意見交換이 이루어 짐으로써, 다른 어느 회의때보다도 더욱 알찬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협력하여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저의 人事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人 事

韓日經濟委員會
委員長 日 高 輝

來賓으로 왕림하신 金堧成副總理, 前田大使 그리고 朴泰俊團長, 各顧問을 비롯한 韓國側團員 여러분,

오늘 여기에 記念할만한 第15回 日韓・韓日民間合同經濟委員會會議을 開催함에 있어서 日本側을 代表하여 人事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榮光으로 생각하는 同時에, 15年間 한번도 빠짐없이 繼續된 이 會議의 經過와 意義를 回顧해 볼때 감개무량함을 느끼는 바입니다.

돌이켜보면 1969年1월에 이곳 서울에서 第1回 會議가 開催되었읍니다만, 그 以前에 3년에 걸쳐 日韓・韓日民間合同經濟懇談會의 名稱으로 같은 趣旨의 會議를 해 온 것은 여러분도 잘 記憶하실 터이며, 1965年 國交正常化 다음해부터 오늘까지 實로 18年間을 日韓兩國經濟人이 年1回씩 한자리에 모여서 率直한 意見を 交換하며, 相互交流를 깊이하고, 共存共榮의 길을 追求해 왔다는 것은, 대단히 費重한 事實이며, 正當한 評價를 받아도 當然하리라고 自負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 바입니다.

특히 今年 1月 貴國의 全斗煥大統領閣下와 日本의 中曾根總理大臣이 兩國으로서는 처음 正式으로 頂上會談을 가짐으로써, 最近2,3年間 兩國間에 未解決狀態에 있었던 經濟協力等の 外交案件이 妥決되었고, 同時에 앞으로 더욱더 善隣友好關係를 維持發展시킨다는 方向이 確認된 것은, 實로 兩國이 새로운 時代로 들어섰다는 劃期的인 意義를 가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頂上會談直後， 韓日經濟協會의 朴泰俊會長님께서 親書를 本人 앞으로 주셔서， 兩國間의 友好親善時代의 開幕을 慶祝함과 아울러 頂上會談의 共同聲明에 있는 經濟問題條項에 따른 民間經濟交流를 推進해 나가자는 趣旨를 傳해 왔던 것입니다.

저로서는 時宜適切한 配慮에 謝意를 表함과 同時에 兩國友好關係의 새로운 基盤確立을 慶賀하는 回信을 드리고， 그 後 雙方의 機關에서 協議한 結果， 오늘부터 始作되는 이 第15回 合同會議에서도 그 趣旨에 맞추어 各 議題等を 提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日本の 民間經濟界로서도， 1962年부터 始作된 貴國의 第1次經濟開發 5 個年計劃以來， 昨年度부터 實施되고 있는 第5次 經濟社會發展 5 個年計劃까지 始終一貫， 貴國의 經濟 5 個年計劃을 基軸으로 協力 해왔던 것입니다.

이 協力方式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며， 또 지난 頂上會談의 共同聲明合意事項에도 合致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貴國에서는 科學技術振興에 주력하고， 高度技術， 新技術을 開發함으로써 더욱 높은 附加價値를 가진 製品을 產出하여， 貿易立國의 方針을 堅持하실 것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頂上會談의 共同聲明에 있어서도 大統領閣下와 總理大臣은 兩國間에는 産業技術協力の 擴大가 所望스럽다는 點에 意見의 一致를 보았다고 明記되어 있습니다.

産業技術協力の 擴大에 關하여는 日本으로서도 從來부터 努力해 왔으며， 이 合同委員會會議에서도 技術移轉等이 討議되는 때마다 前進의인 姿勢로서 協力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尖端

技術이라는分野는 그範圍가明確치 않은點도 있고, 또民間으로서는 비즈니스 베이스를原則으로 한다는前提가 있는 것이므로大小間の 어려움이 수반되는 것은不可避한點도 없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러한問題點이 이번會議에서明確히 되어充分히理解가 이루어질것 같으면, 스무드한産業技術協力の方途도 스스로開拓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韓日兩國이 다같이不透明한國際環境때문에經濟運營의早速한好轉을期待하기 어려운狀態입니다만,資源이不足하고貿易立國을國是로 하는同質의나라로서, 무엇보다도保護貿易的인思考가發生하는 것을阻止해나가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이共通된理念위에서加一層의共存共榮의方案이, 이번第15回라는記念할만한 이會議에서의成果로 달성될 수 있도록兩側團員 여러분의진력을念願하고,期待하면서本人의人事말씀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致

辭

副總理 兼 經濟企劃院長官

金 垞 成

前田 大使, 日高 團長, 朴 泰俊 會長 그리고 韓·日 兩國 代表團 및 内外賓客 여러분!

本人은 먼저 오늘 第 15 回 韓日·日韓民間合同經濟委員會 會議에 參席키 위해 이 자리에 오신 日本 代表團 여러분을 衷心으로 歡迎하며 韓日 民間經濟界를 代表하는 指導的인 經濟人 여러분 앞에서 致辭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本人은 또한 지난번 日本國의 나카소네首相 訪韓과 韓日 頂上會談으로 다져진 兩國間 協力擴大의 氣運을 더욱 擴散시켜 80 年代의 새로운 協力關係를 열어야 하는 時點에서 兩國 經濟界를 이끌어가는 여러분들과 함께 相互繁榮을 위한 本人의 所見을 披瀝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을 感謝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周知하는 바와같이 70 年代末 이후, 계속되고 있는 世界的인 景氣

沈滯는 戰後에 들어 가장 長期間 持續되는 것이며 그 深度에 있어서도 가장 깊은 不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與件이 어려운 만큼 많은 分野에서 國家間에 協力보다는 對立과 競爭이 激化되고 있으며 상당한 程度混沌과 不確實性이 함께고 있습니다.

이러한 惡化된 對外與件에 對處하면서 對內的으로 確固한 安定成長基盤을 構築하기 위해 지난 數年間 우리政府는 어려운 努力을 傾注하였습니다.

各種 인플레이要因의 除去와 非能率的인 制度나 慣行을 改善하고 積極的인 對外開放을 推進하였습니다.

安定成長을 向한 이러한 一貫된 政策對應과 各界의 積極的인 呼應으로 最近 우리 經濟는 아주 印象的인 運用實績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以下の 低物價 構造가 定着되면서 비교적 높은 水準인 5.4%의 實質成長을 示顯하고 消費 및 投資에 있어서도 堅調한 樣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政府의 政策推進에 있어 選擇의 幅이 넓어져 對内外與件變化에 보다 彈力的으로 對應할 수 있게 되었고 構造的인 面에 보다 힘을 기울일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었다고 本人은 確信합니다.

따라서 지금 推進하고 있는 이러한 安定成長 努力은 앞으로도 계속 追求될 것입니다.

成長을 이끌어 가는 兩 지렛대인 輸出과 內需의 適正한 均衡을 圖謀하면서 國內貯蓄의 提高, 合理的인 消費 및 投資決定으로 安定

基盤을 더욱 鞏固히 해 나갈 計劃입니다.

이러한 努力이 持續될때 '86年頃에 가면 우리經濟는 國際收支에 있어서 經常收支의 均衡을 達成할 수 있게 되고 投資財源 調達面에서도 自給度を 높일 수 있게 됨으로써 外債의 償還負擔 問題도 解決하여 나가기가 점차 가볍게 되어 갈 것입니다.

本人은 韓國經濟의 安定成長과 活力은 日本 經濟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兩國은 經濟的으로 相互重要한 比重을 占하고 있고 共通의 利害와 文化的 背景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韓日 兩國간의 協力增進은 이 地域의 安定, 繁榮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世界經濟에 活力을 불어 넣는 데도 重要하다고 本人은 믿습니다.

오늘날 韓國과 日本을 비롯한 東亞細亞는 世界에서 經濟的으로 가장 活力이 넘치는 곳이며 未來의 發展에 대한 潛在力이 가장 큰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本人은 이번 모임이 지난번 全斗煥 大統領 閣下와 나카소네首相이 다져놓은 協力基盤을 더욱 發展시켜 나가는 힘찬 出發이 되기를 期待합니다.

“始作이 半”이라는 우리 俗談도 있듯이 兩國 經濟界를 主導하는 여러분들의 虛心坦懷한 對話와 相互 理解 增進은 兩國 關係發展의 基礎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重要한 모임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本人은 이번 모임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서의 兩國이

長期的으로 共同繁榮할 수 있는 建設的인 協力關係가 摸索되도록 活潑한 論議와 함께 보다 具體的인 進展이 있기를 期待합니다.

우선 兩國間의 오랜 懸案問題인 貿易不均衡 問題도 이제는 根本的인 面에서부터 풀어나가야 하겠습니다.

相互 交易의 縮小調整이 아닌 擴大를 통해 均衡이 達成되도록 部品이나 相對國에 比較優位가 있는 品目에 대해서는 果敢한 輸入 開放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技術開發面에서, 相互協力이 더욱 擴大되도록 眞摯한 論議가 있기를 期待합니다.

一部 企業人들 中에는 자기가 保有하고 있는 新 技術이 他國으로 移轉되는 것을 극히 躊躇하는 것 같습니다.

技術協力이 自國市場을 蠶食하고 國際市場에서 競爭을 激化시킬 것으로 憂慮하는 분도 있습니다마는 技術이나 比較優位는 長期的으로 는 動態的인 것으로 오히려 既存의 技術開發을 더욱 促進시키고 適應力이 培養되어 全體 競爭力이 더욱 強化되는 側面을 過小 評價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本人은 앞으로 새로운 世代인 兩國 젊은이들의 活潑한 交流가 이루어지도록 여러분들의 積極的인 協調를 當付하는 바입니다.

밝고 힘찬 젊은이들의 交流擴大는 兩國間 協力の 기틀을 더욱 튼튼하게 다져 나갈 것이며 未來 兩國 友好의 礎石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韓國의 젊은 技能工들이 日本의 作業場이나 研修場에서 日本의 젊은 勤勞者들과 같이 배우고 相互 理解 基盤을 넓혀나가는 廣場을 마련하고 점차 이를 擴大해 나간다면 앞으로

좋은 結實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인은 이를 위한 協力方案이 具體的으로 討議되었으면 하는 期待를 갖고 있습니다.

兩國 經濟人 여러분!

世界 經濟가 어려울수록 國家間的 協力の 必要性이 더욱 強調되고 있습니다.

國家間的 協력이 地域共同體 協력으로 더 나아가 블록과 블록間的 協력으로 까지 發展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經濟問題가 對內的인 處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秩序있는 國際經濟의 構築과 各國 共通의 眞摯한 協力에 의해서만 풀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會議가 이러한 努力을 향한 重要的 契機가 될 것을 굳게 믿으면서 相互 理解와 讓步 그를 통한 未來의 發展을 위한 建設的인 協力關係가 構築되기를 祈願합니다.

끝으로 日高 團長, 朴 泰俊 會長을 비롯한 參席者 여러분의 兩國間 經濟協力을 위한 努力에 깊은 關心과 謝意를 表하며 本人의 致辭를 마치겠습니다.

感謝합니다.

祝 辭

駐 大韓民國
日本國特命全權大使

前 田 利 一

오늘 第 15 回 日韓・韓日民間合同經濟委員會 開會式에 招待를 받아 여러분을 만나뵈 機會를 갖게 된 것을 매우 榮光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本 合同委員會도 이번으로써 이미 15 회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만,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重要的 意義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今年初에 兩國 首腦의 強力한 리더십에 의하여 劃期的인 頂上會談이 實現되었고, 그 자리에서 兩國 間의 善隣友好關係를 새로운 次元에서 發展시켜 나가기로 合意를 보았으며, 또한 懸案이었던 經濟協力問題도 妥結을 보게 되어, 國交正常化 以來의 兩國關係에 하나의 轉機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바야흐로, 日韓兩國은 다같이 共同聲明에 담긴 精神을 具體化하고, 이 會談에 의하여 마련된 礎石 위에서 새로운 兩國關係를 發展시켜

나가기 위한 眞摯한 努力이 要請되고 있는 때라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時點에서, 兩國의 經濟界重鎮이 한 자리에 會同하여 兩國間의 産業・經濟上의 여러 問題에 대하여 相互間의 率直한 見解를 나눌 수 있는 本 委員會의 意義는 참으로 莫重한 바 있다고 봅니다.

본디 우리 두 나라는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서 비단 政府間의 關係뿐만이 아니고, 友誼와 相互理解의 바탕 위에서 國民 서로간의 有機的이며 建設的인 關係를 굳건히 다져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우기 經濟面에 있어서는, 兩國 政府의 努力은 물론이거니와 貿易問題에서나 産業・技術協力 및 기타 問題에 있어서는, 民間 레벨의 交流와 相互理解를 通해서만이 비로소 큰 成果를 거둘 수 있는 問題가 허다하다는 사실은 否定할 도리가 없습니다.

韓國은 이제 88 올림픽 開催로써 象徵되다시피 全世界에 널리 公開될 國家建設에 拍車를 加하면서 經濟의 第2의 跳躍으로 내딛고 있습니다.

한편, 日本으로서도 世界의 主導的인 工業國家의 하나로서 여러 나라와 새로운 調和關係를 이루어야 할 時期에 이르고 있습니다.

새삼 말씀드릴 나위도 없이, 日韓兩國은 距離的으로도 隣接해 있으며 다같이 進取의 氣象에 넘친 活力있는 나라이므로 앞으로 相互協력이 可能한 分野에서는 더욱 더 緊密한 協調가 增進될 것으로 期待됩니다만, 간혹 分野에 따라서는 局部的인 摩擦이나 利害가 相反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두 나라가 힘을 모아, 이러한 摩擦이나 利害關係의 對立을 例事로 看過하는 일이 없이, 서로가 主張할 것은 主張하면서도 互讓

精神에 立脚하여 妥協의 길을 摸索하며, 大局的이며 長期的인 眼目에서 兩國關係의 發展을 指向해 나간다는 보다 높은 次元에서의 建設的인 姿勢가 바람직할 것으로 思料됩니다.

兩國間의 國交正常화가 樹立된 以來, 가지가지 起伏이 있었긴 하지만, 日韓間에는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成熟된 關係가 이루어져야 할 時期에 다다라 있으며, 또한 그것은 兩國國民의 슬기로써 반드시 實現될 것으로 믿어 疑心치 않습니다.

그러한 뜻에서, 이번 合同委員會의 모임에서는 朴泰俊團長님과 日高 輝團長님을 비롯한 두 나라 經濟界의 主導的인 位置에 계신 人士 여러분에 의하여 貿易 및 資本 그리고 技術協力등의 諸般問題에 對하여 忌憚없는 論議로써 建設的인 對話가 무르익어 意義 깊은 成果를 거두시기 바라는 마음 懇切합니다.

끝으로, 오늘의 會議를 마련하시느라고 勞苦가 많으셨던 韓國側 關係者 여러분, 더우기 韓日經濟協會 諸位에게 深甚한 感謝를 드리는 同時에 來韓하신 日本側 代表 여러분께 거듭 歡迎의 뜻을 表하면서 致辭말씀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經 過 報 告

昨年 4 月 日本國 東京에서 開催되었던 第 14 回 韓日・日韓 民間合同經濟委員會 會議에서의 合意事項 推進現況 및 兩側 委員會의 活動狀況을 報告드리겠습니다.

먼저 專門委員會 活動事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韓日・日韓貿易擴大均衡委員會 第 10 回 合同會議가 昨年 10 月 서울에서 開催되었으며,

韓日・日韓機械工業協力專門委員會 第 8 回 合同會議는 昨年 5 月 日本國 下田에서 開催되었고,

韓日・日韓經濟協力長期構想研究委員會 第 3 回 合同會議는 昨年 12 月 東京에서 開催되었습니다.

그리고 中堅・中小企業協力專門委員會는 第 1 回 合同會議가 今年 3 月 日本國 東京에서 開催되었습니다.

以上 4 個 專門委員會活動에 關하여서는 詳細한 內容을 내일 本 會議에서 各 委員會 韓國側委員長이 報告드릴 豫定입니다.

다음으로 昨年 4 月 合同委員會 會議에서 合意된 事項인

- (1) 日本側 對韓投資調查團의 早期派遣件은 昨年 5 月 韓日・日韓機械工業協力專門委員會에서 이에 對한 合意가 이루어져, 昨年 6 月 20 日 부터 25 日까지 6 日間에 걸쳐 馬場靖文團長以下 18 名의 調查團 이 派遣된 바 있으며,
- (2) 駐韓日本商社等の 法的地位와 課稅問題에 關한 日本側의 要請과 韓國側의 貿易不均衡 是正에 對한 여러가지 要請事項에 對해서는 兩國政府關係機關에 각기 傳達함과 同時에 善處하여 줄 것을 要請 하였습니다. 또한 日本側이 要望한 海運協力에 對해서도 韓國側은 이를 政府 및 關係團體에 傳達했습니다.
- (3) 貿易不均衡 是正을 위한 韓國商品購買團 혹은 購買調查團을 派遣할 것에 合意한 바 있는바, 諸般事情에 따라 延期되고 있으나 早期實現을 위해 雙方 努力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第 13 回 合同委員會에서 合意된 바 있는 尖端技術移轉을 위한 實務者 레벨의 協力問題는 늦어졌음이나, 그間 相互 協議를 繼續한 結果 今年度에는 具體化될 展望입니다.

以上으로 兩側委員會의 活動經過報告를 마칩니다.

議 題

1. 韓國의 外資導入政策과 對外債務問題

大韓民國財務部 國際金融局長 李 勇 成

2. 日本의 對韓資本協力에 關한 韓國側 環境整備에 對하여

日立造船株式會社 會長 永田敬生

3. 各 專門委員會 報告

- (1) 第 10 回 韓日・日韓 貿易擴大均衡 委員會 合同會議
- (2) 第 8 回 韓日・日韓 機械工業協力專門委員會 合同會議
- (3) 第 3 回 韓日・日韓 經濟協力長期構想研究委員會 合同會議
- (4) 第 1 回 韓日・日韓 中堅・中小企業協力專門委員會 合同會議

4. 日本의 對韓 技術協力

- (1) 韓國側 提案
- (2) 日本側 應答

5. 貿易增進

- (1) 韓國側 提案 (貿易逆調是正要請等)

(2) 日本側 應答

(3) 日本側 提案 (在韓 商社 STATUS, 課稅問題等)

(4) 韓國側 應答

6 . 海運協力

(1) 日本側 提案

(2) 韓國側 應答

韓國代表團名單

(가나다順)

	姓 名			團 體 會社職位	團 體 / 會 社 名
顧問	金	永	善		前駐日大使
	KIM	YOUNG	SEUN		
"	金	容	完	名譽會長	全國經濟人聯合會
	KIM	YONG	WAN		
"	申	秉	鉉	會 長	韓國貿易協會
	SHIN	BYONG	HYUN		
"	柳	琦	諄	會 長	中小企業協同組合中央會
	RYU	KI	JUNG		
"	李	秉	喆	會 長	三星物產(株)
	LEE	BYUNG	CHEUL		
"	鄭	壽	昌	會 長	大韓商工會議所
	CHUNG	SOO	CHANG		
"	鄭	周	永	會 長	全國經濟人聯合會
	CHUNG	JU	YUNG		
團 長	朴	泰	俊	會 長	韓日經濟協會
	PARK	TAE	JOON	"	浦項綜合製鉄(株)

	姓	名	團 體 會社 職位	團 體 / 會社 名
副團長	朴	大 振	副會長 社 長	韓日經濟協會 太平洋投資金融(株)
"	PARK	TAI CHIN		
"	朴	龍 學	副會長 會 長	韓日經濟協會 (株) 大 農
"	PARK	YONG HAK		
"	李	健 熙	副會長 副會長	韓日經濟協會 三星物產(株)
"	LEE	KUN HEE		
"	李	孟 基	副會長 社 長	韓日經濟協會 大韓海運(株)
"	LEE	MAENG KEE		
"	鄭	世 永	副會長 社 長	韓日經濟協會 現代自動車(株)
"	CHUNG	SE YUNG		
"	鄭	寅 旭	副會長 會 長	韓日經濟協會 江原產業(株)
"	CHUNG	IN WOOK		
"	許	慎 九	副會長 社 長	韓日經濟協會 (株) 金星社
"	HUH	SHIN KU		
團 員	姜	信 浩	會 長	東亞製藥(株)
"	KANG	SHIN HO		
"	姜	泳 琇	會 長	興亞海運(株)
"	KANG	YOUNG SOO		
"	姜	晉 求	會 長	韓國電子工業振興會
"	KANG	JIN KU		
"	高	應 振	會 長	韓國機械工業協同 組合聯合會
"	KOH	EUNG CHIN		
"	郭	厚 燮	社 長	롯데 機械工業(株)
"	KWAK	HOO SUP		
"	權	達 顏	社 長	京畿化學工業(株)
"	KWON	DAL AN		

職 位	姓 名	團 體 會社職位	團 體 / 會 社 名
"	權 重 東 KWON JOONG DONG	會 長	社團 法人 大韓證券業協會
"	元 漢 榮 WON HAN YOUNG	專務理事	斗山產業(株)
"	金 光 均 KIM KWANG KYUN	社 長	建設實業(株)
"	金 基 命 KIM KI MYUNG	理 事 長	韓國玩具工業協同組合
"	金 斗 河 KIM DOO HA	社 長	三華化成(株)
"	金 鳳 鶴 KIM BONG HAK	銀 行 長	(株)濟州銀行
"	金 相 廈 KIM SANG HA	社 長	(株)三養社
"	金 善 根 KIM SUN KEUN	社 長	亞細亞綜合金融(株)
"	金 善 弘 KIM SUN HONG	社 長	起亞產業(株)
"	金 周 南 KIM JOO NAM	會 長	韓國機械工業振興會
"	金 仁 得 KIM IN DEUK	會 長	(株)碧 山
"	全 九 百 JEON KOO BAIK	會 長	(株)製鉄化學
"	金 昌 圭 KIM CHANG KYOO	社 長	湖南에틸렌(株)

職 位	姓	名	團 體 會社職位	團 體 / 會 社 名
團 員	金	八 淑	社 長	新星貿易(株)
	KIM	PAL SOOK		
"	金	洪 錫	"	韓國投資信託(株)
	KIM	HONG SUK		
"	金	泓 殖	"	(株)金福耐
	KIM	HONG SHIK		
"	桂	鳳 赫	副會長	韓國貿易協會
	KAY	BONG HYUK		
"	南	旭	社 長	(株)漢陽流通
	NAM	WOOK		
"	盧	仁 煥	副會長	全國經濟人聯合會
	RO	IN HWAN		
"	文	樸	社 長	半島商事(株)
	MOON	BAK		
"	文	炳 赫	社 長	同和產業(株)
	MOON	BYOUNG HYUK		
"	閔	庚 重	會 長	起亞產業(株)
	MIN	KYUNG JOONG		
"	朴	魯 聖	社 長	(株)元伸實業
	PARK	RO SUNG		
"	朴	性 武	顧問	三星物產(株)
	PARK	SUNG MOO		
"	朴	聖 相	銀行長	韓國輸出入銀行
	PARK	SUNG SANG		
"	朴	洋 圭	專務理事	現代綜合商事(株)
	PARK	YANG GYU		

職 位	姓 名			團 體 會社職位	團 體 / 會 社 名
團 員	朴	辰	熙	社 長	慶北礦油(株)
	PARK	JIN	HI		
"	裴	鍾	烈	會 長	(株)漢陽
	BAI	JONG	RYUL		
"	徐	廷	翰	社 長	韓國合金鉄(株)
	SEO	CHUNG	HAN		
"	孫	烈	鎬	"	東洋錫鋁工業(株)
	SOHN	YUL	HO		
"	宋	漢	清	常務理事	(株)서울信託銀行
	SONG	HAN	CHUNG		
"	申	明	浩	社 長	晉州耐火(株)
	SHIN	MYUNG	HO		
"	申	榮	珏	理 事	韓國貿易協會
	SHIN	YOUNG	GAK		
"	安	秉	華	社 長	東進製鋼(株)
	AHN	BYONG	WHA		
"	安	榮	承	"	正友開發(株)
	AHN	YOUNG	SEUNG		
"	楊	昇	龍	"	興和工業(株)
	YANG	SUNG	YONG		
"	禹	容	海	會 長	(株)雙 龍
	WOO	YONG	HAI		
"	柳	鍾	烈	理 事 長	中小企業振興工團
	YOO	CHONG	YUL		
"	柳	繼	佑	會 長	豐山金屬工業(株)
	RYU	CHAN	U		

職 位	姓 名			團 體 會社職位	團 體 / 會 社 名
團 員	柳 YOO	浩 HO	文 MOON	社 長	大韓浚漢公社
"	鄭 CHONG	昇 SUNG	翼 IK	"	國際商事(株)
"	李 LEE	庚 KANG	世 SAE	專務理事	(株)鮮 京
"	李 LEE	根 KEUN	培 BAI	社 長	오리온電氣(株)
"	李 LEE	相 SANG	得 DEUK	"	코오롱商事(株)
"	李 LEE	尙 SANG	秀 SOO	專務理事	韓日經濟協會
"	李 LEE	奭 SUK	熙 HI	會 長	大字自動車(株)
"	李 LEE	昇 SEUNG	柱 JOO	會 長	韓國染色工業協同 組合聯合會
"	李 LEE	殷 EUN	澤 TAIK	社 長	三星重工業(株)
"	李 Ea	載 CHAI	沆 HANG	副 會長	大韓商工會議所
"	李 LEE	竣 JOON	鎔 YONG	社 長	大林產業(株)
"	李 LEE	昌 CHANG	雨 WOO	會 長	(株)釜山파이프
"	李 LEE	春 CHOON	林 LIM	"	現代重工業(株)

職 位	姓 名	團 體 會社職位	團 體 / 會 社 名
團 員	李 孝 益 LEE HYO ICK	社 長	三益樂器製造(株)
"	張 炳 贊 CHANG BYUNG CHAN	社 長	利川電機工業(株)
"	張 在 澈 CHANG JAE CHOL	"	韓國證券金融(株)
"	全 在 球 CHUN JAE KU	顧 問	大韓浚渫公社
"	鄭 在 恩 CHUNG JAE UN	社 長	三星電子工業(株)
"	趙 重 建 CHO CHOONG KUN	社 長	韓逸開發(株)
"	崔 英 圭 CHOI YOUNG KYU	常務理事	曉星重工業(株)
"	崔 渭 卿 CHOE WI KYUNG	社 長	泰昌企業(株)
"	崔 在 源 CHOI JAI WON	專務理事	曉星物產(株)
"	崔 亨 奎 CHOI HYUNG KYU	社 長	大韓電線(株)
"	韓 在 烈 HAN JAE YEUL	副 會 長	中小企業協同 組合中央會
"	咸 泰 埇 HAM TAE YONG	銀 行 長	(株)韓國長期 信用銀行
"	黃 慶 老 HWANG KYUNG RO	社 長	三陟產業(株)

職 位	姓 名	團 體 會 社 職 位	團 體／會 社 名
團 員	嚴 彬 UM BIN	副 會 長	聯 三 美
"	南 基 棟 NAM KEE DONG	副 會 長	東洋 CEMENT 工業(株)
"	姜 信 雨 KANG SHIN WOO	社 長	三 一 運 輸 (株)
"	畜 圭 河 CHO KYU HA	研 究 委 員	韓 國 產 業 經 濟 技 術 研 究 院
"	金 正 KIM JUNG	首 席 研 究 員	韓 國 產 業 經 濟 技 術 研 究 院
幹 事	金 贊 範 KIM CHAN BEOM	理 事	全 國 經 濟 人 聯 合 會
"	閔 完 基 MIN WAN KEE	部 長	大 韓 商 工 會 議 所
"	孫 完 洙 SOHN WAN SOO	"	韓 國 貿 易 協 會
"	柳 義 錫 LEW EUE SUCK	部 長	中 小 企 業 協 同 組 合 中 央 會
"	申 德 鉉 SHIN DEUK HYUN	"	韓 日 經 濟 協 會
"	洪 潤 植 HONG YOON SHIK	"	韓 日 經 濟 協 會

日本代表団名簿

職 位	姓	名	團 體 / 會 社 名
顧 問	稲 山 INAYAMA	嘉 寛 YOSHIHIRO	日韓經濟委員会顧問 經濟団体連合会会長
顧 問	永 野 NAGANO	重 雄 SHIGEO	日韓經濟委員会顧問 日本商工会議所会頭
団 長	日 高 HIDAKA	輝 TERU	日韓經濟委員会委員長 山一証券㈱取締役相談役
副団長	大 島 OHSHIMA	健 司 KENJI	日韓經濟委員会副委員長 小野田CEMENT㈱取締役社長
副団長	五 島 GOTO	昇 NOBORU	日韓經濟委員会副委員長 東京急行電鉄㈱取締役社長

職 位	姓	名	團 體 / 會 社 名
團 員	永 田 NAGATA	敬 生 TAKAO	日立造船 取締役 会長 日本在外企業協会 会長
團 員	植 田 UEDA	三 男 MITSUO	日商岩井 取締役 社長
團 員	三 村 MIMURA	庸 平 YOHEI	三菱商事 取締役 社長
團 員	武 内 TAKEUCHI	俊 夫 TOSHIO	株式TOMEN (TOYO MENKA KAISHA, LTD.) 取締役 社長
團 員	秋 田 AKITA	兼 三 KENZO	株式第一 HOTEL 取締役 社長
團 員	能 村 NOHMURA	龍 太 郎 RYOTARO	太陽工業 取締役 会長
團 員	赤 澤 AKAZAWA	璋 一 SHOICHI	富士通 取締役 副会長
團 員	石 井 ISHII	正 巳 MASAMI	三井物産 取締役 副会長
團 員	長 CHO	亨 TORU	東洋 ENGINEERING 取締役 副会長
團 員	原 田 HARADA	鼎 KANAE	新日本製鐵 取締役 副社長
團 員	浦 川 URAKAWA	清 人 KIYOTO	石川島播磨重工業 取締役 副社長
團 員	合 田 GODA	茂 SHIGERU	住友重機械工業 取締役 副 社長
團 員	伊 藤 ITOH	正 TADASHI	住友商事 取締役 副社長

職 位	姓	名	團 體 / 會 社 名
團 員	滿 島 MAJIMA	啓 二 KEIJI	NICHIMEN(株)常任顧問
團 員	田 島 TAJIMA	敏 弘 TOSHIHIRO	(株)日本興業銀行顧問
團 員	辻 TSUJI	和 三 郎 WASABURO	日本輸出入銀行理事
團 員	西 尾 NISHIO	知 SATORU	丸紅(株)専務取締役
團 員	鉄 屋 TETSUYA	一 夫 ICHIU	伊藤忠商事(株)専務取締役
團 員	京 本 KYOMOTO	善 治 ZENJI	(社)日本貿易会専務理事
團 員	荒 瀬 ARASE	晃 二 KOJI	三井造船(株)専務取締役
團 員	藤 塚 FUJITSUKA	亮 策 RYOSAKU	三菱重工業(株)常務取締役機械事本部本部長
團 員	吉 元 YOSHIMOTO	利 彦 TOSHIHIKO	(株)神戸製鋼所常務取締役
團 員	山 田 YAMADA	泰 三 TAIZO	三菱商事(株)常務取締役
團 員	武 藤 MUTO	稱 一 郎 SHOICHIRO	(株)TOMEN(TOYO MENKA KAISHA, LTD.)常務取締役
團 員	酒 井 SAKAI	宗 次 MUNETSUGU	川鉄商事(株)取締役鉄鋼貿易本部副本部長
團 員	河 井 KAWAI	雅 MASASHI	(財)KDD ENGINEERING & CONSULTING 常務理事

職 位	姓	名	團 體 / 會 社 名
團 員	三 上 MIKAMI	良 造 RYOZO	(社) 日本船主協会常務理事
團 員	八 木 YATSUGI	芳 樹 YOSHIKI	三菱重工業(株)機械事業本部 重機械部長
團 員	浅 尾 ASAO	吉 昭 YOSHIAKI	三井物産(株)海外業務部部長 職 ASIA 室長
團 員	森 MORI	紀 二 MOTOJI	(株)第一HOTEL企画部部長
團 員	津 田 TSUDA	耕 資 KOSUKE	新日本製鐵(株)製鐵ENGINEERING 事業部ASIA営業部部長代理
團 員	上 田 KAMIDA	昌 史 MASASHI	富士通(株)海外事業本部長代理
團 員	川 田 KAWADA	雄 基 YUKI	三菱商事(株)業務部部長代理
團 員	森 MORI	亮 人 AKIHITO	伊藤忠商事(株)海外市場部部 長代行
團 員	波 多 野 HATANO	千 之 CHIYUKI	(株)日本長期信用銀行調査部 副長
團 員	八 木 YAGI	庸 一 郎 YOICHIRO	(株)日本興業銀行海外本部海 外参事役
團 員	片 谷 KATAYA	齊 HITOSHI	日商岩井(株)SEOUL支店長
團 員	水 田 MIZUTA	章 一 SHOICHI	日本工営(株)SEOUL事務所長
團 員	福 田 FUKUDA	圭 助 KEISUKE	(株)東京銀行SEOUL支店長

職 位	姓	名	團 體 / 會 社 名
團 員	辛 島 KARASHIMA	洸 TAKESHI	兼松江商榘 SEOUL 支店長
團 員	木 下 KINOSHITA	不 二 夫 FUJIO	國際電信電話榘 SEOUL 事務 所長
團 員	後 藤 GOTO	猛 TAKESHI	山一証券榘 SEOUL 駐在員 事務所所長
團 員	木 村 KIMURA	記 MANJI	住友商事榘 SEOUL 支店長
團 員	畑 HATA	典 次 SUKETSUGU	NICHIMEN榘 SEOUL 支店長
團 員	加 治 KAJI	輝 美 TERUMI	三井物産榘 SEOUL 支店長
團 員	取 出 TORIDE	洋 三 YOZO	榘東食 SEOUL 支店長
團 員	藤 井 FUJII	章 AKIRA	川鉄商事榘 SEOUL 支店長
團 員	三 好 MIYOSI	正 也 MASAYA	(社) 經濟団体連合会常務理事
團 員	室 谷 MUROYA	文 司 BUNJI	日本商工会議所常務理事
團 員	山 口 YAMAGUCHI	英 治 HIDEHARU	日韓經濟協會專務理事
隨 員	蟻 川 ARIKAWA	昭 二 郎 SHOJIRO	小野田CEMENT榘秘書室長

職 位	姓	名	團 體 / 會 社 名
隨 員	榊 SAKAKI	美 温 YOSHITADA	石川島播磨重工業(株)輸出營業本部輸出統括部副部長
隨 員	細 谷 HOSOYA	武 男 TAKEO	(株)日本興業銀行産業調査部課長
隨 員	榊 原 SAKAKIBARA	三 郎 SABURO	日商岩井(株)海外業務部 ASIA 大洋州課長
隨 員	藤 田 FUJITA	忠 TADASHI	東京急行電鉄(株)秘書課長
隨 員	額 額 KOKETSU	俊 輔 TOSHISUKE	東京急行電鉄(株)政策室參事
隨 員	上 野 UENO	一 男 KAZUO	三菱商事(株) SEOUL 支店業務企画部部長代理
隨 員	庄 野 SHONO	正 則 MASANORI	大阪商船三井船舶(株)定航一部副部長
隨 員	斉 藤 SAITO	隆 晃 TAKAAKI	丸紅(株) ASIA 室 ASIA 第一課課長補佐
幹 事	桜 井 SAKURAI	泰 YASUSHI	(社) 經濟団体連合会經濟協力部部長
幹 事	古 沢 FURUSAWA	寛 MINORU	(社) 日本貿易会企画部長
幹 事	石 井 ISHII	満 MITSURU	日本商工会議所事務局長付部長

職 位	姓	名	団體／会社名
幹 事	高 橋 TAKAHASHI	栄 一 EIICHI	日韓經濟協會事務局長
事務局	江 部 EBE	進 SUSUMU	(社) 經濟団体連合会經濟協 力部調査役
事務局	木 村 KIMURA	宏 和 HIROKAZU	日韓經濟協會調査弘報室長
事務局	林 HAYASHI	芳 典 YOSHINORI	日韓經濟協會事務局

〈基調演說〉

韓日經濟關係의 效果分析으로 본 技術協力의 意義

韓國産業經濟技術研究院

研究委員 曹圭河

나는 이자리를 빌어 韓國이 高度成長을 해오는데 있어 日本의 資本・技術協力이 큰 도움이 되었다는 점을 評價하고자 하며, 同時에 日本經濟의 擴大・高度化・高度成長에 韓國의 高度成長이 적지않은 寄與를 해왔다는 事實을 實證的 分析調査를 援用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韓國이 經濟發展을 지속하는데 있어서 가장 重要的 要素인 技術開發 問題의 해결에 日本의 技術協力이 열쇠가 될 것이고 그로 인한 韓國經濟의 發展이 日本經濟에도 플러스가 될 것이라는 점을 強調하고자 합니다.

韓日經濟關係는 어느 한 나라가 一方的으로 施惠를 베풀기만 했거나 받기만했던 關係는 아니며 또한 한 나라에 得이 있으면 다른 한 나라가 失을 보게 되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두나라의 利害關係가 一致하는 共存共榮의 關係임을 過去實績이 證明하고 있습니다.

日本의 한 報告書는 中進國 즉 韓國의 特定産業 成長이 先進國 즉

日本の 産業에 끼친 Positive Impacts와 Negative Impacts를 다음과 같이 分析하고 있습니다.

(1) Positive Impacts

① 韓國의 産業構造는 아직 前後方 聯關效果가 크지 못한 未完成 狀態에 있으므로 日本의 資本・技術協力에 힘입어 한 産業이 發展하면 그 産業에 必要한 素材・原資材・中間財・設備・機械의 全部를 國產品으로 充當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一部 아니 大部分을 先進國에서 그중에서도 日本에서 輸入하게 됩니다. 韓國의 어느 産業이 急成長함으로써 增加된 對日 輸出量보다 그 産業發展이 誘發한 日本으로부터의 輸入量이 훨씬 컸음은 물론이고 當該産業에만 局限시키더라도 輸出增加量보다 輸入增加量이 初期에 있어서는 많았음이 纖維와 鐵鋼을 케이스로 한 調査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② 韓國의 産業이 發展하면서 日本으로부터의 輸入誘發이 量的 質的으로 커지고 高度化됨에 따라 日本의 産業構造가 보다 高度化 되도록 調整된다는 점입니다. 纖維産業의 경우 誘發輸入中間財는 天然系原料에서 化學系原料로, 投資財의 경우 輕機械에서 重機械로, 電氣의 原理에서 化學的 原理로, 電氣的 原理에서 電子的 原理로, 半自動型에서 全自動型으로 보다 精密, 大規模의 것으로 變化하여 低加工中間財에서 高加工中間財로의 質的 變化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③ 또한 日本의 低附加價值産業이 韓國의 同種産業의 發展과 輸出攻勢에 못이겨 衰退하는 가운데 살아남기위해 生産性 向上에 拍車를 加하던가 아니면 보다 高附加價值業種으로 轉移해 감에 따라 日本의 産業構造는 보다 生産性이 높아가고 消費者는 同製品을 보다 싼 가격으로 購入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勞動集約的인 製品의 低價購

入이 가능하게 되어 生産性 格差인플레이를 抑止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④ 무엇보다도 重要な 것은 韓國産業의 發展과 經濟成長이 韓國國民의 所得水準向上과 輸入總需要를 擴大시키고 多様化시킴으로써 先進國 特히 日本의 輸出市場規模가 擴大되고 多様化되어 왔다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日本의 産業界는 이와 같은 Positive Impacts 보다는 Negative Impacts를 보다 우려하는 傾向이 있는 것 같고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됩니다.

(2) Negative Impacts

① 韓國産業은 輸出主導型이기 때문에 韓國에서 生産된 製品이 日本市場으로 輸出되어 日本의 同種産業의 生産과 雇傭을 壓迫하고 國內價格의 混亂과 在庫増大를 일으킵니다. 뿐만 아니라 關聯諸産業에까지 좋지 않은 間接效果를 끼칩니다.

② 韓國의 輸出商品중 一部分은 從來 日本의 輸出市場이었던 第3國 市場에서 競争함으로써 日本製品을 驅逐하고 同産業 및 關聯産業에 直・間接效果를 끼칩니다.(例 美國에의 纖維類 輸出)

③ 韓國에서의 特定産業의 成長은 종래 日本의 重要輸出市場이었던 韓國 市場을 喪失하게 되는 負의 效果를 미칩니다.

④ 그밖에 一次產品市場에서의 새로운 競争者의 出現으로 資材價格이 上昇하고 또 韓國의 輸入商品이 점차 國産化 되어감에 따라 既存의 直接投資機會가 喪失되는 등:

의 Negative Impacts도 있습니다. 日本의 篠原三代平教授는 이상과 같은 Negative Impacts를 負의 부메랑(Boomerang)效果라고 부

르고 있습니다만 慶北大學校의 金泳鎬 教授가 지적했듯이 다음과 같은 側面도 考慮되어야 하겠습니다.

(1) 篠原教授는 日本의 多國籍企業이 美國이나 西歐와의 紛爭을 回避하기 위해 韓國에 投資하여 低賃金勞動, 公害防止費節減등의 好條件을 利用하여 보다 싼 製品을 生産하여 美・歐에 輸出하는 경우도 第3國市場에서의 부메랑現象에 포함시켰지만, 이는 日本資本의 韓國을 據點으로 한 戰略의 一環이지 韓國으로부터의 日本에 對한 부메랑現象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2) 日本의 企業이 日本國內의 系列中小企業에 비해 보다더 싸게 部品을 調達하기 위해 韓國의 中小企業에 下請을 주어 生産・調達하거나 또는 馬山自由地域등에 直接投資를 하여 그곳에서 製造한 部品을 日本에 가져가는 것도 부메랑現象이라 하지만, 이는 日本의 大企業과 系列下請企業간의 關係에서 일어난 會社內 國際分業生産戰略의 一環이므로 負의 부메랑效果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3) 韓國造船業의 例처럼 日本企業이 對韓技術協力を 拒否했기 때문에 韓國이 유럽에서 技術을 導入하여 輸出競爭力을 갖춘 다음 世界造船市場에 進出할 경우, 그것은 日本에서 移轉된 技術이 아니므로 日本에의 부메랑現象이라 볼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追跡現象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무릇 부메랑現象이란 技術과 資本輸出에 따른 市場擴大效果와 逆輸入現象을 플러스・마이너스해서 日本의 對韓輸入이 輸出을 超過하거나 그럴 危險이 커질때 비로소 심각한 問題로 提起된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日本의 資本技術協力이 誘發한 Positive Impacts와 Negative Impacts가 과연 어떻게 나타났느냐에 關心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만, 韓國에 對한 日本의 資本・技術協力は 오히려 日本에게 커다란 플러스를 가져왔음을 각종 조사・연구가 밝히고 있습니다.

OECD가 79년에 發表한 레뵈푸報告書는 NICS의 抬頭로 日本이 가장 많은 것을 얻은 gainer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OECD 諸國全體의 NICS (韓國 등 10 個國)로부터의 工業品 輸入은 63 年の 12 億弗에서 77 年の 328 億弗로 27 倍로 늘어나 輸入畧어가 2.6 %에서 8.1 %로 되었습니다. 한편 對NICS 工業品輸出은 增加率이 9.7 倍로 輸入보다는 낮지만, 50 億弗에서 486 億弗로 約436 億弗이나 늘어나 輸入增加의 絶對額 316 億弗보다 훨씬 많아져서 對NICS 工業品 貿易바란스는 38 億弗의 出超에서 158 億弗로 增加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日本 JETRO의 長坂壽久 研究팀이 調査하여 79 年 3 月에 發表한 結果는 韓國의 高度成長은 日本으로 보아 威脅이 아니라 플러스로 作用하였음을 證明하고 있습니다. 小島清教授는 이 調査를 「新興工業國에의 對應」이라는 論文에서 소개하고 NICS 工業化의 成功은 先進諸國에게도 有益하다고 斷定하면서 그 좋은 例가 韓日貿易關係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表는 韓日의 代表的 貿易製品의 韓日中間財相互調達係數은 조사한 表입니다.

韓日相互中間財調達係數

(1975 年)

	A 日 ← 韓 b^{KJ}	B 韓 ← 日 b^{JK}	C B / A 倍 率
食 料 品	0.0058	0.0436	7.5
纖 維 糸	0.0086	0.1938	22.5
纖 維 ・ 革 製 品	0.0217	0.2348	10.8
木 製 品	0.0054	0.0499	9.2
고 무 製 品	0.0023	0.2629	114.3
化 學 品	0.0027	0.3058	113.3
製 鐵	0.0022	0.2051	93.2
鐵 鋼 一 次 製 品	0.0014	0.5395	382.8
金 屬 製 品	0.0010	0.5205	520.5
一 般 機 械	0.0015	0.3200	213.3
電 氣 機 械	0.0025	0.3715	148.6
輸 送 機 械	0.0015	0.4525	301.7
精 密 機 械	0.0024	0.4156	173.2

(出處) JETRO 報告에서 抜粹.

이 表에서 「 A 日 ← 韓 」欄의 「纖維・革製品」을 보면 日本에서 1달러의 最終需要增加가 있을 때 韓國에서 0.0217달러의 中間財를 調達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동시에 「 B 韓 ← 日 」欄의 「纖維・革製品」을 보면 韓國에서 1달러의 需要增加가 있을 때 日本에서 0.2348

달러의 中間財를 調達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數値를 中間財調達係數라고 해도 좋고 相對國에의 中間財依存係數라고 해도 좋습니다. 또는 各國 商品에 포함되는 相對國의 中間財 使用率이라 해도 좋을 것입니다.

C欄은 B/A 의 倍率입니다. 韓國이 比較優位를 갖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 上位의 4品目(食料品, 纖維系, 纖維・革製品, 木製品)에 있어서도 韓國商品의 日本中間財使用率は 日本商品의 韓國中間財使用率의 7.5 ~ 22.5 倍나 많습니다. 資本・技術集約財에서는 그 率이 가장 낮은 製品인 製鐵이라 해도 93.2 倍나 되며, 가장 높은 金屬製品의 경우에는 520.5 倍에達합니다.

上記의 中間財調達係數에 각각의 産業別最終需要를 곱하면 다음 表와 같은 中間財相互貿易額(調達額)을 求할수 있습니다. 日本의 最終需要가 韓國의 20 倍이기 때문에 調達額合計는 日本의 對韓中間財 輸入 12.3 億弗에 對해 韓國의 對日中間財輸入은 30.6 億弗로 2.5 倍의 差로 縮少됩니다. 즉 韓國의 工業化 進展으로 日本이 韓國으로부터 中間財輸入을 늘려가고 있지만 그 2.5 倍나 日本은 韓國에 中間財를 輸出하고 있습니다.

中 間 財 調 達 額

(百 萬 弗, 1975 年)

	A 日 ← 韓 b ^{KJ}	B 韓 ← 日 b ^{JK}	C B / A 倍 率	D A-B / A+B
食 料 品	207.7	69.5	0.3	0.50
纖 維 糸	2 .8	21.0	7.5	0.76
纖 維 ・ 革 製 品	383 .8	564.8	1.5	0.02
木 製 品	17 .9	10.6	0.6	0.26
工 具 製 品	4 .0	67.5	16.9	0.89
化 學 品	21 .2	222.9	10.5	0.83
製 鐵	- 0 .3	- 1.0	(3.3)	0.54
鐵 鋼 一 次 製 品	13 .7	114.8	8.4	0.79
金 屬 製 品	5 .3	79.1	14.9	0.87
一 般 機 械	34 .6	73.0	2.1	0.36
電 氣 機 械	53 .4	331.7	6.2	0.72
輸 送 機 械	41 .7	294.6	7.1	0.75
情 密 機 械	8 .9	39.6	4.4	0.63-
合 計	1228 .9	3065.0	2.5	0.43

(出 處) JETRO 報 告 에 서 抜 粹

이表에서 $A - B / A + B$ 를 計算하면 韓日産業內水平分業指數를 求할 수 있습니다. 이 指數 즉 D欄의 數值가 0에 가까와질수록 韓日産業統合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進展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으며 纖維・革製品以外에는 별로 進展되고 있지 않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 表는 對美輸出에 있어서의 서로의 中間財使用額입니다.

對美輸出韓日相互中間財使用額

(百萬弗, 1975 年)

	A 日←韓 $b^{KJ} E^{JU}$	B 韓←日 $b^{JK} E^{KU}$	C B/A 倍 率
食 料 品	0	0	0
纖 維 糸	3.6	8.5	2.4
纖 維 ・ 革 製 品	2.3	39.4	17.1
木 製 品	0.4	2.2	5.5
고 무 製 品	0.5	1.0	2.0
化 學 品	3.2	75.4	23.6
製 鐵	0.9	28.6	31.8
鐵 鋼 一 次 製 品	0.8	35.6	44.5
金 屬 製 品	0.3	4.6	15.3
一 般 機 械	0.2	7.8	39.0
電 氣 機 械	2.9	36.0	12.4
輸 送 機 械	0.1	2.1	21.0
精 密 機 械	0.2	3.4	17.0
合 計	26.8	373.7	13.9

(出處) JETRO 報告에서

合計額을 보면 日本의 對美輸出額は 韓國보다 約 10 倍쯤 많은데도 불구하고 A는 27 百萬弗인데 B는 374 百萬弗이나 되어 韓國이 對美輸出에 있어서도 日本의 中間財를 使用한 額數가 13.9 倍에達하고 있습니다. 즉 韓國의 對美輸出에 比例하여 韓國의 對日中間財輸入은 더욱 늘어가는 것입니다. 一部商品에 있어서는 日本의 美國市場을 韓國이 잠식해 버린 것이 사실이지만 하나 日本의 對美輸出構造는 더욱 高度化되어 額數에 있어서는 市場占有率을 그대로 維持하고 있거나 오히려 착실히 增加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韓國의 對美輸出增加는 日本의 間接적인 對美輸出增加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같이 韓日中間財相互貿易에 있어서나 對美輸出에 따른 韓日中間財貿易에 있어서나, 또는 總貿易에 있어서나 日本의 對韓出超가 현저한 것은 韓國의 對日中間財調達係數가 日本의 몇 10 倍 몇 100 倍가 되기 때문입니다.

日本의 對韓中間財調達係數가 낮은 것은 韓國의 工業化가 未盡한 結果이기도 하지만 日本經濟가 全產業에 걸쳐 均衡的 發展을 이룩하여 中間財는 거의 모두 日本 國內에서 調達할수 있고 또한 調達하도록 하는 政策을 取하여 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편 韓國의 對日中間財調達係數가 日本보다 몇십배 몇백배나 높은 것은 經濟規模가 작아 모든 產業에 걸쳐 工業化를 추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規模의 經濟를 實現하면서 低廉한 費用으로 效率적인 生産을 하기 위해서는 特定品目 혹은 特定生産프로세스에 特化하고 나머지 品目, 프로세스는 他國으로부터 中間財를 補給받는 것이 經濟적이고 또한 빠른 工業化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中間財를 日本으로부터 補給받아 韓國이 보다 高度의 工業化를 이룩하려면 日本의 對韓出超가 reasonable 하고 韓國經濟가 견뎌나갈 만한 정도의 것이어야 합니다.

問題는 韓國의 對日入超가 앞으로도 계속 擴大될 것인가 아니면 韓日産業統合의 進展에 따라 均衡되어 갈 것인가 하는 點입니다. 물론 韓國은 對日入超라 할지라도 對 3 國出超로 상쇄하여 總貿易收支에서 均衡을 이루면 되겠습니다만, 이 역시 많은 問題點을 안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결국 韓日간의 貿易不均衡 問題는 韓國의 對日中間財調達係數를 낮추든지 아니면 日本의 對韓中間財調達係數를 높여야 解決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두가지 方法중 前者는 韓日經濟關係 緊密化라는 大前提에 背馳되는 만큼 韓國과 日本 모두에게 바람직스럽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方法은 後者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 즉 韓國의 工業化가 더욱 進展되어 日本의 對韓中間財調達係數를 높일 수 있는 基盤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韓國의 對日中間財調達係數를 낮추어야 할 必要性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問題를 解決하는 關鍵은 技術의 導入·應用·開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韓國도 꾸준히 技術向上과 開發에 노력하고있지만 現代科學技術의 大型化·高投資化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에 直面하고 있습니다.

한편 先進國은 開發途上國의 競爭力이 커지지 않도록 抑制하는 傾向이 強해지고 있다고 OECD의 한 報告書(North-South Technology Transfer: The Adjustments Ahead)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先進國이 技術移轉을 하는 경우에도 先進工業國은 設備投資와 關聯해서

그 前段階의 技術과 그 技術이 集約化된 投資財를 輸出하는 傾向이 있습니다. 韓國의 境遇도 62年부터 78年까지의 輸入技術中 68%가 前段階의 技術이며 標準化 段階의 技術이었습니다.

프로덕트·라이프·사이클理論에 따르면 成熟期の 標準化 技術은 技術革新者の 獨占性이 없어진다고 하지만 技術을 移轉하는 側에서는 技術移轉에 따른 製品輸出의 制限·原料·中間財·機械購入에 關한 制約, 競爭技術의 獨自開發制限 類似技術의 開發輸出의 禁止등 여러 가지 付帶義務를 技術導入側에게 賦課하고 있습니다.

日本의 對韓技術移轉도 技術活用に 對한 秘密維持規定때문에 크게 制限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韓國의 技術水準向上을 위해 協力하기 가장 좋은 與件을 갖춘 나라는 韓國의 産業發展이 곧 그 나라의 經濟에 플러스가 되는 日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日本의 對韓技術移轉에는 考慮되지 않으면 안될 몇가지 前提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韓日間産業調整問題입니다. 韓國側으로서는 日本과의 産業統合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그리고 日本側으로서는 比較優位를 이미 喪失한 産業을 日本이 대담하게 韓國側에 移讓할 用意를 日本産業界가 갖고 있는 것인가 하는 問題입니다.

둘째로 技術은 機械·設備·노우하우등으로 具體化 되는데 技術移轉의 效率을 最大化하기 위해서는 資本과 함께 移轉하기를 技術을 提供하는 側에서는 희망합니다. 韓國에서도 技術移轉은 그 많은 部分이 外資導入이란 形式으로 이루어졌습니다. 技術이 順調롭게 移轉되어지려면

韓國의 外資導入政策에 있어서 一貫性을 유지함으로써 그에 대한 信賴性을 確立시켜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韓國實情에 알맞는 合理的인 資本導入政策도 考慮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째로 어떤 技術을 얼마만큼 導入해야 할 것이며 또 實際로 導入할 것인지에 관한 技術政策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어진 與件속에서 效率을 極大化하기 위한 資源配分問題 즉 產業政策과의 調和로운 技術政策의 方向이 提示되어 그에따른 日本의 技術協力이 進展되어가야 할 것입니다.

네째로 이와 같은 制度的 政策的 基礎가 다져진다고 해도 技術移轉主役은 市場經濟體制下的 國家에서는 어디까지나 民間企業입니다. 導入技術의 選定, 條件, 交渉등 具體的인 協議는 企業이 進行해야할 問題이며 이를 위하여는 企業間에 技術移轉·도입의 協力態勢가 갖추어져야 할 것입니다.

日本의 對韓技術移轉이 順調로이 이루어진다면 日本의 技術協力→韓國産業의 競爭力強化→韓國의 輸出增加·日本의 對韓中間·最終財輸入增加→韓國의 投資增加→韓國의 對日中間·資本財 및 最終財輸入增加라는 韓日經濟關係의 好循環이 계속될 것입니다.

이러한 好循環속에서 韓國經濟는 雇傭增加→所得增加→國內市場擴大및 貯蓄增加→投資增加→成長이 이루어져 갈 것이며 産業構造는 高度化되어 갈 것입니다.

이상에서 보아온 바와 같이 問題는 日本의 對韓技術移轉입니다. 이 問題의 解決이야말로 앞으로의 韓日經濟關係를 發展시켜 갈수 있는

열쇠라고 저는 감히 단정하고 싶읍니다. 그리고 이 열쇠를 마련하느냐 못하느냐의 또 다른 열쇠 즉 韓日經濟關係의 發展을 위한 最終 열쇠는 韓日・日韓經濟委員會 여러분이 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始作은 半입니다. 서로 情報를 充分히 交換하면서 서로의 意思를 다듬어 가는 일이라도 바로 오늘 이 時間부터 始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基調演說〉

日本에 있어서의 技術開發의 現況과 技術協力에 對하여

富士通株式會社

副會長 赤澤 璋一

1. 第2次世界大戰以後 日本은 經濟復興을 위해 歐美先進國들로부터 積極的으로 技術을 導入하여 그 改善과 改良을 圖謀하는 한편, 自主技術의 開發에 對해서도 官民이 協力하여 非常한 努力을 기울여 왔읍니다. 그 結果 日本의 産業技術水準은 一部 尖端分野를 除外하고 이제 世界의 最高水準에 있다고 하겠읍니다. 그리고 日本商品은 좋은 品質과 信賴性, 애프터서비스가 徹底한 點, 納期の 正確性 등 高度의 商品化技術로 因해서 國際적으로 높이 評價되고 있습니다.

그 背景으로는,

- (1) 既存技術에 對한 不斷한 改良과 改善
- (2) 技術開發部門과 生産現場部門과의 直結
- (3) 企業間의 自由롭고도 熾烈한 競爭 등을 들 수 있습니다.

2. 오늘의 日本의 技術水準을 말할때 至極히 重要な 포인트는 自主的인 技術開發努力을 長期間에 걸쳐서 쌓아 올렸다는 點입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指標로 對外國特許登錄件數와 美國에 있어

서의 外國人 特許登錄件數를 들 수 있겠습니다.

對外國特許登錄件數(單位:千件)

	(1968 年)	(1976 年)
U S A	78	58
西 獨	41	37
프 랑 스	15	13
英 國	18	14
日 本	8	20

美國에 있어서의 外國人 特許登錄件數(上位 6 個國)

	(1968 年)		(1976 年)	
日 本	1,122	8.1 %	6,542	25.1 %
西 獨	3,981	28.9 %	6,243	23.9 %
英 國	2,677	19.4 %	3,013	11.6 %
프 랑 스	1,436	10.4 %	2,417	9.3 %
스 위 스	983	7.1 %	1,463	5.6 %
캐 나 다	938	6.8 %	1,216	4.7 %

이境遇 日本에 있어서의 特徵的인 것은 官民이 協力하여,

- 60 年代에 있어서는 工作機械, 自動車, 航空機 등 機械關係에 重點을 두고 注力한 點.
- 70 年代에 있어서는 컴퓨터, IC 등 電氣電子分野에 努力을 傾注한 點이라 하겠습니다.

例컨대 海外에도 輸出된 國產旅客機 YS-11의 開發은 그것이 技

術的波及效果가 크다는 것과 많은分野에 걸친 技術集約的인 것이 라는 觀點에서 官民이 總力을 기울여서 다루어지고 推進된 60年代의 代表的인 內셔널·프로젝트였던 것입니다.

또한 70年代에 있어서의 電氣·電子關係의 技術開發은 超LSI, 光通信등의 尖端技術製品을 만들어 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3. 最近의 研究費 急増

低成長經濟下에 있어서 日本의 技術研究費는 最近 몇年間 急速히 增加되고 있습니다.

研究費의 國民所得對比

70年代 2.1 % 前後에서

79年度 = 2.28 %

80年度 = 2.42 %

81年度 = 2.65 %

① 前年度對比 7,000 億圓이 增加한 53,640 億圓

② 伸張率 14.5 % (GNP = 5.2 %, 鑛工業生産 = 3.7 %)

國家·地方公共團體의 研究費 10.8 %

民間 15.8 %

(精密·電氣·自動車等은 20 % 以上)

③ 使用比率 =	企 業	研究機關	大 學
	67.7 %	15.8 %	16.5 %

④ 基礎研究 13.9 % (80年度는 14.5 %)

應用開發研究가 增加

各國의 現況 (괄호內는 67年當時)

U S A	2.6 % (3.6 %)
西 獨	2.98 % (2.8 %)
英 國	2.5 % (3.0 %)
프 랑 스	2.0 % (3.0 %)

이와 같이 해서 日本은 「技術立國」을 向해 힘찬 出帆을 하고 있습니다.

4. 앞으로의 課題

많은 産業分野에서의 技術開發課題는 漸次 收斂되기 시작하고 있으며, 90年代에는 電氣電子關係의 尖端技術이 꽃을 피우고, 2000年以後에는 核融合關係의 技術이 꽃을 피우게 될 것으로 展望됩니다.

또한 長期的 技術開發體制로서는 通産省의 次期世代産業基盤技術인 化學·세라믹스, 高分子分離膜材料 등 12個 테마, 科學技術廳의 創造科學技術推進事業인 超微粒子特殊構造物質 등 5個 테마가 推進中에 있습니다.

要컨대 80年代에서 90年代에 걸친 最大의 目標은 自主的·創造的인 技術開發인 것이며, 社會的·公共的 需要에 立脚한 大型프로젝트開發을 推進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技術面에서의 國際協力을 한층 活潑히 推進하는 것도 日本에게 있어서 큰 課題인 것입니다.

5. 技術協力

(1) 先進國間

共通으로 當面하고 있는 課題 또는 開發코스트가 한 나라의 負擔能力을 超過하는 巨大한 프로젝트 등에 對한 共同作業, 혹은 國際分業이 要求되고 있습니다.

(2) 開發途上國에 對한 技術移轉

開發途上國들로부터의 技術移轉 要請은 實로 多岐多様な 것이며, 또한 極히 高度의 尖端的인 것에 對한 要望도 있습니다.

그러나 移轉된 技術이 円滑하게 移轉이 이루어져서 그 나라에 定着되기 위해서는 相對國의 國情이나 技術水準에 適合한 것이어야 할 必要가 있습니다.

더우기 技術移轉이 成果를 거두기 위해서는,

- 1) 移轉이 円滑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環境條件이 整備될 것.
- 2) 移轉技術의 維持 및 管理能力이 있을 것.
- 3) 改良 및 改善을 위한 自主開發努力이 있어야 할 것.

以上 세가지 條件이 充足되지 못 하는 境遇에는 技術移轉 自體가 困難에 逢着하게 되며, 設令 移轉이 이루어졌다 해도 그것은 單發의 인 것으로 끝남으로써 한 나라의 技術水準을 提高시키는데 큰 힘을 發揮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나라의 技術水準을 向上시키고 産業의 質을 높이며 國際競争力을 強化시키기 위해서는, 必要한 技術移轉을 排除와 아울러 그 關聯 및 周邊技術 혹은 더욱 進歩된 分野의 技術에 對한 自主的인 開發努力이 官과 民 各自의 領域에서 혹은 産·學·官의 努力下에 強力히 推進될 必要가 있습니다.

특히 尖端技術이라 일컬어지고 있는 分野의 技術에 있어서는 그것이 多年間에 걸친 노우하우의 集積이라 할 수 있는 性格의 것이 많기 때문에 이를 移轉하는 境遇에는 많은 困難을 隨伴하게 됩니다. 私企業을 基準해서 생각하면,

1) 技術만인 境遇는 相互크로스·라이선스契約에 의한 有利性이 있는가?

2) 貿易 또는 投資를 隨伴함으로써 一定한 利益이 確保되며 혹은 그 技術의 管理가 可能한가 아닌가?
등이 重要な 決定의 要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契約相對企業에 對한 信賴性도 大端히 重要的 要素입니다. 따라서 이 境遇 受容國政府의 貿易 및 資本導入에 關한 政策이 큰 問題點이 되는 同時에 受容國 혹은 相對企業이 研究開發에 臨하는 姿勢, 技術者教育의 推進方法, 技術노우하우 및 特許의 保護, 그리고 對價 支拂에 關한 制度 등도 大端히 重要的 問題가 되는 것입니다.

發展途上國에 對한 技術協力과 移轉에 있어서 日本政府는 이의 推進을 支援하는 政策을 取하고 있습니다. 또한 技術 自體의 移轉의 前提가 되는 特許制度, 標準化制度, 人材養成 등 技術開發基盤의 整備에 對해서도 積極的인 協力を 推進할 姿勢를 갖추고 있습니다. 企業側에서도 위에서 例示한 條件의 整備가 갖추어지는데 따라 이를 推進할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以上, 一般論으로서의 技術協力에 對한 私見을 말씀 드렸으나, 韓日兩國의 境遇는 지난 1 月の 兩國頂上會談에 있어서의 共同聲明에서 技術協력을 한층 더 推進할 것에 合意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앞

으로는 韓國側의 諸般 環境이 한층 더 整備되기를 期待하는 同時에
서로 相對方의 實情과 問題點을 正確히 理解함으로써 이 問題가 円
滑하게 進展되기를 衷心으로 希望하여 마지 않습니다.

韓國의 外資導入政策과 對外債務 問題

財務部 國際金融局長
李 勇 成

오늘 韓日民間合同 經濟委員會가 開催되는 이 뜻깊은 자리에서 우리나라의 外資導入政策 및 對外債務問題와 앞으로의 政府方針에 관한 所見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周知하시는 바와 같이 昨今の 世界經濟는 過去 어느때 보다도 相互協力과 共同解決의 努力이 絶실히 要求되고 있으며 어느 1國의 努力만으로는 急變하는 國際環境下에서 世界經濟의 均衡的 發展을 이룩하기란 不可能하다고 하겠읍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開發國의 경우를 보면 經濟開發에 必要한 資源, 資本 및 技術이 不足하기 때문에 先·後進國間의 協力이 없이는 經濟發展이 어렵고 따라서 世界經濟는 跛行性을 持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1960年代 以後 經濟開發計劃을 樹立, 執行하는 過程에서 外國資本 및 先進技術에 依存한바 컸으며 이것이 우리經濟의 持續的인 高度成長과 經濟의 國際化指向에 밑바탕이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過去 經濟開發經驗은 앞으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餘地 開發國의 經濟開發政策樹立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믿

습니다.

最近 우리經濟는 우리가 지금까지 經驗해 보지 못한 物價安定을 이룩하고 있으며 國際收支 또한 그 赤字幅이 大幅 減少 추세에 있고 國民經濟도 만족할 만한 水準은 아니나 着實히 成長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 經濟는 經濟成長에 必要한 投資所要를 國內貯蓄으로 모두 充當할 수 있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였고, 따라서 海外貯蓄에 相當部分을 依存하고 있으며 이러한 意味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外資導入問題는 重要한 經濟政策手段의 하나로 尙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外資導入의 基本方向은 所要外資를 円滑하게, 그리고 有利한 條件으로 適期에 確保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첫째, 國際金融機構등, 公的金融을 最大限 확보토록 하며

둘째, 借入先의 多邊化, 借入方式의 多樣化, 借入機關의 確大 등으로 外資導入을 多邊化하는 同時

셋째, 市場進出規模를 平準化시키기 위하여 資金所要時期를 감안한 年間市場進出計劃을 樹立함으로써 市場進出時期의 調整을 強化하고 있습니다.

네째로 元利金償還의 負擔이 없이 資本, 市場, 技術의 同時 確保가 가능한 外國人 直接投資를 積極적으로 誘致할 方針입니다.

外國人投資는 開放經濟를 指向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그重要性이 至大하므로 좀더 상세히 說明드리겠습니다.

政府는 1982 年中에 外國人投資의 適格業種 및 許容比率을 擴大하였는바 그 內容을 보면 첫째, 韓國標準產業分類에 의한 總 855 個

業種中에서 投資許容業種을 從前 427 個業種에서 521 個業種으로 94 個業種을 擴大하여 그 開放比率이 60.9 %에 達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外國人이 100 %까지 投資할수 있는 業種을 從前 56 個에서 65 個로 擴大하였습니다.

그리고 外國人 投資의 認可는 原則적으로 關係部處 委員으로 構成되는 投資審査委員會의 審議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그 處理 節次를 大幅 간소화하고 處理期間을 短縮하기 위하여 첫째, 100 만불 이하의 適格業種에 對한 新規投資 認可는 投資審査委員會의 審議節次를 省略하고 둘째, 100 만불 이하로서 本來事業의 目的과 同一한 事業에 對한 增額投資는 關係機關에 對한 意見照會 및 投資審査委員會의 議決등을 省略하여 財務部에서 即時 認可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外國人投資의 沮害要因을 迅速하게 除去함으로써 投資環境을 改善하기 爲한 努力의 一環으로서 82 年中에 外國人投資促進協議會와 外國人投資與件改善委員會를 設置하여 運營하고 있습니다.

外國人投資事業 推進上の 問題點 및 隘路事項에 對한 迅速的 處理와 關係機關과의 円滑한 協議를 通하여 外國人投資家에게 便宜를 提供하기 위하여 設置된 外國人投資促進協議會는 關係部處와의 異見으로 認可가 지연되었던 라마다호텔 및 海上觀光호텔의 新規合作 投資를 認可케 하는등 많은 成果를 올렸으며,

內・外 投資家間の 不和 또는 意見對立을 調整하기 爲하여 設置된 外國人投資與件改善委員會는 昨年度에 發生했던 權華・셀 株式會社の 內・外 投資家間の 紛糾를 圓満히 解決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政府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外國人投資를 더욱 促進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外國人投資에 關하여는 우리經濟의 開放化, 自由化政策과 보조를 맞추면서 그 門戶의 開放幅을 擴大해 나가며 其他 殘存 投資制約 要因을 果敢히 除去하여 外國人이 國內에서 自由로 營業을 할수 있도록 外國人投資環境을 改善해 나갈 計劃입니다.

이러한 外國人 投資制度의 大幅的인 改編을 爲하여 政府는 빠른 時日內에 外資導入法을 改正할 計劃으로 있으며 現在 實務的인 次元에서 作業을 推進하고 있는 中입니다.

現在 檢討되고 있는 改編方向을 말씀드리면 첫째, 生産性을 提高하거나 國際競爭力을 強化하는데 寄與하는 事業에 對하여는 業種이나 投資比率에 별다른 制限을 두지 않고 그 門戶를 擴大 開放할 것이며 이경우 一定한 要件만 갖추면 自動的으로 投資가 可能토록 投資節次도 大幅 簡素化하고,

둘째 外國人投資家の 營業活動을 보다 원활히 支援하기 위하여 外國人投資企業에 對한 事後管理 範圍를 크게 完化하거나 간소화 함으로써 實質的으로 外國人投資與件이 改善될 수 있도록 해 나갈것 입니다.

그리고 이 機會에 우리나라의 外資導入 및 管理를 관장하는 기구에 대하여 紹介드리면, 過去에는 導入外資의 性格에 따라 經濟企劃院 및 財務部에서 2元的으로 관장하여 왔었으나 效率的인 外資의 導入 및 管理 그리고 國際收支 및 財政·金融政策과의 有機的인 關聯을 고려하여 1981年 11月부터 當 財務部에서 모두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83年度 우리나라 外資導入計劃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82年度에 經常收支 赤字補填, 元金償還등으로 約 67億弗의 外資를 導入하였던 우리나라는 今年에는 約 63億弗의 外資導入이 必要한바 이 중 公共・商業借款 및 外國人投資 29億弗, 金融機關借入 16億弗 등 장기자금으로 49億弗을 조달하고 短期資金으로 나머지 14億弗을 導入할 計劃입니다.

外資導入計劃과 關聯하여 最近의 國際金融市場動向을 살펴보면 昨年の 東歐 및 中南美 開發國들의 外債危機以後 開發途上國의 外債償還能力문제에 대한 憂慮가 크게 抬頭되면서, 開發國에 대한 信用供與를 忌避하는 傾向이 있으며 더욱기 先進國의 財政赤字 擴大, 原油價下落에 따른 Oil Money 還流의 不振등에 따라 流動性供給이 梗塞될 것으로 보아 開發國의 借入에 全般的인 어려움이 豫想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82년에 이어 83년에도 物價安定, 國際收支改善 등에 더욱 注力하는등 우리 經濟를 보다 健實하게 運營할 計劃이며 또한 外資導入의 多邊화와 市場進出時期 및 規模의 調整을 신중히 하 는 同時에 導入外資의 效率的인 관리에 蹉跌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經濟에 대한 對外信認이 繼續 維持될 것으로 보여 83年度の 所要外資調達에는 別問題가 없을것으로 確信하고 있습니다.

한편, 最近 開發途上國의 債務規模 및 이의 償還能力에 대하여 一部에서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機會를 빌어 우리나라의 對外債務現況 및 管理方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82年末 現在 우리나라의 長・短期外債殘額은 372億弗인바, 償還期

間이 1年以上인 長期外債가 232 億弗, 償還期間이 1年未滿인 短期外債가 101 億弗, 外國銀行甲計定이 39 億弗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賦存資源과 蓄積된 國內資本이 不足한 우리나라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960年代以後 經濟開發을 推進한 以來 不足한 投資資源을 充當하기 위하여 外資導入을 積極推進하였으며 이러한 外資導入은 우리 經濟의 高度成長에 큰 寄與를 하였으나 한편으로는 對外債務增加의 要因이 되었습니다. 또한 1,2次 Oil Shock로 인하여 原油를 위시한 原資材價格이 급등함에 따라 原資材의 海外依存度가 높은 우리나라는 輸入規模가 늘어나 經常收支가 크게 惡化되어 最近 外債規模增加의 直接的인 原因이 되었습니다.

한 나라의 外債現況을 논의할 때 外債規模도 重要합니다. 그러나 더욱 重視하여야 할 것은 이러한 外債를 導入하여 如何히 效率적으로 使用함으로써 蹉跎없이 償還할 수 있는가 하는 問題인데 이는 外債償還能力과 直結되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外債償還能力을 評價하는 指標로서 元利金償還負擔率(Debt Service Ratio)을 널리 使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元利金償還負擔率을 보면 1979~81年中에는 13%水準을 維持하였으나 82년에는 15.5%로 多少 上昇하였는데 이는 國際金利가 高水準을 維持한 同時, 우리 外債의 變動金利附債務 比重이 높아 利子支給이 增加한데 基因합니다.

이水準은 IMF 등 國際金融機構가 危險한水準으로 判斷하는 20%線에 比하여 낮은 것이며 最近 우리나라의 經濟成長率과 輸出增加

率이 世界的인 不況속에서도 다른나라에 比하여 相對적으로 높았고 物價安定 및 國際收支改善등으로 우리나라 經濟의 잠재력이 크게 向上된 點을 고려할때 現在의 外債償還負擔은 充分히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우기 今年中에는 國際金利의 下落등으로 對外利子支給規模가 減少할 것으로 보이는 데다가 輸出增加勢도 回復되고 있어 元利金償還負擔率은 지난해 보다 한층 낮은 14.2%로 낮아질 것으로 期待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日本을 비롯하여 西方諸國 및 國際金融機構에서 많은 外資를 導入하여 우리나라의 經濟發展에 緊要하게 使用하였으나 단 한번의 차질없이 外債를 償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러한 일은 없을 것으로 確信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가 國際金融社會에서 획득한 無形의 큰 資產인 信用입니다.

저명한 國際金融專門誌인 유로머니(Euro Money)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1974~82年間の 經濟運用實績을 世界 81個國中 7位에 올려놓고 있으며 특히 最近 1年間の 成果를 3位로 評價하고 있습니다.

또한 國際商業銀行들이 借入國에 對한 信用供與 基準으로 칸트리 리스크 評價를 하고 있는데 83年 3月現在 우리나라는 107個國中 32位를 維持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國內政治 및 社會가 安定되고 物價安定, 國際收支의 改善등으로 經濟與件이 好轉됨으로써 國際金融市場에서 우리나라의 信認度가 높아지고 있음을 反映한 것입니다.

지난 年初 日本經濟新聞이 經濟協力開發機構(OECD)의 報告書를 인용, 우리나라의 對外債務가 急増하여 債務不履行(Default)의 可能性이 있는것 처럼 報道한 적이 있었으나 실제로는 DECD가 發刊한 同 資料는 開發途上國의 外債에 關한 資料를 蒐集, 分析한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債務國의 外債償還에 對하여 어떠한 提議나 警告를 한 것이 아님이 判明되었읍니다.

또한 82年末과 今年初에 美國의 時事週刊誌 News Week 와 Time 은 우리나라의 元利金償還負擔率이 50% 정도인 것으로 報道한바 있습니다. 우리가 調査한 바로는 이 報道는 美國의 Morgan 銀行이 發行한 調査資料를 인용한 것이면 Morgan 銀行은 元利金償還負擔率 算出時 短期外債債務殘額을 當年度 元金償還額으로 보고 合算하여 計算한 것이었습니다. 元利金償還負擔率을 算出하는데는 여러 方法이 있겠으나 이러한 Morgan 銀行의 方式은 國際적으로 널리 利用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자칫 誤解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點을 考慮하여 Morgan 銀行은 이후부터 償還負擔率 算出時 短期外債殘額을 不包含한 傳統的인 負擔率과 短期外債殘額을 包含한 負擔率을 同時에 使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政府는 이러한 内外의 우려를 拂拭하기 爲하여 國際收支의 持續的인 改善으로 外債增加規模의 점진적인 縮小를 計劃하고 있으며 따라서 5次 經濟社會發展 5 個年計劃이 끝나는 1986 年末의 外債規模를 當初 645 億弗에서 490 億弗 水準으로 낮출 計劃으로 다음과 같은 政策을 推進하고 있습니다.

첫째, 對外債務의 減縮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經濟의 安定基盤을 定着시키고 經濟能率을 極大化시켜 成長潛在力을 키워나가며

둘째, 貿易政策을 效率的으로 推進하여 輸出增大努力을 계속 強化하여 나가고,

셋째, 限定된 資源의 效率的인 配分을 위한 産業構造調整 및 産業合理化를 위하여 産業構造를 에너지節約型, 技術集約型으로 改編하고 國內貯蓄動員의 極大化를 위하여 通貨金融政策의 安定的인 運用과 金融産業의 發展을 도모하고 財政의 健實한 運用, 인플레이 期待心理의 除去를 통한 貯蓄誘因의 強化등으로 投資財源의 自體 調達能力을 提高시킬 것입니다.

네째, 長期低利條件의 外資導入에 注力할 것이며, 特히 國際金融機構로 부터의 借入 및 兩國間經濟協力에 重點的으로 努力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 韓·日經濟協力は 우리經濟에 重要한 役割을 할것으로 기대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알고 계시겠지만 그 동안의 韓·日間 經濟協力は 日本의 大企業과 韓國의 大企業間에 프로젝트別로 進行되어 왔으며, 이것은 바로 日本의 對韓플랜트輸出形態를 벗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結果的으로 우리나라의 國內産業에 對한 파급효과를 확산시키지 못한채 中小機械工業이나, 소재공업의 育成을 하지 못한 結果를 招來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經濟協力は 새로운 關係를 定立할 수 있는 轉換點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40 億弗 經協은 82 年부터 88 年까지 7 年間에 걸쳐 平均金利 年 6 % 前後로 供與되며, 同 借款의 構成을 보면 엔借款이 18.5 億弗 日本輸出入銀行 事業借款 18 億弗, 輸出入銀行 銀行借款 3.5 億弗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의 韓・日經協이 남북대치 상황이라는 어려운 여건하에서 GNP 의 6 % 나 되는 過重한 防衛費 負擔을 안고있는 우리나라가 5 次計劃의 力點事業인 國民복지와 社會開發部門의 投資財源調達에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크게 기여를 할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韓・日關係가 새로이 동반 對等의 關係를 定立함으로써 東北亞의 新秩序確立에 기여하게 되었으며 新린관계 定立의 歷史的指標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以上에서 우리나라의 外資導入政策과 對外債務事情 그리고 韓・日經協의 重要性에 關하여 몇 가지 所見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는 우리가 指向하고 있는 對外開放政策을 더욱 擴大시켜 나갈것이며 國際經濟社會에서 重要한 一員으로서의 應分의 役割을 다할 각오로 있습니다. 오늘 이 會議에 參席하신 여러분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각오를 理解하시고 많은 協調있으시기 바라며 이 委員會가 韓・日兩國間의 돈독한 유대關係를 더욱 發展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충심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感謝합니다.

財務部の 説明에 對한 日本側質疑(1)

(拂) 日本興業銀行

顧問 田 島 敏 弘

방금하신 說明을 듣고, 韓國의 對外債務辨濟能力에는 전혀 念慮할바 없다는 點을 充分히 理解하게 되었습니다. 굳이 말씀드리자면, 방금指摘하신바와 같이 新聞・雜誌等에는 이 點에 對해 여러가지로 報道된바 있습니다만, 韓國經濟에 對한 우리의 信賴感이 이와같은 記事에 依해 動搖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방금 說明과 關聯, 韓國經濟全體와의 關係에서 2가지程度 質疑하겠습니다.

첫번째로, 5 個年計劃에 依한 86 年の 外債規模를 490 億 \$로 縮小할 計劃이며 따라서 86 年度 海外로부터의 純外資導入額은 제로로 한다고 듣고있습니다. 그리고 그前提로 82 年부터 86 年까지 輸出增加를 年 15 %, 輸入增加의 경우 13 %를 計劃하고 계십니다만, 先進國景氣回復力이 微弱한 點, 그리고 產油國 非產油途上國의 中期的 經濟停滯등의 여러가지 條件等を 考慮해볼때 韓國의 5 次計劃期間中 世界貿易의 伸張率은 기껏 5 %以下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狀況에서 15 %라는 輸出伸張率은 너무 높은 水準이지 않나 생각됩니다만, 이點에 對한 說明을 付託드립니다.

두번째로 1986 年末의 對外債務殘額을 490 億 \$로 縮小하는 前提로서, 國內貯蓄率의 急激한 上昇, 즉 82 年の 25.5 %를 86 年에는

30.5 %로 伸張시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점 역시 一般的인 水準으로 보아 꽤 높은 水準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를 達成하기에는 相當한 困難이 있을 것으로 豫想됩니다. 그래서 貯蓄率伸張을 위한 具體的인 方案에 對해 듣고 싶습니다.

以上입니다.

財務部の 説明에 對한 日本側質疑 (2)

(株) 第 一 H O T E L

取締役社長 秋 田 兼 三

産油國 經濟가 昏迷한 現狀況下에서, 이것이 韓國經濟에 미치는 영향에 關해 몇가지 여쭙어 보고자합니다.

最近 原油價格의 下落으로 産油國의 經濟는 惡化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經濟開發計劃의 下向修正이 不可避한 나라도 많습니다. 이런 狀況下에서 韓國의 對産油國輸出 및 海外勤勞者の 送金에 惡影響을 끼친다는 점은 充分히 豫想할 수 있습니다.

韓國의 1982年度 海外建設 受注 百數十億\$의 大部分이 OPEC 關聯으로 듣고 있습니다만, 따라서 韓國經濟에 주는 충격도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原油價格의 下落이 韓國經濟에 주는 MERIT가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만, 以上과 같은 DEMERIT의 영향은 어느程度라고 생각하고 제신지 이것이 첫 質問이고, 두번째는 海外建設 造船輸出等으로 韓國이 가지고있는 海外債權의 現況 및 今後 5年間의 趨移에 關해 알고싶습니다.

財務部の 説明에 対한 日本側質疑(3)

日 本 輸 出 入 銀 行

理事 辻 和 三 郎

田島顧問과 秋田社長の 質問과 조금 重複되는 部分도 있습니다만, 이 機會에 약간 質問하겠습니다.

李局長의 説明으로 83年度 外資導入計劃에 關하여는 充分히 理解 되었습니다만, 5次 5個年計劃 全體의 外資導入計劃에 關해 두가지만 質問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外資導入計劃을 세울 경우 重要한 前提가 되는 經常收支 展望에 關해서 입니다.

韓國은 第4次 5個年計劃時에도 最終年度인 81년에 經常收支의 黑字示願을 그 目標로 했습니다. 不幸하게도 第1次 OIL SHOCK에 의한 情勢變化때문에 이 目標達成은 不可能했습니다.

日本の 경우도 經常收支 黑字가 오랜 宿願이었기 때문에, 韓國이 이것을 最大政策目標로 삼고 계신點은 充分히 理解가 갑니다.

昨年 12월에 作成된 第5次 5個年計劃의 修正分에 의하면, 이 計劃期間中에 經常收支의 黑字轉換이 可能할 것으로 展望하고 계신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만, 現時點에서 이 目標達成의 可能性은 더욱 높아졌다고 생각하고 계신것으로 理解해도 무방하겠는지요? 이것이 첫 번째 質問입니다.

두번째는 當初計劃에서는 5個年間の 外資導入必要額을 465億\$

로 展望하고 계셨습니다. 李局長의 說明에 의할것 같으면, 86 年末의 對外債務殘額은 當初計劃인 645 億\$에서 490 億\$程度로 約 150 億\$을 減少시킬수 있다고 展望하고 계시기때문에 5 個年間の 外資導入 必要額을 꽤 줄여도 될것 같다고 展望하고 계실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5 個年計劃 全體로서는 대략 어느程度로 推定하고 계신지 들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日本側質疑에 對한 答辯 및 補充說明

經 濟 企 劃 院

經濟企劃局長 金 大 泳

財務部の 韓國의 外資導入政策과 對外債務問題에 對한 說明時 質問이 있었던 몇 가지 經濟企劃院의 總量指標에 關하여 說明을 드리겠습니다.

質問內容을 要約하면, 첫번째는 82년부터 86년까지 즉 第5次經濟社會發展 5個年計劃期間中 純外資所要額의 規模, 다음은 同期間의 輸出, 輸入伸長率이 適正한가, 세번째는 86年 國內貯蓄率이 너무 높은 것이 아닌가, 네번째는 油價引下로 因한 韓國經濟에의 波及效果, 다섯번째는 5次經濟社會發展 5個年計劃期間中の 海外建設, 造船等の 海外債權展望, 여섯번째는 86년까지의 國際收支展望, 특히 그 均衡이 可能하겠느냐, 마지막 일곱번째는 5次計劃에서 81年 樹立當時의 外債規模計劃值 645億\$이 490億\$로 修正되었는바, 이러한 縮小로 因해 우리 經濟運用에 차질을 招來하지 않겠느냐는 質問, 이렇게 일곱가지로 要約할 수 있습니다.

여러 분의 理解를 돕기위해 5次計劃 總量指標의 連動化에 關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勿論 5次計劃의 基本方向이라든지, 政策課題는 韓國經濟 運用基調로 修正이 없겠습니다만은, 總量指標의 경우 우리가 計劃樹立時 對外與件의 많은 不確實性을 豫見하면서 計劃을 作成했습니다. 그 對外與件의 不確實性中 韓國經濟와 가장 關聯이 많은것 몇가지를 말씀드리자면 世界保護貿易主義가 어느程度까지 擴散되느냐, 이것은

우리經濟가 輸出을 主導로 하는 成長을 指向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重要한 假定이었읍니다. 두번째는 世界原資材價格展望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은 우리나라가 資源貧困國이므로 特別히 우리에게 重要한 假定이었읍니다. 特別히 原由價에 對한 展望은 이것이 그 當時 우리나라 國民總生産中 約 10 %의 支出을 占하고 있었기 때문에 油價展望은 우리에게 대단히 重要한 假定이었읍니다. 또 한가지는 世界의 成長, 交易量의 추세 즉 79年부터 81년까지 持續되는 世界不景氣가 언제 回復될 것이냐 이런것도 우리들로서는 신중을 기해 檢討한 部分이었읍니다.

韓國의 外債規模로 보아 現在 國際金利에 對한 假定, 예컨대 1%가 引下되었을때 우리가 約 2億5千萬 \$만큼 所得流出이 줄기 때문에 이러한 國際金利의 假定도 重要한 假定中の 하나였읍니다. 그래서 이러한 假定等을 背景으로 우리가 5次計劃書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것을 隨時로 修正할 수는 없지만 每年 적어도 實績值를 計劃值에 다 反映시키면서, 이러한 與件 變化分을 綜合해서 連動化시키는 것을 5次計劃의 基本骨字로 했읍니다.

그래서 82年末과 즉 昨年末과 今年初에 우리가 5次5個年計劃의 第1次 連動化를 할때,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國際與件에 對한 假定을 우리가 몇가지 修正한 것을 말씀드리고, 그 修正에 의해서 連動化된 總量指標를 다시 修正해서 發表한 것입니다.

그 中에서 重要한 것은 무엇보다도 世界交易量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82년부터 86년까지 約 5 %의 交易量이 增大할 것으로 假定했읍니다만, 世界景氣의 침체로 82년에는 제로%, 今年에는 대개 3~

5 %의 成長이 豫想되기 때문에, 이 點에 있어 修正이 不可避했습니다. 그러나 84 年부터 그 이후에는 역시 交易量 5 % 增加를 假定했습니다. 輸入單價는 約 8 %가 引上되는 것으로 假定했습니다만은 82 年 즉 去年에 마이너스 7.8 %로 引下 되었습니다. 그리고 今年度에는 거의 歩合狀態로 생각됩니다만, 84 年 以後에는 約 5 %程度로 보는 것이 安定된 假定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特히 油價에 對한 假定이 우리들의 連動化에서 總疊指標를 修正한 하나의 原因이 되겠습니다.

油價가 우리들로서는 10 %가 計劃期間中에 引上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만, 82 年 즉 去年에는 - 4 %, 今年에도 많이 引下 되겠습니다. 84 年以後에는 역시 5 %의 引上을 前提로 했습니다. 輸出單價의 面에서도 8 %로 假定했던 것이 去年에 4.2 % 引下되었습니다. 國際金利도 約 10.2 %로 假定했던 것이 昨年度 平均 支拂利率은 13.2 % 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러한 交易條件이 改善된 部分 특히 82 年과 83 年에 交易條件이 改善된 分과 油價引下에 대한 分 또 油類消費節約과 對替效果는 計劃樹立當時 보다는 우리들에게 많은 效果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貿易收支를 改善하고 結局은 經常收支改善에 이바지를 하게 된 것입니다.

例를 한가지 말씀드리면 油類인 경우는, 기름輸入 이것이 計劃值로는 86 年 즉 5 次 5 計年計劃의 末年度에 우리가 2 億 6 千萬 배럴 그리고 배럴當 單價는 58 \$ 이었습니다.

지금 들으시면 이런 것이 허무한 假定이라고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第2次 오일쇼크 이후, 우리가 油價에 대해서 그렇게 樂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計劃樹立當時에는 그러한 假定이 不可避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요전에 連動化할때, 86 年の 油類消費量을 約 2 億배럴로 그리고 油類輸入額은 152 億 \$로 되어 있었던 計劃値를 結局은 現在에 와서 80 億 \$ 内外로 縮小調整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背景說明에 의해 여러분의 質疑에 많은 總體的인 答을 얻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說明드리기 쉽도록 여러분의 質問의 順序를 바꾸고 綜合해서 答辯을 드릴까 생각합니다.

輸出入인 경우에 輸出은 5 次計劃期間中에서 82 年に 253 億 \$로 보았던 것이 210 億 \$ (FOB 價格 基準)로 縮少되었습니다. 그리고 83 年度 305 億 \$로 잡았던것을 今年에 235 億 \$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交易量 5 %를 84 年부터 假定하는 것은 요사이 先進國景氣의 回復趨勢等을 감안해 볼때 큰 無理가 아니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交易量이 加重된 우리 輸出의 彈性値를 2 ~ 2.5 %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交易量增加를 통해서 우리가 實質輸出增加를 10 ~ 11 %로 볼 수 있고 아까말씀드린 輸出單價에서 約 5 %를 하게되면 16 %의 名目 增加率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假定下에서 86 年に 370 億 \$程度의 輸出을 展望하고 있습니다. 輸入인 경우에는, 이러한 輸出을 지원해주고 또 對 GNP 彈性値 1 % 内外를 감안하고 또 앞으로는 機械中心으로서 우리가 어느程度 輸入對替效果를 期待할 수 있으며, 食糧自給努力이라든지 ENERGY 節約과 ENERGY 對替를 爲한 努力等を 통해서 우리는 86 年度에 360 億 \$의 輸入을 展望하고 있습니다.

이런 點에서 여러 분께서는 貿易收支의 改善을 보실 수 있을 것입
니다. 그러나 貿易外收支面에 있어서는 海外建設인 경우에, 우리가 昨
년에 134 億 \$의 受注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近來에 와서 特別히 油價
가 引下되고, 앞으로도 油價가 이렇게 낮은 水準에서 維持될때, 우리
는 今年の 建設受注를 90 億 \$ 内外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入金 稼得
額은 今年の 25 億 \$에서 今年에도 約 25 億 内外로 維持되고, 受注는
어느 程度 줄겠지만 既成高가 約 90 億 \$ 内外로 維持되기 때문에 25
億 \$ 内外의 入金稼得額을 우리들은 展望하고 있습니다.

그 外에도 利子支拂은 82 年の 約 38 億 \$에서 83 年 今年에는 約
36 億 \$로 國際金利가 引下됨에 따라 多少 改善되었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앞으로 86 年까지는 조금 늘어서 86 年에 約 45 億 \$ 程度 되
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全體的으로 貿易外收支는 多少惡化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貿易收支와
綜合해서 볼때 全般的으로 經常收支의 均衡은 86 年頃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外資所要額에 관해 말씀드리면 82 年에 우리의
計劃値로서는 81 億 \$이었으나 實績値가 71 億 \$이었읍니다.

今年에는 計劃値 85 億 \$로부터 縮少된 63 億 \$의 外資所要를 展望
하고 있으며 이 63 億 \$水準의 外資所要額은 86 年까지 持續되리라 생
각합니다. 86 年の 計劃値는 107 億 \$이었읍니다. 그래서 5 次 5 個 年計
劃期間의 外資所要額의 合計는 計劃値 465 億 \$에서 330 億 \$ 内外로
縮少되겠읍니다. 즉 135 億 \$의 縮少는 아까 말씀드린 經常收支改善
이 그 主要理由가 되겠읍니다. 外債殘額은 計劃當時 82 年 去年에
398 億 \$로 보았읍니다만 去年에 實績値가 年末基準으로 372 億 \$이었

읍니다.

今年에는 計劃이 457 億 \$이었지만 저희들은 409 億 \$水準으로 머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今年만 하더라도 50 億 \$程度의 縮少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計劃期間末年인 86 년에는 計劃值 645 億 \$에서 지금까지 꼭 說明드린 그러한 數值를 綜合할때 490 億 \$로 展望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外債縮少는 우리가 結局은 安定을 통한 貯蓄增大, 質問中에서는 貯蓄에 對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잠깐 여기서 附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高物價時代에서 家計貯蓄率이 낮은 것은 事實입니다. 그러나 昨年부터 今年初에 들어서면서부터 高物價에서 低物價로 들어서고, 또 高金利에서 名目金利 低金利體制로 가면서 現在 어느程度 轉換期에 있는 것도 事實입니다. 그러나 實質金融貯蓄은 여러분들이 다른 金融統計에서 보시게되면 緩慢한 增加趨勢에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企業財務構造의 改善을 通해서 앞으로 企業貯蓄의 好調를 우리는 展望하고 있고, 政府貯蓄도 4 年부터 ZERO BASE豫算編成, 財政의 健實運營등을 通해 政府貯蓄은 增大되리라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가 5 次計劃末年인 86 년에 國內貯蓄率 29.6 %로 잡았던것을 修正하면서 29.7 %로 한것은 무리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總債權에 對해서 말씀드리면 船舶輸出은 昨年이 28 億 \$이었읍니다. 그리고今年에 27 億 \$로 展望하고 있습니다. 이를 支援하기 위한 延拂輸出債權은 82 年末에 12 億 3千萬\$이었읍니다. 今年末에는 約 21 億 \$内外로 推定하고 있습니다. 外換保有額은 昨年末에 69 億

달러에서今年에 約 73 億 달러 그래서 適正水準인 經常支給의 約 20 % 程度를 維持한다면, 86 年에는 100 億 달러 程度가 될 것으로 展望하고 있습니다. 其他金融資産을 包含한 總債權은 82 年末現在 86 億 달러에서 83 年에 96 億 달러 86 年에는 145 億 달러 程度로 展望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純債務는 82 年末에 286 億 달러 83 年에 313 億 달러 86 年末에는 340 億 달러 内外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86 年の 경우 GNP의 約 30 % 内外가 되기 때문에 큰 無理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質間이 性格은 조금 다르겠지만 油價引下가 우리 經濟에 미치는 效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輸入인 경우에는 우리가 石油輸入代金支拂減少를 1 年間に 約 9 億 달러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油價引下에 따른 交易量増大를 통한 成長때문에 생기는 輸入에 對한 追加支出은 約 2 億 달러 程度로 생각해서 7 億 달러 程度의 代金支拂減少를 豫測하고 있습니다. 輸出인 경우 油價引下는 結局 產油國으로부터 非產油國으로의, 特別히 先進國으로의 所得移轉現象이며, 우리의 경우 지금 產油國과 非產油國의 輸出比重이 1 : 5 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輸出은 結果적으로 伸長할 것으로 우리들은 判斷하고 있습니다. 建設受注인 경우에는 約 10 % 内外의 受注減少를 豫想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雇用 즉 지금 中東에 나가있는 우리나라의 17 萬名の 雇用に 對해서도 어느程度 減少를 豫想하고 있습니다.

綜合적으로 볼때 國際收支는 向後 1 年동안에 約 7 億 달러 程度는 改善된다고 判斷하고 있습니다. 物價는 原油 導入下落分을 이번에 우리가

價格에다 30 %를 反映시키고 70 %는 基金으로 備蓄하기 때문에 이
點을 감안해 볼때 物價에는 約 1 %内外의 安定을 豫想하고 있습니다.

成長은 아까 말씀드린 輸出이 늘고, 또 安定을 통한 實質購買力
增加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했던것보다 0.3 내지 0.5 %의 成長追加發
生을 展望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要因들을 감안하고, 世界經濟
與件變化趨移를 觀察하면서, 運用計劃의 補完여부는 1/4 분기에 우리 經
濟實績에 關한 여러 統計, 消費, 投資, 成長, 支出에 關한 統計가 나올때
그때가서 다시 檢討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運用計劃의 補完, 이것이 結局 이루어진다면 83 年
末이나 84 年初에 第 2 次로 5 次計劃에 連動을 할때 이런것들을 다
反映해서 5 次計劃의 總量指標를 提示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時代를 맞은 對韓投資

日立造船株式會社
會長 永田 敬生

日立造船株式會社の 永田입니다.

本人은 (社)日本在外企業協會(日外協)의 會長도 맡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日外協의 會長의 立場에서 「새로운 時代를 맞은 對韓投資」라는 題目으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本論에 들어가기 前에 簡單히 日外協의 紹介를 하겠습니다.

日本에서는 70 年代에 들어서면서 對外投資가 增加하기 시작하여 72 年과 73 年에는 이것이 飛躍적으로 增大함으로써 소위 海外投資 붐이 일어났습니다.

労働集約的消費財産業을 中心으로 많은 日本企業이 앞을 다투면서 아시아 여러 나라들을 비롯한 海外에 進出했습니다만, 各 企業이 모두 經營메리트를 追求하기에 汲汲한 나머지 受容國의 經濟開發에 對한 貢獻이라는 海外投資의 經濟協力的인 側面에 소홀하였던 까닭에

受容國에서 커다란 反撥이 일어났으며, 또한 海外事業經營에 익숙치 못했던 탓으로 파트너와의 摩擦이나 勞動問題, 地域社會와의 調和 등에 있어서 混亂이 일어났고, 投資가 特定地域 및 產業에 集中되어 소위 오버·프레젠스(Over Presence)現象을 나타낸 것도 原因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事態에 對處하기 위해 經濟5團體에서는 政府의 要請을 받아 海外投資에 隨伴되는 摩擦의 解消 및 豫防을 圖謀하기 위한 方案을 檢討하여 1973 年에 海外投資에 있어서의 企業行動의 가이드라인을 綜合해서 「發展途上國에 對한 投資行動의 指針」을 提唱하였으며, 日經連에서도 1974 年에 當時 副會長이었던 本人이 參加해서 勞動問題에 焦點을 맞춰 現地從業員의 雇傭과 登用, 技能者와 技術者の 教育訓練의 充實, 勞使關係의 安定, 現地社會와의 融和 등의 問題를 中心으로 한 「在外企業의 勞動問題에 關한 提言」을 作成하여 日經連으로서 提唱하였습니다.

이러한 指針 및 提言의 實踐과 促進을 疎함과 同時에 나아가서는 海外投資와 關聯된 広範한 問題를 解決하기 위해 民間의 自主의 連帶組織으로서 經濟5團體와 關經連이 母體가 되어, 外務省, 大藏省, 通產省, 勞動省의 4個省의 贊同을 얻어서 1974 年에 日外協이 設立된 것입니다.

本協會는 經濟6團體의 經濟協力關係 委員長들이 副會長이 되고, 海外에 子會社를 갖고 있는 日本企業 4,000 個社 가운데 主要企業 500 個社가 會員이 되어서 運營되고 있습니다.

本協會의 事業은 海外投資에 關聯된 政策의 對政府 提言, “發展途上國에 對한 投資行動의 指針”의 實踐狀況의 調査, 各國에 있어서의 日本企業의 事業實態, 投資環境의 調査, 海外派遣社員의 事前研修, 海外

相談所の開設 등 個々の企業으로는 다루기 힘든課題에重點을 두고 있는바, 民間海外投資問題에 關한 經濟界의 타스크·포스 (Task Force)로서의 役割을 遂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本論에 들어 가겠습니다. 日韓關係는 懸案으로 남아 있던 借款問題가 解決되었고 또 今年初에는 中曾根首相의 訪韓이 實現되어 새로운 時代를 맞으려 하고 있습니다. 지난 1月の 中曾根首相 訪韓時의 日韓共同聲明에 있어서도 日韓兩國은 幅넓은 國民的基盤에 對對話와 交流을 推進하고 새로운 次元의 善隣友好關係의 確立에 努力하는 同時에 日本은 新經濟5個年計劃을 中心으로한 韓國의 國家發展에 對해 誠意를 가지고 經濟協力을 推進하며, 日本의 高度技術의 移轉 등 産業技術協力에 可能한 모든 努力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時代에 있어서의 對韓投資를 생각함에 있어, 日本의 對韓投資實績 (以下 大藏省統計에 依함)을 볼것 같으면 1981年末의 對韓投資의 累計額은 1,046 件, 12 億달러로, 日本의 海外投資 全體의 2.7 %를 차지하고 있어, 日本의 投資先으로서의 韓國의 地位는 美國, 인도네시아, 브라질, 호주, 英國, 香港, 파나마, 리베리아에 이어 第9位로 되어 있습니다.

日本의 貿易先으로서의 韓國의 地位는 1981 年度에 輸出은 57 億달러로 第4位, 輸入은 34 億달러로 第9位, 出超幅은 23 億달러로 第6位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韓國側의 統計 (1981 年末現在의 現存認可基準 = 累計에서 取消, 內國化, 減額을 除外한 것)를 통해서 본 韓國에 對한 投資國으로서의 日本의 地位는, 金額으로 6 億 4,500 萬달러, 構成比 51 % 件數로는 612 件, 73 %로 圧倒的인 シェア를 차지함으로써 第2位인 美國의 3 億 1,000 萬달러 (25 %), 135 件 (16 %)을 크게 앞지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業種別로 보면 日本의 投資額은 化學工業 및 電氣·電子가 各各 16 %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纖維, 衣服이 11 %, 機械 9 %, 金屬 7 %로 되어 있으며, 美國은 電氣·電子가 27 %로 가장 많고, 다음이 化學工業 21 %, 輸送用機器 13 %로 되어 있습니다.

日本의 1件當 平均投資額은 約 100萬달러로 美國의 300萬달러의 3分の1이며, 一般的으로 보아 日本의 投資는 美國에 比較해서 比較的 小規模로서 中小企業에 集中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日本의 對韓投資에 있어서 重要問題로 指摘되는 것은 79年以後 沈滯傾向을 보이고 있는 것과 同時에 日本系企業의 韓國으로 부터의 撤收가 最近 數年 동안 急速히 增加하고 있는 것이며, 特히 1980年 1年동안 만으로도 13件의 日本系企業이 馬山自由地域으로 부터 撤收하였고, 또 海外事業에 經驗이 많은 有力한 家電메이커를 비롯한 一流 企業들이 연달아 撤收한 事實입니다.

이들 日本系企業의 撤收實態나 背景은 不分明합니다만, 日外協에서는 여기에 注目하여 聽問調査를 實施하였읍니다. 그 結果, 撤收理由로서 다음과 같은 問題點이 指摘되었읍니다.

1. 經濟的 要因

- (1) 賃金水準의 上昇
- (2) 高金利와 資金調達의 困難
- (3) 國產原資材, 部品の 品質不安과 價格昂騰
- (4) 設備合理化(自動化)의 遲延에 따르는 國際競爭力의 低下

2. 政策的要因

- (1) 政策의 작은 變更과 節次의 複雜性
- (2) 企業實態를 無視한 輸出入政策의 適用
(輸出比率, 國產化率의 強化)
- (3) 租稅減免措置等 優待措置의 期限滿了 (8年間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70年代初에 進出한 企業은 70年代末에 期限이 滿了됨)

3. 内部要因 (進出企業自體의 問題)

- (1) F/S의 失敗 (製品選擇等)
- (2) 母會社의 業績惡化
- (3) 파트너의 選擇失敗

이러한 理由들 가운데서 가장 重要한 것은 韓國側의 政策이 急角度로 變更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民間投資라 할지라도 호스트·컨트리 (Host Country)의 政策을 尊重하며, 이에 協力하는 것이 最大의 前提가 됩니다. 그러나 合作事業의 存立을 困難케 만드는 急激한 政策變更은, 事業의 繼續性을 維持하고 (Going Concern), 擴大發展시킨다는 觀點에서 보았을 때 매우 遺憾스러운 일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한편 投資環境으로서의 韓國經濟는 70年代에 소위 「漢江의 奇蹟」이라 불리우는 高度成長을 實現했습니다. 72年부터 79년까지의 7年 동안에 實質GNP는 7.3兆원에서 14.8兆원으로 2倍 (年率 10%), 特히 同期間中の 輸出 (名目)은 16億달러에서 150億달러로 9.4倍 (年率 38%)나 되는 急激한 擴大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世界經濟는 두번에 걸친 石油波動을 거치면서 大量失業의 發生, 保護貿易主義의 抬頭, 國際金融不安의 拡散등 대단히 不安定한 狀況에 놓여 있으며, 이제까지와 같은 高度成長의 再現을 期待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狀況下에서 日韓兩國은 各各 自國의 安定成長을 實現시켜 가면서, 同時に 國際協調를 通해서 世界經濟의 活性化에 寄與해야 할 役割을 짊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國際協調와 關聯해서 本人은 去年의 日韓・韓日民間合同經濟委員會會議에서 日韓兩國의 造船業의 相互協力에 對해

① 그것을 成功시키기 위한 바운다리 (Boundary)가 굳혀지고 있다는 點, 즉 兩國間의 政府에 依한 産業政策에 對한 理解 혹은 合意가 있다는 것과,

② 技術協力を 하는 側과 받는 側 雙方에 똑같은 메리트가 있다는 것,

이라는 두가지 前提條件의 存在가 必要한바, 이러한 前提條件이 日韓兩國 사이에는 缺如되어 있으므로 적어도 民間의 立場으로서는 雙方에 메리트가 있도록 서로 努力할 必要가 있다는 것을 말씀 드렸었습니다.

그 結果, 去年 11 月에는 韓國에서 兩國業界首腦에 依한 第1回 會합이 있었고, 지난 2 月에는 日本에서 第2次 會합이 열려, 日韓兩國 造船業의 國際協調가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

日韓兩國의 經濟協力擴大를 위한 日本으로 부터의 投資擴大와 技術移轉問題가 指摘되고 있습니다만, 基本的인 考慮에 있어서 다음 두가지 點을 解決할 必要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① 韓國이 特定工業部門에서 지나치게 急激히 突出함으로써 日本側에게 漸進的인 産業調整의 餘地를 주지 않고 있는 點.

② 한편 日本側은 소위 부머랭現象을 憂慮하는 나머지 韓國에 對한 技術供與를 꺼려하고 있다는 現象과 意見의 相剋이 두나라에 存在하고 있다는 點이 그것입니다.

日韓兩國이 投資와 技術協力을 통해 國際分業의 메리트를 實現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業界 베이스의 對話의 채널 (Channel) 確立이 그 첫걸음이라는 것이 本人의 信念이며 提言인 것입니다.

이러한 觀點에서 앞으로 日韓兩國間의 經濟交流의 擴大 및 善隣友好關係의 確立을 위해 日韓・韓日經濟委員會가 遂行해야 할 役割은 한층 重要性을 더해가고 있음을 強調하면서 本人의 發言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感謝합니다.

第 10 回 韓日・日韓貿易擴大均衡委員會

合同會議報告

韓日貿易擴大均衡委員會

委員長 桂 鳳 赫

日韓貿易擴大均衡委員會

委員長 京 本 善 治

第 10 回 韓日・日韓貿易擴大均衡委員會 會議에 關해 報告드리겠습니다.

委員會는 1982 年 10 月 7 日 서울에서 開催되었습니다.

同會議에는 韓國側에서 桂鳳赫委員長을 비롯한 21 名이, 그리고 日本側은 京本善治 委員長 以下 14 名이 參席, 關稅 및 特惠關稅問題와 貿易障壁의 改善 등 韓日貿易의 增進問題를 議題로 하여 眞摯하게 協議했습니다.

우선 關稅問題에 對해 韓國側은 日本의 일련의 市場開放對策에 따른 關稅制度의 改善이 歐美의 關心品目과 自國의 國際貿易上 優位品目에만 偏重되었다고 指摘, 韓國의 對日輸出關心品目에 대한 關稅率을 日本의 平均關稅率 水準으로 引下하도록 要請했습니다.

이에 對해 日本側은 内外情勢와 日本側關稅引下의 背景等を 說明하고 이 要請을 日本政府에 傳達하고 이의 實現을 要望기로 했습니다.

韓國側은 또한 特惠關稅制度의 適用擴充等, 同制度의 改善을 要請했으며,

日本側은 이를 政府當局에 傳하기로 했습니다.

貿易障壁의 改善問題에 對하여는 (1)日本側은 日本政府가 推進中인 輸入檢査節次等의 改善狀況等에 關해 說明했습니다.

이에 對해 韓國側은 兩國間의 長期的으로 持續되고 있는 貿易不均衡을 보다 積極的으로 解決하겠다는 日本側姿勢의 未洽함을 指摘하고, 輸入쿼터制, 輸出自律規制, 行政指導 등 非關稅障壁의 改善과, 日本政府의 「市場開放問題苦情處理 推進本部」의 活動活性化 및 市場開放內容의 弘報를 要請했으며, 日本側은 이를 日本政府當局에 傳達하기로 하였습니다. (2) 한편 日本側은 駐韓外國企業에 對한 輸出入業 許容業種制限과 系列會社 持株率等의 緩和와 오파去來手數料에 對한 課稅制度의 改善을 계속 要請했습니다.

이에 對해 韓國側은 國內實情을 說明하고 日本側要望을 政府當局에 傳達하기로 했습니다.

(3)日本側은 또한 韓國의 輸入先多邊化品目の 指定에 따른 輸入制限의 緩和를 要望했으며, 韓國側은 同制度의 內容과 그 趣旨를 說明하고, 日本側要望을 政府當局에 傳하기로 했습니다.

끝으로 兩側은 最近의 國際環境과 兩國의 經濟情勢를 檢討한 結果, 兩國間의 經濟協力 및 貿易增進의 必要性이 過去 어느때보다도 切實하다는 認識을 같이하면서, 보다 높은 次元의 觀點에서 問題의 打開를 위해 相互 加一層努力할 것에 合意했습니다.

以上으로 經過報告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끝 —

第 8 回 韓日・日韓機械工業協力專門委員會 合同會議報告

韓日機械工業協力專門委員會

委員長 張 炳 贊

昨年 5 月 日本에서 열린 第 8 回 韓日・日韓機械工業協力專門委員會 合同會議와 그 後의 經過에 對하여 報告하겠습니다.

同會議는 1982 年 5 月 19 日부터 21 日까지 3 日間 日本의 伊豆下田에서 開催되었으며, 韓國側은 張炳贊委員長을 비롯하여 20 名の 委員이, 日本側은 浦川淸人委員長을 비롯하여 22 名の 委員이 各各 參席하여

- 1) 對韓投資調查團 派遣에 關하여
- 2) 韓國의 海外세일즈 活動協力에 關하여
- 3) 韓國機械類에 對한 展示協力에 關하여
- 4) 第 3 國의 韓日플랜트輸出協力에 關하여
- 5) 日本의 機械工業育成政策調査研究協力
- 6) 其 他

쪽의 議題로 討議하였읍니다.

먼저, 「對韓投資調查團 派遣」에 關하여는 韓日兩國間 政府베이스로 推進하고 있는 同調查團은 日本機械工業連合會를 中心으로 關聯團體 및 企業으로 構成하여 昨年 6 月 20 日부터 5 日間の 日程으로 實施키로 하였으며, 그後, 同調查團은 豫定대로 日本機械工業連合會의 馬場 靖文常勤副會長을 團長으로 17 名の 團員이 來韓하였고, 訪韓以後의 結果로써 機械・電子部品工業分野에 對한 兩國間 合作投資・技術提携를 經濟協力次元에서 努力해 나가며 그 斡旋窓口를 相互設置할 것과 一般中小企業에 對한 經營 및 技術指導要請에 應하기 爲하여 政府에 措置를 講究토록 提言하였읍니다.

다음으로 「韓國의 海外세일즈 活動協力」에 關하여는 韓國세일즈엔지니어의 日本派遣訓練에 對한 協力要請이 機械類의 兩國間貿易擴大 및 第3國에의 協力輸出에 매우 有益함을 相互認識하고 兩事務局이 協力を 爲한 具體的인 方案을 協議 推進키로 하였으며, 그後, 事務局間 協議를 거쳐 今年 開催될 第9回 合同會議에서 細部事項을 確定하여 實現키로 하였읍니다.

다음으로 「第3國에의 韓日플랜트協力輸出」에 關하여는 그 推進의 必要性을 確認하고 '82年 가을에 事前會議를 갖고 今年봄에 第1回 協議會를 갖기로 하였으며,

그後, '82年 11月事情에 依해 延期되고, 今年 3月에 韓國機械工業振興會와 日本機械輸出組合間에 事前協議會를 開催하였읍니다.

끝으로 「日本機械工業育成政策의 調查研究協助」는 過去 日本의 有成政策 및 民間企業의 經驗등의 調查研究에 對한 韓國側의 要請에 對하여 日本側은 日本機械工業連合會가 戰後부터 現在까지의 機械工業育成政策을 總整理하여 提供키로 約束하였고 또한 不況政策등 隨時變更되어 가는 政策資料를 繼續 提供키로 하고 그後 關聯資料를 相互交換하였으며,

第 7 回 合同會議時 合議된 바 있는 TQC 協力에 있어서는 日本의 TQC 專門家를 招請, 講演會를 갖고, 이어 TQC 實務責任者 13 名으로 構成된 TQC 視察團을 派日하였읍니다.

第 9 回 合同會議는 4 月 11 日부터 13 日까지 3 日間 濟州市에서 開催키로 決定하였읍니다.

以上으로 經過報告를 마치겠습니다.

韓日・日韓經濟協力長期構想研究委員會

第 3 回 合同會議 經過 報告

韓日經濟協力長期構想研究委員會

委員長 朴 大 振

韓日經濟協力長期構想研究委員會 委員長으로서 1982年12月7日과 8日, 이틀간에 걸쳐 東京에서 開催되었던 韓日・日韓經濟協力長期構想研究委員會 第3回合同會議의 經過 및 合意內容에 關해서 報告드리겠습니다.

本委員會에는 韓國側에서 本人外 12名, 日本側은 秋田委員長外 17名이 參席했습니다. 먼저 韓日雙方으로 부터 兩國經濟現況과 展望에 關한 基調報告가 있었습니다. 日本側으로 부터는 「'83年度 經濟展望」과 韓國側의 希望을 勸案하여 「素材産業의 構造不況과 그 對策」 및 「日本의 流通構造」에 關한 報告가 있었습니다. 日本의 構造不況産業對策에 對한 具體적인 說明은, 韓國側으로서는 今後的 産業政策 및 企業의 對應을 研究하는데 크게 參考가 되었습니다.

日本의 流通構造에 關해서도 具體적인 例를 곁들인 說明이 있었고, 이에 따라 活潑한 質問이 展開되었습니다.

또한 韓國側의 「韓國의 經濟展望」에 對한 報告는, 日本側으로서도

第7回 合同會議時 合議된 바 있는 TQC協力에 있어서는 日本의 TQC 專門家를 招請, 講演會를 갖고, 이어 TQC 實務責任者 13名으로 構成된 TQC 視察團을 派日하였읍니다.

第9回 合同會議는 4月 11日부터 13일까지 3日間 濟州市에서 開催키로 決定하였읍니다.

以上으로 經過報告를 마치겠습니다.

韓日・日韓經濟協力長期構想研究委員會

第 3 回 合同會議 經過 報告

韓日經濟協力長期構想研究委員會

委員長 朴 大 振

韓日經濟協力長期構想研究委員會 委員長으로서 1982年12月7日과 8日, 이들 간에 걸쳐 東京에서 開催되었던 韓日・日韓經濟協力長期構想研究委員會 第3回 合同會議의 經過 및 合意內容에 關해서 報告드리겠습니다.

本委員會에는 韓國側에서 本人外 12名, 日本側은 秋田委員長外 17名이 參席했습니다. 먼저 韓日雙方으로 부터 兩國經濟現況과 展望에 關한 基調報告가 있었습니다. 日本側으로 부터는 「'83年度 經濟展望」과 韓國側의 希望을 勘案하여 「素材産業의 構造不況과 그 對策」 및 「日本의 流通構造」에 關한 報告가 있었습니다. 日本의 構造不況産業對策에 對한 具體적인 說明은, 韓國側으로서는 今後의 産業政策 및 企業의 對應을 研究하는데 크게 參考가 되었습니다.

日本의 流通構造에 關해서도 具體적인 例를 곁들인 說明이 있었고, 이에 따라 活潑한 質問이 展開되었습니다.

또한 韓國側의 「韓國의 經濟展望」에 對한 報告는, 日本側으로서도

関心を 갖고 있는 對外債務의 展望에 焦點을 맞춘 것이어서, 日本側委員들로 부터 많은 質問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本委員會의 題에 関한 審議經過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太平洋經濟共同體構成을 위한 協力」에 関해서는, 日本側으로부터 第15回 PBEC 名古屋總會의 概要에 對한 報告가 있었고, 이에 對해 韓國側은 本委員會의 次期合同會議時 韓國側의 對處狀況을 報告하겠다는 意向을 表明했습니다.

둘째, 「兩國産業의 分業體制可能性」에 関해서 韓國側으로부터 基本的인 構想에 對한 提案이 있습니다. 그 內容을 말씀드리자면,

韓日間の 分業은,

- ① 經濟的인 效率이 期待되고,
- ② 國家의 威信이 維持되며,
- ③ 雙方의 國內政治의 인 面에서도 適用이 可能한 것이어야 하고,
- ④ 또한 韓日分業을 決定짓는 比較優位性基準은 靜態的인 것이 아니라 動態的으로 把握되어야 한다.

는 것인바, 日本側도 대단히 彈力的이며 建設的인 提案이라고 評價했습니다. 雙方은 이러한 構想을 基本으로 今後의 推進方法에 関한 具體的인 協議를 進行시켜 나가기로 合意했습니다.

세째, 「第3國에서의 資源共同開發協力」에 関해서는, 日本側으로부터 第2回 合同會議 以後의 具體的인 進展狀況報告와 아울러, 특히 雙方의 專門家에 의한 세미나 開催等 具體的으로 活動可能한 分野의 提示가 있었습니다. 이 問題와 關聯해서 雙方은 이미 設置되어 있는 窓口 즉 韓國側은 韓日經濟協會 日本側은 經團連을 通해서 具體化 方案을 協議키

로 合意했습니다. 韓國側으로 부터는 石炭을 中心으로한 韓國의 海外 資源開發現況에 對한 說明이 있었고, 이 分野에 있어서 兩國의 協力이 重要하다는 點을 強調했습니다.

네째, 「複合技術의 共同開發」에 關해서는 韓國側이 그 具體的인 方案으로 「産業・科學技術關聯 韓日・日韓機械翻譯시스템開發」에 關한 提案을 했고, 그 具體的인 方法은 兩國의 擔當委員이 協議하기로 合意했습니다.

그후 日本側은 本件을 富士通株式會社와 相議한 結果, 同社가 同시스템開發構想에 関心이 있다는 意向을 表明함으로써, 昨年 12 月 以後 富士通株式會社와 秋田委員長을 비롯한 日本側委員會委員間에 몇 차례 實行方法이 檢討되었습니다. 그 結果 今年 3 月 7 日과 8 日 兩日間 日本에서 兩國專門家에 의한 첫번째의 豫備的인 協議가 이루어졌습니다. 同協議는 始終 隔意없이 眞摯하게 進行되었으며, 同시스템開發은 그야말로 複合技術分野에 있어서의 韓日間의 技術協力 프로젝트로, 그 意義는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의 實現을 위해 힘써주신 秋田委員長 以下 日本側委員 여러분께 深甚한 謝意를 表하는 바 입니다.

또한 韓國側으로 부터 委員長인 本人이 本委員會의 題마로서 「2000 年代의 韓日經濟協力の 方向」 즉 2000 年代를 向해 韓日兩國간의 經濟協力이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이냐의 問題가 아니라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이냐, 다시 말해 SEIN이 아니라 SOLLEN의 問題를 講究하자고 提案을 하였던바, 協議結果 새로운 題마로 採擇기로 合意되었습니다. 그

基本骨格의 設定 및 具體化에 關해서는 雙方이 研究한뒤 次期合同會議에서
檢討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次期合同會議는 今年 9 月 서울에서 開催할 豫定입니다.

以上으로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大端히 感謝합니다.

韓日・日韓中堅中小企業協力專門委員會 合 同 會 議 報 告

韓日中堅中小企業協力專門委員會

委員長 韓 在 烈

韓日・日韓中堅中小企業協力專門委員會의 活動狀況에 對하여 報告드리
겠습니다.

當委員會는 第13回韓日・日韓民間合同經濟委員會에서 韓國側의 設置
提議에 따라 合意되어 1982.3.10 能村龍太郎團長等 12名의 環境調
査團이 訪韓하여 本委員會設置의 必要性을 調査確認하고 第14回合同
委員會會議에서 當專門委員會 設置에 對한 推進現況이 報告된바 있었
읍니다.

이에따라 本專門委員會의 發足과 事業計劃의 推進을 具體化하기 爲
하여 지난 1983.3.9 日本 東京에서, 韓國側 13名과 日本側 15名의
委員이 모여 第1回合同會議를 開催하였습니다.

이合同會議에서는 먼저 合同會議運營要領을 討議採擇하고 韓日兩國中
堅中小企業間の 相互繁榮을 爲하여 兩側은 事業推進上の 窓口를 開設

키로 合意하였으며, 特히 韓國의 中小企業에 對한 技術 및 經營上의 協力・合作投資 및 相互訪問等 協力增進을 爲한 共同의 테-마를 決定하고, 每年一回씩 場所를 交替해가며 會議을 開催할것에 合議하였읍니다.

따라서 事業推進을 爲한 窓口로서는, 韓國側은 中小企業協同組合中央會가, 日本側은 日韓經濟協會가 各々擔當하기로 하였읍니다.

同合同會議에서 協議된 主要事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韓日中堅中小企業間의 交流增進方案으로 購買調查團의 相互交換
2. 韓日中小企業間의 合作投資・技術協力斡旋
3. 各種展示會에 對한 參與 및 參觀 斡旋
4. 中小企業者間의 情報相互提供 및 弘報
5. 技術 및 經營訓練을 爲한 研修生 交換派遣

以上の 協議事項에 對하여 日本側은 誠意있게 協助할것에 合意함으로써, 1981年以來의 懸案이었던 問題點이 거의 解決하게 되었읍니다.

그리고 第2回合同會議는 1982年2月以前에 韓國에서 開催키로 하였읍니다.

저희 韓日・日韓中堅中小企業協力專門委員會가 앞으로 더욱 알찬 結實을 맺기爲하여, 韓日兩國의 構成機關은 勿論, 日本側의 主要 中小企業關聯機關으로부터 積極的인 協助가 있기를 期待하고 있습니다.

以上으로 韓日・日韓中堅中小企業協力專門委員會 第1回合同會議의 結果報告를 마칩니다.

感謝합니다.

産業技術協力（韓國側 提案）

三星電子工業 ㈱
社長 鄭 在 恩

産業技術에 對한 兩國間の 協力問題는 兩國의 企業間에 지금까지 많은 論議가 되어 왔으며, 본 合同委員會와 專門委員會에서도 여러번 舉論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今年初 兩國 頂上會談의 公同聲明에서도 이에 對한 것이 重要な 比重을 차지할 만큼 兩國間の 큰 關心事로 되어 있습니다.

周知하시는 바와 같이 隣接國으로서 韓國과 日本은 有史以來 文化的 交流에서부터 始作하여 政治, 經濟等 많은 分野에서 깊은 關係를 維持해 왔으며, 特히 電子工業을 비롯한 製鐵, 自動車等 産業分野에서는 日本이 미치는 技術의 影響力이 至大하여 韓國이 그동안 生活樣式과 思考方式이 비슷한 日本으로부터 直接的으로 間接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아온 것이 事實입니다.

그러나 近來에 들어 日本이 技術協力에 對하여 높은 保護障壁을 쌓아가고 있는데다 韓國을 國際市場에서의 競爭者로 認識하여, 技術을 주면 損害를 보게 된다는 부머랭現象을 憂慮하여 必要以上の 警戒心を 強化함으로써 日本이 韓國內 大部分의 企業들로부터 技術移轉에 가장 인색한 나라, 技術障壁이 가장 높은 나라로 認識되고 있는 것은 참

으로 遺憾스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韓日兩國은 地理的으로 가깝다는 것을 利點으로만 살려 結局은 國際分業體制를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日本으로부터 技術移轉이 바람직스러운 것입니다. 短期的인 面에서만 考慮를 하여 技術移轉을 日本이 忌避할 때 韓國으로서는 다른 나라에 가서라도 이것을 가져오게 되며 그 結果는 相互補完的이라기 보다 相互競爭的인 産業構造가 생기며 이러한 現象은 몇가지 分野에서 그 實例가 생기고 있습니다.

日本の 技術移轉忌避現象은 어느 分野에서나 마찬가지이겠지만, 제가 關係하고 있는 電子工業의 境遇를 보면,

첫째, 半導體, 컴퓨터等 核心技術은 아예 舉論도 못하게 할 뿐 아니라 一般화된 量産技術도 移轉을 꺼리고 있는 實情이며,

둘째, 선풍 技術을 주더라도 技術週期上限世代가 지난 남은 技術을 줄뿐 아니라 그나마 까다로운 制限條件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直接的으로 販賣地域을 制限하는 것이나, 輸出物量에 對해 內需보다 높은 로얄티를 要求하는 것들이 그 例인데, 지난 第13回 合同會議에서도 舉論된 VTR의 境遇만 하더라도 販賣地域을 韓國內로만 制限하고 輸出은 明確한 時限도 없이 2年뒤에 다시 協議한다는 制限條件때문에 아직도 解決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을 그 具體的 事例로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事例는 技術先進國으로서의 對外的인 立場때문에 表面上으로는 協力하는척 하면서 實際로는 拒否하는 것이나 다름바 없는 것입니다.

세째, 美國의 境遇 技術移轉에 好意的일 뿐 아니라, 일단 技術協力契

約이 締結되면, 完全한 技術移轉을 目標로 包括적으로 가르쳐 주는 데 반해, 日本은 技術協力時 對象技術을 限定的으로 指定하여 核心 Know-how를 좀처럼 公開하지 않습니다.

以上은 電子工業의 境遇를 重點적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만, 다른分野에서도 이러한 例를 들 수 있습니다.

한 樂器會社는 電子樂器部品에 對한 技術提携를 하기 위해 日本의 한 會社와 接觸을 하고 있으나 別進展이 없으며 配電機器, 自動車, 冷凍機, 船舶등의 部品製作이나 화인 세라믹스, 로봇等의 分野에서도 여러 件이 있습니다.

이러한 技術移轉에 對한 日本의 否定的인 態度를 改善해 나가자는 것이 그동안 本委員會에서 많이 舉論되었지만 무엇보다도 重要的 것은 根本的인 姿勢의 變換이 必要하다는 것입니다.

本會議席上에서는 技術移轉이 必要하다고 이야기하면서, 實際는 아무런 進捗도 없고, 또 企業次元에서는 이러한 雰圍氣를 제대로 모르고 있어서 名分만을 위한 卓上空論으로 끝나는 감이 없지 않습니다.

今年初의 兩國頂上會談을 契機로 本委員會活動도 本然의 姿勢로 돌아가 積極的이고도 實踐的인 活動이 이루어짐으로써 兩國間의 善隣友好增進의 일익을 擔當할 수 있도록 모든 努力을 傾注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事項들이 兩國企業들 間에 제대로 認識되어 그 結實을 맺을 수 있도록 앞장서서 이끌어 나가는 것이 바로 本委員會의 할 일이라고 생각하며, 그러한 課題를 解決하기 위한 具體的 方案으로서 本人은 日本代表 여러분께 다음과 같은 4가지 事項을 提

案합니다.

첫째, 第13回會議에서 合意된 尖端技術移轉을 위해 具體的이고도 實質的인 役割을 遂行할 專門小委員會를 早速히 構成하여 定期的으로 運營해 나가야 할 것이며,

둘째, 韓國의 技術者, 機能工의 日本內訓練이 여러분의 協調로 많이 進行되고 있으나 分野에 따라서는 日本側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境遇가 있으므로 이러한 問題가 생길때에는 日本側의 本委員會에서 이를 積極 周旋해 주시기를 要請하고,

셋째, 必要한 分野의 日本 專門家를 韓國에 派遣하여 韓國의 技術者, 機能工 養成과 現場指導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주며,

넷째, 兩國의 企業間에 技術協力에 對한 協商推進에 問題가 있을때 또는 韓國의 企業이 日本內에서 技術協力相對를 찾지 못할 때 日本側 委員會가 影響력을 끼치던지 斡旋을 해줄것을 要請합니다.

以上과 같은 提案은 決코 韓國만 利를 取하고 日本이 害를 입으라는 利己의 主張이 아니라, 技術協력을 通하여 相互間의 長點을 키워 나감으로써 國際分業의 利點을 살리자는 共存共榮의 要請인 것입니다.

특히 이번 機會를 빌어 저희의 特別한 關心事인 技能人力の 交流擴大에 對한 것을 좀더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지금까지 兩國間에 많은 分野에서 有形無形의 協力이 있었고 政治, 經濟界등 各界指導의 人士들의 相互交流는 많았지만 未來의 指導者가 될 兩國 젊은이들간의 接觸은 상당히 未洽하였다고 봅니다. 結果的으로 우리 既成世代들보다 젊은이들 사이에 더 많은 偏見과 誤解가 있을 수 있음은 저간의 經過를 보면 알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最近 더욱 다져진 80年代 韓日兩國간의 새로운 協力時代 開幕을 위해 兩國間 最初의 指導的 모임인 이자리에서 兩國 젊은이들의 交流擴大를 위한 具體적인 論議가 始作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韓國의 젊은技能工들이 日本의 企業體 現場이나 民間研修機關에서 日本의 젊은技能人들과 함께 技能을 닦아나갈 수 있는 機會가 早速히 이루어지도록 日本側의 積極적인 理解와 協調를 當부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것의 具體적인 實現은 既存의 機械工業協力專門委員會와 中堅·中小企業協力專門委員會等を 積極적으로 活用하고 좀더 長期的이고 各企業 하나하나로서 解決하기 힘든 것들은 本委員會에서 韓日兩國의 友好關係를 考慮 반드시 좋은 結論이 나오도록 協力해 줄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간 日本은 國際分業化라든지, 貿易에 있어서 너무 自國의 利益을 위한 保護障壁을 높이 쌓아 先進國의 反撥을 사고 있으며, 日本內部에서도 이에 對한 輿論이 높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의 日本은 自他가 公認하는 先進國이며, 技術大國 이니만치 그러한 힘을 日本만을 위해 使用치 마시고 이를 必要로 하는 나라에도 果敢히 公開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感謝합니다.

産業技術協力提案에 對한 答辯(1)

(社)經濟團體連合會

常務理事 三好正也

조금전의 韓國側 提案에 對해 答辯하기 前에 3,4 가지 點에 關해 COMMENT 하겠읍니다.

먼저 韓國에 對한 日本의 技術供與는 그 數가 相當하며, 오랜 기간 동안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는 點을 再認識 해주십사 하는 點입니다. 韓國政府의 發表에 의할것 같으면 1962年부터 1981년까지 日本의 技術供與件數는 1,266件으로 이것은 韓國이 外國에서 導入한 總件數의 56.2%에 該當한다고 합니다.

件數로 보아서 그 절반 以上이 日本에서 들어왔다는 사실, 이는 韓國의 經濟成長 및 輸出擴大에 대단히 큰 寄與를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 點에 대해 먼저 다시 한번 再評價 해주셨으면 합니다.

두번째로 提案說明 가운데 技術移轉時 日本企業들이 販賣地域에 制限을 가한다든가 그밖에도 여러 가지 條件을 붙이는 등 대단히 NEGATIVE한 態度를 取하며, 協力 그 自體에 否定的인 姿勢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읍니다만, 이는 個個企業의 營業上 交渉問題이기 때문에, 具體적인 CASE에 있어서는 指摘하신 바와 같은 CASE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대단히 良好한 關係를 樹立했고 더더욱 協力關係를 前進시켜가는 事例도 대단히 많다고 하는 點을 역시 이번 機會에 認識 해주셨으면 합니다. 따라서 앞서 配付받았던 資料에는, 日本이 技術移轉에 가장 인색한 나라라는 評價가 있었읍니다만, 우리들로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이며, 가능하면 訂

正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번째로 이것은 日本의 政策에 관련된 問題입니다만, 日本의 技術 供與 및 導入은 모두 自由化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日本이 技術協力에 關係 그 保護障壁이 높다는 표현이 있었음니다만, 이것이 政府의 政策, 産業界도 포함한 나라 全體의 政策인 것처럼 理解하셔서 保護障壁을 設置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신다면 그것은 誤解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마도 이 表現은 個個의 企業의 態度에 關係해서 말씀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에 關係해서는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되풀이 하지 않겠습니다. 企業에 따라서는 그런 CASE가 있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技術協力 特別 企業 對 企業의 技術協力契約은 새삼 말씀드릴 必要도 없이 企業經營에 있어 相互間에 重要한 事項입니다. 따라서 企業 및 經營者 相互間의 信賴關係가 무엇보다도 重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한 그 前提가 되는 環境整備等の 條件이 갖추어져야 비로소 技術移轉이 圓滑히 이루어진다는 點, 이 點에 關係해서는 어제 基調演說에서 赤澤씨가 상세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想起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配付받은 資料의 4page에 4個項目의 提案이 있습니다만 이에 關係 意見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項目인 尖端技術移轉의 促進을 위해 專門小委員會를 設置해야 한다는 提案입니다만, 이에 關한 本人의 見解는 아직 個人的인 것으로 日本代表團이 協議해서 定하지 않았으므로 다른 意見을 가진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現 段階로서 尖端技術移轉을 爲한 委員會의 設置가 有益한지는 대단히 의아스럽게 생각되며, 따라서 그 이

前에 해야할 일이 더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야할 일은 어떤 일인가, 相互間에 關心이 있는, 技術交流를 深化시키고자 하는分野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點을 相互 분명히 해둘 必要가 있을 것입니다. 이에 關聯해서 이러한分野에 關한 심포지움 또는 심포지움과 같은 大規模가 아닌 세미나 같은 것을 열어, 兩國의 專門家가 왔다갔다하면서 어느 程度 準備作業을 한다음 專門小委員會 같은 것의 必要性 여부에 對해 다시 檢討해 보는 편이 現實的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尖端技術이라 하더라도 그 범위가 넓고 깊으며 또한 複雜한 것으로, 尖端技術交流라고 하는 것은 마치 文化交流에 關해 論하는 것과 같지 않나 생각합니다. 따라서 小數의 專門家들이 모여 처음부터 委員會를 設立하더라도 어느 程度 成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文化人이 10餘名 모여서 兩國文化交流를 論한다고해서 兩國間 文化交流가 과연 進展되느냐하면 그런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文化交流는 그 幅이 넓기 때문에, 常數效果가 있는 PROJECT를 추진함으로써 文化交流가 進展된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技術交流도 먼저 SYMPOSIUM 같은 것을 해보아서 어느分野에 어느 程度로 과급시킬 것인가, 그러한 點을 確認한 다음, 必要하다면 委員會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물론 委員會를 만들 경우는, 韓日・日韓經濟委員會가 그 主體가 되기 때문에 그 各各의 委員會에 과연 어느 程度 人的 CONTACT의 蓄積이 생겼는가 혹은 情報交流의 實績이 생겼는가, 나아가서는 交流를 위한 情報交換의 KNOW-HOW가 開發되었는가라는 點을 確認한 다음에 비로소 어떠한 사람들이 모여 그러한 GROUP을 만들어야 하는지

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研修生을 받아들이는 問題, 세번째는 日本이 韓國에 專門家を 派遣하는 問題로서, 특히 두번째의 研修生을 받아들이는 問題에 關係, 分野에 따라서는 日本側이 研修生을 받아들이기를 拒否하는 CASE가 있으므로, 그런 경우에는 즉 問題가 發生했을 경우에는 日本側 委員會가 積極적으로 그것을 斡旋하고 解決해주지 않겠느냐라고 提案하셨습니다. 研修生을 받아들이는 問題, 그리고 專門家派遣問題에 關係해서는 나중에 永田會長 및 다른 분으로부터도 COMMENT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이미 日本에는 官民兩레벨에 있어 各種 채널과 시스템이 있으며, 그러한 채널을 活用해서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채널을 더욱 活用하도록 兩國委員會가 積極적으로 關係機關, 政府機關 또는 民間組織에 권장할 必要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므로, 이 機會에 이를 強調하며, 共同聲明에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日本側이 研修生을 받아들이기를 拒否하는 경우란 것은, 이것은 무슨 理由로 拒否했는지를 모르면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것이므로, 이것은 CASE BY CASE로 關係當局과 協議한다는 점도 積極적인 권장속에 포함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日本에는 周知하시는 바와같이 韓國과 약간 달리, 強力한 勞動組合組織이 있으므로 그것이 하나의 理由인 경우가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여러가지 理由가 있겠으나만은 예컨대 그러한 경우에도 韓國과 다른 日本의 現實에 對해서 잘 理解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번째는 技術移轉을 爲한 機關을 設置해 달라 혹은 日本側委員會가 그 斡旋을 해주지 않겠느냐 즉 設置해 주지 않겠느냐는 提案이

있었읍니다만, 個個企業의 技術斡旋이라는 것은 그렇게 簡單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마치 貿易分野에서 日本은 官民이 다함께 대대적으로 輸入促進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건을 가지고가면 바로 사줄것이라 생각해서, 通産省이라든가 JETRO 라든가 심지어는 經團連에도 그런 pamphlet 이 送付되어 온다든가 그러한 사람들이 訪問해 오는 경우가 있읍니다만, 여러분께서도 이미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장사라는것이 그런 簡單한 窓口로만 가져가면 곧 바로 解決되는 것은 아닙니다. 역시 基本은 關係企業 對 企業間의 이야기로써 委員會 혹은 委員會와 關係있는 團體라 하더라도, 그 窓口가 되는 곳은 어디까지나 側面으로부터의 支援으로서 實際로 YES, NO는 關係企業이 決定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斡旋窓口란 것은 裁判所처럼 雙方으로부터 意見を 들은 다음, 너는 나쁘고 너는 옳다 따라서 結論은 이러이러하니 따라야 한다는 이런 式이 될것으로 期待하시면 곤란합니다.

斡旋窓口란 우체국의 우체통과 같이 이쪽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상대방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것으로 이런 우체통과 같은 역할의 窓口라면 우선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체통이상의 것을 하라고 하신다면, 기껏 結婚相談所 程度가 되겠읍니다. 結婚相談所란 곳은 不特定多數의 男女가 이쪽에 있고, 또 不特定多數의 男女가 한쪽에 있읍니다.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履歷書라든가 寫眞을 交換하는 程度, 단지 그때 당신은 이러한 性格이니까 이러한 性格의 사람과 맞을것 같다는 정도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ADVICE 정도는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당신은 이 사람과 結婚해야 한다고는 절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日本政府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通産省의 힘이 대단히 세다고 흔히들 얘기합니다만, 그 通産省이라도 特定の 企業에 對하여 韓國의 某 企業이 이러이러한 技術을 願하고 있으니 供與해라고 命令할 수는 없으며 하물며 經團連이나 商工會議所等の 經濟團體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따라서 窓口란 것은 側面支援이 그 役割이란 點을 納得해주신다면 우선 提案하신 바와 같이 2개월 혹은 3개월정도 걸려서 檢討해서 日本側에도 窓口設置가 可能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 趣旨를 共同聲明에 넣어도 무방하리라 생각합니다.

戰後 日本이 歐美諸國을 CATCH-UP 하는 過程에서 여러가지 問題가 생겼습니다만, 오늘 아침 얘기가 있었던 問題들은 대단히 유사한 部分과 다른 部分이 있습니다. 비슷한 部分이라고 말씀드린것은 CATCH-UP 의 過程에서 日本도 美國의 企業 혹은 유럽의 企業으로부터 技術을 사는 경우 地域的인 制限條項을 강요 받기도 했고, 그밖에 여러가지 制限的인 條項을 감수한채 技術을 導入한 經驗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美國企業의 경우 이쪽에서 사려가더라도 내놓지 않는 곳이 꽤 있습니다. 다만 日本은 꽤 自主技術開發 實績이 있기 때문에 살 수 없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技術을 開發해 온 것입니다. 現實態는 역시 이 쪽에서 必要로 하고 있지만 살 수 없는 技術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상당 分野까지 日本은 따라 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可能했던 理由는 赤澤씨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먼저 自主技術開發努力을 경주했다는 點입니다.

두번째로는, 역시 歐美의 企業 및 그밖의 外國企業과 企業레벨 혹은 業界레벨에서 信賴關係를 構築해 왔고 그 信賴關係가 있었기 때문에 技術이 흘러들어 왔다는 點입니다.

세번째는 마지막으로 역시 政府가 技術導入을 圓滑히 하기 위해 갖가지 環境整備政策을 取했다는 點으로 그 中에서 가장 重要的 것은 역시 自由化政策입니다. 自由化政策이란, 企業間的 對話 交渉은 市場機能에 一任한다는 것입니다. 貿易의 自由化, 投資의 自由化 그리고 技術交流의 自由化를 政府가 積極적으로 取해서 대충 1960年代에 거의 完了되었습니다. 그 結果 技術의 흐름이 더욱 두터워졌으며 擴大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할 수 있겠습니다.

以上으로 所感を 包含해서 저의 答辯을 마치겠습니다.

産業技術協力提案에 對한 答辯(2)

日 立 造 船 機

取締役會長 永 田 敬 生

昨年 1 月 前日本首相 鈴木씨가 아세안 諸國을 訪問했습니다. 그 때 소위 “鈴木독트린”을 宣言했습니다만 그것은 아세안諸國의 農業開發 에너지開發 또는 中小企業의 育成等 여러分野였으나, 그가운데서도 특히 아세안諸國의 人材養成을 提唱했고 이에 呼應해서 제일먼저 말레이시아의 마아딜首相이 LOOK EAST POLICY를 주창했습니다. 이에 따라 말레이시아가 1,000 名の 青年技能工의 教育訓練을 要請해 왔고 日本政府도 이를 받아들였으며, 이미 第 1 次 135 名이 日本에서 研修를 받고 있습니다.

第 2 次 238 名이 곧 日本에 오게 되어 있으며, 第 3 次 및 第 4 次로 約 200 名 單位의 研修生을 日本이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政府베이스의 人材養成協力으로 特別豫算에 依해 實施되는 것으로, 약 6 個月間 各種 教育機關에서 ORIENTATION教育으로서 日本語라든지 基礎技術을 習得하고 그후 3 個月내지 6 個月은 民間企業이 OJT를 實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費用 負擔問題는 政府에서 3/4 나머지 1/4 은 民間이 負擔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民間에서 말하는 講習費用이라든지 宿舍費用等を 포함하면 政府와 民間이 50:50 으로 그 費用을 負擔하고 있는 이러한 方式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技術移轉問題가 韓國의 工業開發에 매우 重要な 問

題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그와함께 企業에 對해 技術者 혹은 技能工의 教育訓練을 맡아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希望이 표시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저로서는 이것이 대단히 適切한 方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方法으로 이것을 實現시키느냐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政府베이스로 예컨대 40 億달러 經濟協力의 一環으로 하는 말레이시아 方式이 있을수가 있겠으며, 그렇지 않고 民間이 PROJECT의 受注를 한다면, 또 PROJECT의 受注가 없더라도 研修協力이라는 形態로 契約을 締結해서 技術者나 技能工의 教育訓練을 擔當한다는 그러한 一般的인 方式도 생각할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現在 實際로 實施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合作事業을 만들게 되면 반드시 그 合作事業을 土台로 하고, 仲介機關으로 해서 日本에 研修生들을 받아들여 日本에서 教育을 實施할수도 있을 것이며, 또 日本에서 指導者를 보내어 合作事業體内部에서 OJT訓練을 하는 方法도 있겠고, 또는 日本에서 技術者를 派遣해서 共同設計를 한다면지 혹은 中間管理者 教育을 한다면지 이런것은 民間베이스에서 이루어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政府의 一般豫算으로, 말레이시아方式대로 3/4 을 내어서 받아들이는 方式은 從來와 같이 一定한 數字까지는 適用될 展望입니다만, 지금 日本은 한창 行財政改革을 實施中이며, 이로 인한 歳出削減으로 이제까지의 實績以上으로 받아드리기는 어려운 展望입니다. 그래서 現在 새로이 勞働省과 民間이 合作해서 이 問題을 解決코자 하고 있습니다. 즉 勞働省이 現在 갖고있는 千葉縣의 中央技能開發센타를 擴充해서 研修生의 教育과 基礎技術訓練을 이곳에서 實施키로 하고, 宿舍建設 및 研修

센터의 運營等을 民間團體가 窓口가 되어 擔當키로 하여 昨年 12 月 海外職業訓練協會가 發足되었습니다.

이것은 民間人이 有償으로 教育을 받는 機關입니다. 지금 宿舍가 建設中에 있으며 約 250 名을 受容할수 있는 規模입니다. 來年 4 月 1 日 開校豫定으로서, 이것은 民間이 PLANT 輸出等과 關聯해서 혹은 그와는 關係없이 技術協力關係로서 契約에 의해서 技能工의 實務教育訓練을 擔當하는것이 勞働省의 센터와 저희들 民間의 職業訓練協會가 되는 것입니다. 대충 이러합니다만 韓國에 이것이 設立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現在 勞働省은 全世界에 約 36 個處의 職業訓練센터를 만들었습니다. 1 個센터에는 勞働省의 擔當官이 約 5 ~ 6 名 정도로 TEAM을 이루어 1 年以上 長期滞在를 하며 班長級의 人力養成에 注力하고 있다는 事實을 參考的으로 添言하며 저의 答辯을 마치겠습니다.

産業技術協力提案에 對한 答辯(3)

(財) KDD ENGINEERING &
CONSULTING

常務理事 河 井 雅

우리들은 事業活動의 하나로서 이전부터 韓國電子工業振興會(EIAK)의 協力을 얻어서 OFFICE AUTOMATION과 電氣通信을 主題로 하는 SEMINAR를 5월에 서울에서 開催키로하고 현재 그 準備를 推進中에 있습니다.

OFFICE AUTOMATION 및 이것을 有機的으로 結合시키는 最新電氣通信 SYSTEM 그리고 그 素材가 되는 電子工業部品 LSI 또는 CPU 등의 技術革新分野에 있어서 日韓兩國關係 技術者間에 情報를 交換하는 것은, 앞으로 兩國 電子技術發展과 그 交流에 크게 寄與하리라 確信합니다.

多幸히 日本側으로서도 各分野의 賛同을 얻어서 大學教授, 國際電信電話(外)에 主要製造會社로부터 8名이 發表者로 參加하게 되어 있습니다. 韓國側으로부터도 몇명의 發表者가 있을것입니다.

現在 具體的으로 그 準備가 推進되고 있으며 곧 韓國側에서도 EIAK로부터 正式發表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本件은 이 合同會議와는 別個로 計劃된 것입니다만 지금 議題로 되어있는 日本의 對韓技術協力の 一環으로서 특히 尖端技術移轉의 一例가 될것 같아서 準備段階입니다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아침 꽤 신랄한 指摘이 있었읍니다만, 우리의 이 試圖가 技術
移轉에 조금이라도 열매를 맺을수 있기를 염원하는 바입니다.

韓日貿易增進에關한 提案(韓國側)

國 際 商 事 協
社 長 鄭 昇 翊

오늘 韓·日兩國 全委員들이 參席한 가운데 韓日貿易增進策에 對하여 말씀드릴 수 있는 機會를 갖게된 것을 매우 榮光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도 周知하시는 바와 같이 世界經濟가 沈滯局面을 持續함에 따라 各國마다 保護貿易主義가 蔓延되고 있고, 特히 先進諸國間의 貿易摩擦이 深刻해지는等 世界交易 環境은 그 어느때보다 惡化되고 있음에도 不拘하고 韓日兩國의 交易量은 兩國政府 및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을 비롯한 兩國經濟人의 꾸준한 努力에 힘입어 着實히 成長하여 '81年은 98億\$에 達하였고, 昨年에는 世界的인 景氣沈滯의 影響으로 多少減少되었으나, 86億\$에 이르게으로써 日本은 韓國의 第2의 輸出市場, 韓國 또한 日本의 第4位 輸出市場으로 浮上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兩國間의 交易擴大와 함께 兩國間에는 적지 않은 貿易不均衡狀態가 여전히 持續하고 있는 實情입니다. 1965年 國交正常化以來 '82年末 現在까지 對日貿易赤字의 累積額이 240億\$에 達하고 있으며, '82年度 對日貿易赤字의 우리나라全體 貿易赤字에 對한 比率도 무려 76% 水準을 占하고 있는 實情입니다.

韓日兩國의 貿易不均衡은 兩國輸出産業 構造上 不可避한 點이 어느 程度있다고는 判斷되나, 兩國의 努力여하에 따라서는 相當히 改善될 餘地가 많다고 思料되어 이에 對한 改善方向과 韓國側要望事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日本의 最近市場開放政策에 對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日本政府는 貿易黒字에 따른 다른 外國과의 貿易摩擦을 解消하기 위한 方案의 一環으로 昨年 1月30日輸入節次 簡素化措置에 主眼點을 둔 第1次市場 開放對策에 이어 5月28日에는 關稅의 撤廢 및 引下를 內容으로 한 第2次措置, 그리고 今年 1月에는 該間の 措置들을 좀 더 擴大시킨 第3次 市場開放對策을 發表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一連의 措置는 硬直된 貿易摩擦을 보다 緩化함으로써 世界交易環境의 活性化를 圖謀하려는 日本政府의 時宜適切하고도 훌륭한 決斷이라고 思料되나 韓日兩國間에 持續되어온 貿易不均衡狀態의 改善을 期待하기에는 多少 미흡한 點이 있다고 思料되어 차제에 이와 關聯한 問題點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輸入節次簡素化等 一連의 改善措置는 그 內容이 抽象的인 면이 없지 않아 具體的인 內容을 充分히 理解하기가 어려울뿐 아니라, 이미 改善措置가 完了된 部門 역시 不分明한 點이 많아 實效성이 問題視되고 있습니다.

둘째, 第2次 및 第3次市場 開放政策의 最大 焦點인 關稅의 撤廢나 引下의 對象이 된 製品 大部分이 特惠稅率該當品目이고, 또한 歐美先進諸國中心이었기 때문에 結果적으로 歐美先進諸國들의 輸出競爭力이 提高된 반면, 韓國과 같은 開途國들에게 주어졌던 GSP 受惠效果는 오히려

러 相對的으로 弱化되어 그間 GSP 의 메리트를 살려 輸出해온 開
途國에게는 오히려 不利해졌다는 點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째, 輸入制限의 緩化(과인애플 통조림)나 輸入擴大(담배 등)對
象品目等이 大部分 歐美 先進諸國爲主의 品目이었다는 느낌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으며,

네째, 流通機構, 비즈니스慣行等を 改善하기 爲하여 外國關係者의 意
見을 充分히 參考하였다고 하나, 實際로는 美國下院歲入委員會의 貿易
小委員會意見 및 EC의 發言等を 中心으로 反映함으로써 開發途上國
의 意見은 크게 反映되지 않은 點입니다.

따라서 이와같은 問題點을 解消하고 더 나아가 韓日間의 長期的인
貿易增進을 爲한 構造的인 改善을 爲하여 다음과 같이 몇가지를 提
案하고자 합니다.

첫째, 貿易障壁除去問題는 基本的으로 國家的인 次元에서 舉論되어야
만 解決이 可能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日本政府가 이
問題에 對하여 보다 積極的인 立場에서 協調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日本의 歐美偏重市場開放對策에서 더 나아가 韓國을 비롯한 開途國에
重點을 둔 市場開放策을 可能한 限 빠른 時日內에 檢討하여 줄 것
을 要望합니다.

둘째, 同市場開放政策中 關稅分野에 있어서 그간 歐美諸國爲主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開途國의 關心品目이며, 特히 韓國輸出主宗品인 衣
類, 纖維類, 신발類, 農水産製品等이 慎重히 考慮되어 줄것을 要望하며
非關稅分野에 있어서 輸入쿼타 對象品目인 水産物, 신발類等과 行政
指導對象品目인 綿紡織, 人造纖維等 韓國의 主要輸出品目에 많은 影響

을 끼치고 있는 實情이므로 非關稅障壁 또한 可能한 限 撤廢, 또는 緩化하여 實質的인 開放政策을 推進하여 주시기를 要望합니다.

세째, 日本政府가 運營하고 있는 市場開放問題 苦情處理對策室(OTO: OFFICE OF TRADE OMBUDSMAN) 內에 可能하면 韓國專擔班을 設置하여 韓國專擔調查官을 韓國에 派遣한다면 보다 效果的일 것으로 생각하며,

마지막으로, 輸入事前許可制, 徹底한 輸入調査 및 複雜한 各種基準等도 大幅的으로 緩化하여 줄것을 要望합니다.

以上 말씀드린 問題點 및 要望事項은 韓日兩國이 지금까지의 相互交易을 通한 友好協力關係를 앞으로 보다 擴大하고 굳건히하기 爲해 韓日兩國의 汎國家的次元에서 提言하였는바, 이點 貴國의 充分한 理解와 積極的인 協力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韓日兩國의 協力輸出方案에 對해 말씀드리겠습니다.

韓日兩國이 각기 比較優位에 있는 生産要素를 活用하여 生産된 製品 또는 用役을 第3國市場에 協同으로 輸出한다면 不必要한 競爭의 回避로 出血輸出이나 過度한 市場開拓費의 負擔을 덜 수 있는 등 國際競爭力強化 및 貿易增進에 寄與할 것이며, 將次 貿易의 中樞가 될 플랜트 輸出分野에서 特히 期待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日本은 産業構造의 高度化가 推進됨에 따라 輸出商品의 高度化로 輕工業製品의 輸入擴大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韓國에서는 經濟開發이 推進됨에 따라 重化學工業化가 促進되고, 또한 貿易量의 擴大와 함께 輸出市場의 多樣化가 促進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韓日兩國貿易의 構

造的인 變化는 필시 兩國의 對外貿易에 補完的協調可能性을 더욱 擴大시키게 될 것입니다.

다만 그같은 協力輸出에 있어서는 그 基本趣旨가 海外 “세일즈 마케팅”에 있어 日本의 廣大하고 強力한 組織網이 그 基軸을 이룰 것이므로 相互商權을 最大限 尊重하는 貿易倫理가 前提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協力輸出을 效果的으로 遂行하기 위해서는

- (1) 第3國의 市場調査 및 展示事業의 共同遂行 檢討
- (2) 第3國의 關稅 및 非關稅障壁의 撤廢를 爲한 共同努力
- (3) 技術開發 및 技術交流를 爲한 共同努力
- (4) 相互資料의 交換 및 實行方法의 共同研究等を 實施할 必要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第14回民間合同經濟委員會에서 合意를 보았으나 아직 實現을 못본 對韓購買使節團 派遣問題에 對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對韓購買使節團派遣에 對해서 大企業 보다는 韓國과의 交流가 疎遠했던 地方都市의 슈퍼체인과 中堅·中小商工人을 中心으로 한 購買使節團의 派韓이 오히려 效果的일 것으로 생각하며, 이러한 見地에서 可能な 限 日本의 各地方單位로 많은 購買使節團을 組織하여 派韓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러한 購買使節團의 派韓을 契機로 日本地方都市에서 韓國商品의 展示販賣會等を 갖게 된다면 더욱 兩國間の 通商增進에 寄與할 것으로 믿습니다.

以上の 提案에 日本經濟人 여러분의 肯定的인 理解와 協力を 要望합니다.

感謝합니다.

대 일 주 요 품 목 수 출 현 황

구 분	1981 년 실적	1982년 실적	구성비 (%)
육류 및 낙농품	23,344	11,532	0.3
원양어획물	198,541	156,277	4.7
활선어류 (해수)	78,525	68,908	2.1
패 류	64,038	66,113	2.0
냉동어류, 어란	123,354	94,066	2.8
냉동갑각류 및 연체동물	59,882	79,053	2.4
식용해초류	43,845	42,631	1.3
인삼, 인삼제품	23,939	19,948	0.6
목 재	12,572	13,774	0.4
비금속광물	19,186	17,820	0.5
대리석, 제품	37,546	37,077	1.1
화학원소, 화학물	102,610	68,325	2.1
철강의 판	322,370	454,332	13.7
콘테이너	7,164	17,996	0.5
중전기기	12,503	10,726	0.3
가정용전자기기	31,769	18,626	0.6
전자부품	258,213	213,694	6.4
면 사	129,103	140,370	4.2

구 분	1981 년 실 적	1982 년 실 적	구 성 비 (%)
생 사 류	21,765	26,883	0.8
면 및 마직물	36,026	33,731	1.0
합섬직물	68,327	23,309	0.7
견 직 물	81,056	73,975	2.2
교 가공품	55,473	49,666	1.5
의 류	544,973	532,959	16.1
양 말 류	34,150	31,434	0.9
신 발 류	108,377	103,065	3.1
우산 및 양산	7,947	3,953	0.1
합 계	3,444,126	3,314,444	100.0

대 일 주 요 품 목 수 입 현 황

구 분	1981년 실적	1982년 실적	구성비 (%)
유기화합물	447,420	385,791	7.3
프라스틱제품	182,431	179,155	3.4
인조섬유직물	117,734	105,897	2.0
철강 및 제품	897,339	693,967	13.1
철강의 코일	196,171	54,962	1.0
철강의 판	172,509	147,168	2.8
합금강과 고탄소강	256,504	223,187	4.2
산업기계류	1,149,117	1,090,188	20.5
컴 프	80,544	69,083	1.3
섬유기계	146,385	157,635	3.0
금속가공기계	45,558	36,060	0.7
전기기기 및 부품	870,807	688,805	13.0
무선통신기기	138,755	104,933	2.0
개폐기류	144,716	132,083	2.5
전자관·반도체	249,499	197,202	3.7
자동차 및 부품	125,058	117,659	2.2
광학·의료·특정기기	154,295	176,339	3.3
합 계	6,373,864	5,305,195	100.0

對 日 關 稅 引 下 要 望 品 目

1. 日本의 工產品平均關稅率水準은 5.5 %이지만 韓國의 關心品目은 12.5 %水準으로 極히 높은水準임.
2. 關稅引下는 平均關稅率水準 (5.5 %)으로 할 것.

※ 下記關稅率은 '83.4.1.改正以前의 것임.

No.	CCCN No.	品 目 名	現 行 關 稅 率	
			実 行	讓 許
1	2923-300	구루탄민 酸소다	20	-
2	3902643	염화비닐수지	8	7.2
3	3907-4-111	人造樹脂製品	15	7.2
4	4202211	皮革핸드백	10	-
5	4202-2-(1)(2)	기타革製가방	12.5	-
6	4202-2-(1)	革製以外의 가방	10	-
7	4203190	革製衣類 및 附屬品 (毛皮製 및 貴金屬등 장식을 附着한 것)	20	-
8	4203210	革製장갑 (毛皮 및 貴金屬장식 을 부착한 것 除外)	10	-
9	4203-2-(2)	革製衣類 및 附屬品	12.5	-
10	4203ex	양모, 염소 및 토끼의 毛皮製品	20	-
11	4203019	기타 毛皮製品	20	-
12	4424	木製 家具用具 割箸等	8	7
13	4801-2-(3)	包裝用紙	12	7-12

No.	CCCN No.	品 目 名	現 行 関 税 率	
			実 行	讓 許
14	5004000	絹 糸	7.5	7.5
15	5009-1-(2)	絹 織 物	12.5	12.5
16	5101-1-(2)(1)	人造纖維長纖維糸	10	10
17	5101-1-(2)(2)	人造纖維長纖維糸	20	10
18	5403	亜麻糸 및 라미糸	12	12
19	5505-1	綿 糸	8.4	8.4
20	5509	기타綿織物	8.4-14	8.4-14
21	5601-1-(1)	人造纖維短纖維	10	10
22	5605-1	人造纖維紡績糸	12.5	10
23	5607-1-(2)(3)-(1)	人造纖維織物	10	10
24	5802-2-(2)	織物製敷物類	12	12
25	5805 090	細幅織物	8	8
26	5810	刺繡布	22.4	22.4
27	6002-(1)	장갑 - 綿製	11.2	11.2
28	6002-(2)	장갑 - 기타	8	8
29	6003120	양말 (합성섬유제)	10	10
30	6003210	양말 (綿製)	11.2	11.2
31	6003-2-(2)	양말 (기타)	8	8
32	6005-1	編物製外衣類 (刺繡製, 레 - 스製等)	16.8	16.8

№.	CCCN №.	品 目 名	現 行 關 稅 率	
			實 行	讓 許
33	6005-2-(1)	기 타	14	14
34	6101-2	男子用外衣類	14	14
35	16102-2	女子用 및 乳兒用外衣類	14	14
36	6103	男子用內衣	11.2	11.2
37	6105-2ex	손수건 (綿製)	8.4	8.4
38	6109-1	폴셋트, 브레지어 및 이와 유사한 것 (刺繡製, 레스製)	11.2	11.2
39	6111-2-0	衣類附屬品 (刺繡製, 레스製)	11.2	14.7
40	6111-2-(2)-(2)	기타 (衣類附屬品)	11.2	11.2
41	6202-2-(2)	린넨	11.2	11.2
42	6205090	紡織用纖維 (기타)	8	7
43	6401	신발 (바닥과 등이 고무 또는 인조프라스틱으로 된것) (스키화 제외)	10	-
44	6405100	신발部品 (革製)	25	-
45	6601	우산類	8	8
46	7112010	銀 및 白金族의 身辺細貨類	17.5	7.8
47	8523	電氣絶緣을한 케이블, 棒, 이 와 비슷한 것 등	9.5	7.2

1. 日本의 對韓 非關稅 障壁事例 (1)

品 名	規 制 方 法	規 制 實 施 日	規 制 內 容	備 考
참 치	輸出自律規制	1975年	'79年度：6萬 ㄲ '80-'82年度：4萬5阡～ 5萬 ㄲ	①韓・日水産庁 長官會談에서 決定 ②分期別로 決定 ③非公開
革 製 신 발	輸入數量割 當制 (I.Q.)		國別 割當 (割當量 非公開)	殘存輸入制限品 目임.
生 糸	①日本蠶糸 事業團에 依한 輸 入一元化 ②輸入事前 許可制	1974年 8月	①韓・日生糸會談으로 ㄱ 터를 決定하고 이 範 圍內에서 事前 輸入 許可 併行實施 ②規制限度 '81年度：8,400 俵 '82年度：未決定	規制期間： '81.4~'82.3. '80年度 對比 24 % 減少
絹撚糸	"	1976年 3月	①輸入貿易管理令第3号 에 依함.	規制期間： '81.4~'82.3.

品 名	規 制 方 法	規 制 實施日	規 制 內 容	備 考
			②規制限度 '81 年度 : 6,400 俵 '82 年度 : 未決定	'80年度對比 24 % 減少
絹織物	韓・日生糸會 談에 依한 輸出自律規制	1976年 3月	規制限度 '81 年度 : 680 萬 S/M 年 '82 年度 : 未決定	規制期間 : '81.4~'82.3. '80 年度對比 9.3 % 減少
綿 糸	行 政 指 導	1978年	輸入組合을 通한 行政指 導 및 每月 輸入実績을 報告토록 함.	
야구장갑	"	"	輸入物品이 極히 미미한 에도 불구하고 組合을 通한 行政指導	
용성인비	"	"	全農을 通한 行政指導 (輸入先의 對中共轉換 誘導)	
구루타민 산 소 다	"	"	輸入組合의 事前推薦制에 依한 行政指導	

品 名	規 制 方 法	規 制 實 施 日	規 制 內 容	備 考
鹽청어알	行 政 指 導		政府의 指導下에 加工 組合을 통한 價格統制 및 物量統制	
쓰무기	原產地表示		○ 원 단 양단에 자수로 原產地(韓國) 表示 를 해야만 通關許用 ○ 生産工程의 번거로움 과 製織能率 低下를 통한 間接的 規制 手段	
낚싯대 部 品	까다로운 通 關節次		日本産 Color Guide 및 Casting Rod Handle 이 附着된 것 만 通關許容	

品 名	規 制 方 法	規 制 実 施 日	規 制 内 容	備 考
미 역	① 輸出 自律 規 制 ② 輸入 事前 承認制	1979 年 3 月 10 日 日本通関 省告示 90 号	規制限度 '83 年度：2 萬 3 千 噸	① 82 年 7 月 合意 ② 輸出可能量： 4 萬 噸

※ 複雑多岐한 流通構造

傳統的 日本의 商品流通構造는 價格形成을 비롯 모든 去來
條件에서 正常的인 市場組織을 현저하게 排除하고 있음.

日本の 對韓 非關稅 障壁事例 (2)

品 目	規 制 形 態	規 制 現 況	改 善 要 請
對日輸出 品目全般	關稅賦課 適 正與否에 關 한 事後監査	2 年에 1 回程度 日本 稅關 에서 駐日商社에 對하여 關 稅 適正賦課 및 關稅포탈 與 否에 對한 事後 監査를 実 施, L/C, 輸出免狀, INVOICE, PACKING LIST 等 關聯書類 를 調査하므로 會社機密이 누 설되는 事例가 있음.	通關時 當初 適正課稅를 原 則으로 하며 事後監査制 廢 止
人 蔘 類	不合理的 品 目 分類	健康食品으로 認定되는 경우 對日有望輸出品目中的 하나이나 通關時 藥品類로 認定되어 通 關이 拒否되는 事例가 있음.	完全한 藥品 이 아닌 경우 健康食品으로 認定
醫療器機	複雜한 通關節次	醫療器機의 Sample 通關時 日本政府가 認定한 藥師 또 는 醫師免許 所持者가 許可	Sample 通關 時 同許可免除

品 目	規 制 形 態	規 制 現 況	改 善 要 請
		하여야만 通關이 可能하므로 本 去來以前에 規制되는 事 예가 있음.	
對日輸出 品目全般	가다로운 稅關行政	<p>○ 全數檢査의 남용</p> <p>~ INVOICE와 LABEL 上 의 些少한 Description 의 差異로 因하여 通關 時 全數檢査를 함으로써 保管料, 人件費, 荷役料等 諸經費의 부담이 加重되 며 delivery지연이 빈 번이 發生함.</p> <p>- BUYER가 展示用으로 事 前搬出한 物量을 船積時 공제하여 발송할 때 稅關 은 數量不足이라는 理由로 外換管理法에 依據 全數 檢査를 實施.</p>	節次簡素化

品 目	規 制 形 態	規 制 現 況	改 善 要 請
Rain Coat	까다로운 税関検査	纖維 함유 有無에 따라 關稅 率이 달리 적용되므로 纖維 함유량에 對한 検査가 극히 까다롭고 長期間 所要되어 通 關이 지연됨.	節次簡素化
軍 需 品 (군복, 배낭등)	차별대우	自衛隊 入札時 資格制限 - 公開發으로는 資格制限을 두지 않는다고 하나 Specification에서 原 綴을 日本産으로만 指定하 는 등 事實上 自國業者만 可能하게 함.	内外無差別
물통等 食器類	通關지연	Sample通關에 對해서도 食品 衛生法에 依한 検査를 理由로 3個月以上 長期間 通關을 지 연시킴.	節次簡素化

品 目	規 制 形 態	規 制 現 況	改 善 要 請
화 장 품	輸入資格 및 販賣制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품제조시설 保有者에 限해서만 輸入資格 부여 - 輸入許可의 지연 T商社는 인삼화장품 輸 出을 위해 후생성에 輸 入許可를 申請中이나 3 個月이 지나도 回信이 없음. 	内外無差別
침대 등 家具類및 電子製品	과잉檢査	<p>通産省 指導下에 各種 民間 安全協會 (機械電子檢査檢定協 會等) 의 지나친 安全檢査 實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G 기준 (Safety Goods) 에 合格하여야만 事實上 販 賣可能 - SG Label 취득을 위하여 상식이상의 과도한 檢査實施 (例 : 침대의 경우 上段에 250kg 以上 모래주머니 를 놓고 12 시간이상 지탱하여야 함) 	檢査節次簡素化

品 目	規 制 形 態	規 制 現 況	改 善 要 請
自 動 車	이유없는 形式承認 拒否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 台 以內的 例外的 반입 시 運輸省 陸運事務所の 許可 - '80 오사카 博覽會時 展示 用으로 반입한 승용차에 대해 外交官用 반입을 위한 形式承認을 신청했으나 同事務所는 檢査中이란 이유로 회신을 계속 지연, 부득이 Ship-back한 사례가 있음. - 우리나라 승용차는 同 例外的 反입을 위한 各種基準 (安全基準, 保安基準, 배기 가스기준)에 適合함. 	許可節次簡素化
스포츠靴	不利한 品目 分類	스포츠靴의 경우 가죽이 Upper 부분에 일부만 포함되었어도 革靴로 분류, IQ 品目에 依한 規制	品目分類統一

品 目	規 制 形 態	規 制 現 況	改 善 要 請
電信電話 用機資材	応札資格制限	日本電信電話公社의 資材入札 時 調達規定에는 特別한 排 除規定이 없음에도 形式承認 未獲得品目에 對하여는 応札 조차 不可能하게 함. - 事實上 外國製品은 形式承 認獲得이 不可能함.	内外無差別
鐵 鋼 材	배제적인 발 주	公共機關에서 발주하는 鐵鋼 材는 日製 Mill Sheet를 添付한 것이 確認되어야만 許用 - JIS規格을 獲得하였다 하 더라도 各省에서 自體規定 에 依據 自國産만 使用할 것을 強要	市 場 開 放
綿 糸	덤핑 제 소	日本紡織協會가 1982年 12月 27日, 大藏省에 韓國産 (20 ~ 40 番手) 을 제 소	제 소 취 하

韓 日 貿 易 增 進 (答 辯 1)

NICHIMEN (株)

常任顧問 滿 崑 啓 二

여러 가지 提案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특히 市場開放問題에 關係해서는 日本側으로서는 이 뜻을 關係當局에 傳達함과 同時に 繼續 要請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本人은 日本의 最近의 市場開放策과 貿易不均衡 이 두가지 事項에 關係 答辯드리겠습니다.

앞서 提案說明에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재작년 以來 第1次, 第2次 第3次 日本의 市場開放措置가 있었으며 現在 實施中에 있습니다. 關稅問題에 關係 參考 말씀드리면 現在 日本의 平均關稅率은 3%로서 美國의 4% EC의 5%와 比較해 볼때 最低입니다.

또 非關稅障壁, 특히 輸入基準, 認證, 檢査等에 關係해서는 比較的 大幅의인 改善이 實施될 豫定이며 앞서 指摘하셨던 OTO 制度도 더욱 그 機能이 強化될 展望입니다.

이와같이 日本은 自由貿易體制의 維持強化와 世界經濟의 活性化를 꾀하기 爲해 加一層 市場開放努力을 傾注해 나갈 생각이므로 이에 對한 韓國側의 理解를 要望함과 同時に OTO를 비롯한 諸制度의 積極的인 活用을 要望하는 바입니다.

좀 더 자세히 市場開放問題를 說明드리자면 우리 日本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再昨年以來 市場開放措置를 取했고, 現在實施中에 있습니다. 특히 昨年5月에는 工, 鑛業品 96個品目の 關稅撤廢를 包含한 215個品目の 關稅引下, 그리고 비웃, 돼지고기等 4個品目에 對한 輸入制限의 緩化, 輸入의 擴大, 流通機構 및 BUSINESS 慣行의 改善等 8

個項目의 포괄적인 市場開放政策을 實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以後의 狀況을 살펴 볼때 世界貿易은 여전히 큰 事變에 直面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政府로서는 今年 1月13日字로 經濟對策閣僚會議를 열어 새로운 市場開放措置를 講究키로 했습니다.

關稅率의 引下問題에 關해서는 昨年 5月에 決定된 215個品目에, 農產品 47個品目, 工產品 28個品目 그리고 特惠關稅9個品目を 包含 323個品目에 對한 關稅의 撤廢내지는 引下를 今年 4月1日부터 實施하고 있습니다.

이번 措置中 가장 注目되는 事項 가운데 하나는 輸入檢査手續등의 改善입니다.

첫번째로 市場開放問題苦情處理推進本部 소위 OTO의 機能強化를 圖謀한 것으로서, 이를 위한 對策中 主要한 것은 OTO 諮問會議가 設置되었고 代理人申立制度가 導入되어 現在 實施中이란 點입니다. 現在 歐美가 中心으로서 昨年の 경우 93件의 申立이 處理되었습니다.

두번째로 基準認證制度의 改善입니다. 基準認證制度는 今年 3月末을 目標로 市場開放의 觀點에서 法改正을 包含 全面的으로 檢討할 豫定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 政府內에 內閣官房長官을 長으로해서 關係省廳으로 構成된 連絡調整本部가 設置되어 있습니다.

세번째로 16個品目에 걸친 輸入檢査節次에 關한 個別項目의 改善措置를 講究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우리 日本은 自由貿易體制의 維持 強化를 通한 世界經濟의 活性化를 爲해 加一層 市場開放努力을 傾注해갈 생각으로 있으므로 貴國도 이點에 對해 理解해 주십사 要

請드리며, 同時に OTO를 비롯한 諸制度의 積極的인 活用을 要望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貿易不均衡問題입니다만, 앞서指摘말씀이 계셨던 바와같이 昨年の 日韓貿易은 日本側에서 볼때 輸出이 約 48 億 \$, 輸入이 32 億 \$로서 16 億 \$의 出超를 記録했습니다만, 1979 年以後 赤字幅이 가장 작았던 한해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이 點에 對해서는 兩國이 協力해서 계속 改善을 爲한 努力을 해나가야 하며, 자주 말이 나옵니다만 基本的으로는 兩國 貿易構造의 差異가 그 原因인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드린 點에 對해 충분한 理解를 要望하며, 韓國側에서指摘하신 事項에 對해서도 역시 充分히 考慮해 나갈 생각입니다.

한편 앞으로 日本의 市場開放努力에 의한 製品輸入比率의 上昇과 韓國輸出構造의 高度化와 함께 兩國間의 貿易不均衡을 더욱 改善하도록 努力해 나갈 方針이며, 이것은 우리들 商社뿐만 아니라 日本政府, 製造業者 그리고 經濟團體에게도 充分히 要請하고 努力해 갈 생각입니다. 結論이 나오지 않은것 같습니다만 우리들로서는 앞으로도 韓國과의 貿易不均衡 解消에 어떻게 對處해 나가느냐 하는 點을 充分히 考慮해서 對處해 나갈 決意이므로 여러분의 支援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韓 日 貿 易 增 進 (答 辯 2)

伊 藤 忠 商 事 株

專務取締役 鐵 屋 一 夫

韓國側의 提案事項中에서 本人은 關稅, 特惠關稅問題 및 PLANT 等의 第 3 國市場 協力輸出問題에 關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關稅, 特惠關稅問題에 關해서입니다. 滿薦氏도 말씀하셨음니다만 昨年 4 月 1660 個品目에 對해 關稅率이 引下되었고, 잇달아 第 2 次市場 開放措置의 一環으로서 이번 4 月 1 日字로 323 個品目에 對해 關稅 撤廢 내지 引下가 實施되었다는 點은 周知하시는 바와 같습니다. 鑛工業品은 20 個 品目을 除外한 全 品目이 特惠關稅對象品目인 關係로 本會議의 關稅撤廢, 引下도 必然的으로 特惠對象品目이 대반을 차지하며, 一部品目の 경우 特惠效果가 相對的으로 減少된 點은 指摘하신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과거 貴國이 要望하셨던 品目도 一部 이번 對象에 포함되었다는點, 特惠限度를 上廻하여 輸入되어 一般關稅率이 適用되는 品目에는 效果가 있다는 點, 또한 一部品目の 경우 特惠關稅率의 引上도 實施되었다는點, 그리고 貴國으로부터의 輸入가운데 65 %가 特惠以外란 點을 감안할때 이번 措置는 貴國에게도 PLUS 效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또한 保護貿易主義의 대두等 어려운 與件속에서도 自由貿易主義의 堅持와 世界交易의 擴大・活性化라는 立場에서, 關稅의 撤廢 引下를

포함한 日本의 市場開放 措置는 반드시 貴國의 利益이 되리라고 確信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關稅問題는 政府側이 決定하는 事項이란 點은 周知하시는바와 같습니다. 지금하신 提案에 對해서는 귀국후 從來와 마찬가지로 政府當局에 傳達해서 改善을 要望할 생각입니다.

두번째로, PLANT 등의 第3國 輸出에 關한 兩國의 協力에 關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提案에는 贊成하는 바입니다. 貴國의 重化學工業의 進展과 함께 CONSORTIUM 혹은 SUB- CONTRACTOR 形態等 兩國企業이 각각의 長點을 살려 相互補完的 協力を 推進할 機會 또는 그 需要는 앞으로 점점 增大되리라 確信하고 있습니다. 最近 아시아・中東 아프리카 等 第3國市場에서의 共同受注等 兩國 企業의 協力이 成果를 올리고 있다는 점은 대단히 기쁜일이라 생각합니다. 우리會社에서도 貴國企業과 TIE-UP해서 各種 PROJECT를 共同으로 推進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相互間에 MERIT가 있는 共同事業을 積極적으로 推進할 생각입니다. 具體적인 協力問題는 各 企業에 이스라는 點은 再言할 여지도 없습니다.

指摘하신 事項을 포함해서 兩國企業의 共同事業을 可能케 하기 爲해서, 예를들면 輸出保險, 金融問題等 兩國의 制度・環境整備를 兩國政府에 要望하는것도 必要하다고 생각합니다.

韓國機械工業振興會와 日本機械輸出組合사이의 定期協議 또는 本會議의 下部組織인 日韓機械工業協力專門委員會등을 通해 情報交換・共同研究 등을 推進해 나간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韓 日 貿 易 增 進 (答 辯 3)

務 T O M E N

常務取締役 武 藤 稱 一 郎

本人은 非關稅障壁撤廢問題에 關해 말씀올리겠습니다. 지금 提案하신 問題는 充分히 理解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周知하시는 바와같이 貿易이란 需要가 있음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貿易이 國民經濟에 미치는 MERIT와 波及效果는 實로 크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日本은 自由貿易의 維持와 發展을 爲해서 努力하고 있으며 非關稅障壁分野에서도 예를들면 GLOBAL 한 輸入制限은 1970年 當時는 161個品目이었던 殘存輸入制限品目이 現在는 27個品目으로 減少했습니다. 特히 鐵工業製品의 경우 70年の 50個品目이 現在 5個品目으로 減少, 지금 歐美先進國에 손색없는 水準에 와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自由貿易의 發展이 國民經濟, 産業構造에 좋은 영향을 가져온다는 點은 어제 오늘의 會議에서도 여러차례 指摘되고 있는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産業構造가 너무 急激히 바뀌는 것은 國民經濟 특히 地域經濟에 큰 충격을 줄 念慮가 있으므로, 國內에 社會的인 마찰을 일으키지 않도록 漸進的으로 추진하는 그러한 政策的인 配慮가 必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指摘하신 非關稅障壁도 바로 그러한 產物로서 原則的인 面에서는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經濟安定, 經濟秩序를 維持하면서 構造改善을 推進하는데는 어느程度 時間的인

餘裕가 必要하다는 點을 理解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들 貿易業者로서는 한시바빠 이러한 制限이 除去되어 交易이 보다 擴大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日本側의 日韓貿易擴大均衡委員會도 이를 爲해 政府에 要望하는 등 努力을 傾注하고 있는 바입니다.

다행히 5月下旬에는 兩國間에 政府베이스貿易會議가 開催된다고 듣고있습니다. 또 조금前에도 說明이 있었음니다만 基準承認制度의 改善을 위해 17個 方案의 改定이 國會에서 承認될 展望입니다.

이러한 問題는 政府 所管事項으로 政府베이스 貿易會議에서 이러한 非關稅障壁問題의 解決을 위한 進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韓日貿易增進（答辯要旨 4.）

（社）日本商工會議所

常務理事 室谷文司

韓國側에서 要望하신 購買團 또는 購買調査團에 關하여는 姉妹商
工會議所の 關係를 主로 해서 派遣하도록 努力하고 있습니다. 그리
고 여기에서 地域的인 補完關係를 強化해나가는 方向이 바람직스럽
지 않나 생각합니다.

貿易增進에 對하여 (日本側提案)

三 菱 商 事 株 式 會 社
常務取締役 山 田 泰 三

三菱商事의 山田올시다.

韓日貿易의 增進에 關해서 日本側으로 부터 한마디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1. 韓日間의 貿易은 貴國의 힘찬 퍼포먼스(Performance)도 있고 해서 比較的 順調롭게 擴大되어 왔으며, 同時에 兩國企業 사이에 있어서도 한층 緊密度를 深化시켜 가고 있음은 大端히 慶賀스러운 일 이라고 생각합니다.

昨年度의 韓日貿易額은 世界의 同時的인 不況이라는 어려운 環境에도 不拘하고 8,143 百萬달러를 示顯함으로써 日本의 貿易市場으로서 貴國은 매우 重要的 位置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韓日貿易이 着実に 進展되는 가운데 世界貿易의 全般은 周知하시는 바와 같이 通商摩擦, 通貨問題, 南北問題등 손쉽게 解決을 볼수 없는 深刻한 問題들을 안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不透明하고

어려운 環境에 놓여 있다고 말할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韓日間の 貿易問題도 이러한 環境을 充分히 認識하여 韓日 兩國은 손을 맞잡고 더한층 友好増進을 꾀하면서 가로놓인 難關에 果敢하게 対応하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2. 韓日間の 貿易에 関한 모든 問題는 이미 이 會議에서 여러번 다루어진 바 있으며, 또 貿易擴大均衡委員會에서도 오랜 동안 論議되어 온 懸案事項임은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問題입니다.

따라서 詳細한 內容은 省略하겠읍니다만,

(1) 첫번째는 駐韓日本商社の 스테이더스(STATUS)問題입니다.

再昨年 7 月 韓國貿易去來法施行令의 改正을 본 것은 오로지 朴會長님을 비롯하여 여러분들께서 盡力해 주신 德釋으로서 日本側一同은 感謝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日本企業들로서는,

① 一部業種에 對한 制限,

② 持株比率 30% 以上の 系列会社 製品에 對한 制限,

③ 在庫販賣이어야 한다는 點,

등의 制約이 있으므로 아직도 申請을 못하고 있는 實情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리라 믿읍니다만, 駐韓日本商社は 從前부터 至極히 限定된 오퍼商이라는 資格 아래서도 商工部 指導下에 韓國商品의 對第3 國輸出에 可能な 限 努力을 아끼지 않고 協力하여 왔읍니다.

이러한 實情을 參酌하셔서 日本商社の 活動力을 더욱 有効하게 活

用하는 方案을 貴国政府에서 採択해 주신다면, 日本商社가 全世界에 갖고 있는 많은 拠点(商社만도 約1千個處, 其他 企業도 包含하면 約1萬個處)을 通해서 어김없이 韓國商品의 輸出增大에 貢獻할수 있을 것으로 確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観点에서 위에서 말한 各種制限의 緩和 또는 彈力的運用을 하여주시도록 앞으로도 各별한 協力을 부탁드립니다.

(2) 두번째는 課稅問題입니다.

駐韓日本商社들에 對해 出資關係에 있는 關聯会社間の 去來에 貴国国税庁에서 定한 標準手数料率, 즉 「認定口錢率」이 適用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駐韓支店이 受領하는 口錢額과는 關係 없이 貴国の 稅務当局이 独自の으로 認定하는 口錢率에 依拠한 口錢所得이 算定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오퍼商으로서의 日本商社 駐韓支店の 口錢은 극히 低率인데도 認定口錢率이 適用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去來는 大幅的인 赤字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去來拡大는 可望이 없으므로 實情에 알맞는 合理的인 課稅가 되도록 改善해 주실 것을 特別히 부탁드립니다.

(3) 세번째는 對日輸入規制問題입니다.

最近 數年間 「前年度 貿易赤字幅이 가장 큰 나라」에 對해 輸入節次上的 規制가 行해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資國의 1982年度 貿易赤字幅이 가장 큰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였읍니다만, 今年 3月 이 規制의 対象國 規定이 「過去 5年間の 貿易赤字幅이 가장 큰 나라」로 變更되었기 때문에 日本은 如前히 그 規制 対象國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規制는 兩國間の 貿易增進에 큰 障礙가 되는 것이므로 되도록 빠른 時日內에 撤廢해주시도록 要請합니다.

3. 끝으로 韓日兩國間の 貿易增進을 圖謀하기 위해서는 어디까지나 相互互惠精神에 立脚하여 兩國間에 가로놓여 있는 各樣各色的 問題들을 잘 分析하고 理解를 깊게 하는 것이 緊要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兩國間の 貿易不均衡은 現在 處하고 있는 兩國의 産業構造때문에 오히려 半必然的으로 招來되고 있는 것이며, 同時에 飛躍的인 輸出增進을 이룩하고 있는 費國의 인더스트리얼·애셋(Industrial Assets)에의 콘스탄트(Constant)한 所要에 起因하는 것이라는 점을 잘 理解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렇다하더라도 너무나 큰 貿易不均衡은 그대로 放置할수는 없는 問題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問題 解決을 위해서는 兩國間の 貿易增進을 위해 中長期의 眼目에서의 産業協力 또는 第3國市場에서의 協力체제도 包含한 幅넓은 協力体制를 確立할 必要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글로벌·베이스스(Global Basis)에 立脚한 努力이 없는 限, 空然히 近視眼的으로 두나라 사이의 不均衡數字를 들먹여 보았댔자 解

決 의 方途를 發見할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參考로 말씀드리면 日本이 明治 以後 오늘까지의 115年동안 經常 收支가 黒字를 보인 것은 不過 35年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現在 世界市場에서 躍進을 거듭하고 있는 貴國의 境遇, 그러한 不均衡은 빠른 Tempo의 工業化에서 오는 必然的인 傾向이라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즉 貿易不均衡이 있으면 있을수록 逆說的으로 말해서 貴國의 産業 基盤이 그만큼 強化되고 있는 것이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現在의 世界貿易은 美國을 비롯한 先進國들의 景氣回復에 期待하는 바가 크며, 今年初(2月 16日) 레이건大統領의 소위「不況의 늪 脱出 宣言」에서 보듯이 美國景氣도 長期間에 걸쳤던 不況에서 드디어 벗어날 展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韓日兩國이 앞으로 더욱 緊密히 協力の 結實을 거둔다면 우리들이 안고 있는 2國間 貿易不均衡도 徐徐히 나마 글로벌·베이스스 위에서 改善方途가 發見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貴國經濟界의 指導者이신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原則論은 새삼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이미 잘 아시고 제실줄로 알고 있으며, 經濟는 經濟人들끼리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相互間에 改善을 꾀하는 것이 이러한 會議에 賦課된 使命이라고 생각합니다.

以上, 日本側 貿易界의 意見의 一端을 말씀드렸습니다.

感謝합니다.

貿 易 增 進 (答 辯)

(社) 韓 日 經 濟 協 會
專務理事 李 尚 秀

첫 번째, 質疑인 駐韓日本商社의 STATUS問題에 對해서는 周知하시는 바와 같이 日本側의 要望等이 反映되어 81.7.23 字로 貿易去來法施行令이 改正됨으로써, 駐韓外國商社의 輸出入業務가 部分的으로 可能하게 되었습니다. 이에따라 駐韓外國商社로서 輸出入 LICENCE取得業體는 83.3月末現在 27 個社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貿易去來法施行令改正에 依해 期待되었던 輸出用原資材의 圓滑한 供給은 滿足스러운 狀態는 아니나 實施初期段階란 點을 감안해 볼때, 82年度에 280萬\$을 示顯함으로써 順調롭게 進行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우기 駐韓日本商社의 그 間의 活動狀況을 보면 韓國商品의 輸出斡旋實績이 81年の 경우 19億\$, 82年 17億\$로서 韓國全體輸出의 9% 및 8%로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現在 우리나라의 經濟政策基調는 開放體制를 指向하고 있는 點을 감안해볼때, 現制度의 運用成果를 注視하면서 漸進的으로 그 對象幅은 擴大되어 나가리라 생각합니다.

두번째로 駐韓日本商社의 課稅問題에 對해 말씀드리겠습니다.

本件에 對해서는 이미 本合同會議의 建議等이 反映되어 周知하시는

바와 같이 1980. 1. 1 字 및 1982. 4. 1 字로 基準料率이 各各 大幅引下된바 있습니다. 關係當局의 說明에 따르면 現在施行中인 標準手數料率(認定口錢率)은 韓國의 OFFER 商 566 業體로 부터 수집한 實際去來資料를 根據로 算出한 만큼 無理한 數値가 아니며, 또한 去來 規模別로 有利하게 差等率을 適用하고 있다고 합니다.

日本側이 要望하고 있는 特殊關係人間去來(出資關係가 있는 母子會社間去來)에 對한 認定課稅自體의 改善問題는 諸般與件上 現段階로서는 어려우나 改善의 妥當性을 계속 檢討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對日輸入規制問題에 對해 말씀드리겠습니다.

輸入多邊化政策은, 對外貿易에 있어서 互惠主義原則下에서 地域別로 相互國際分業의 擴大를 通한 貿易收支의 均衡을 維持하면서 交易의 持續인 擴大發展을 爲해 採擇한 政策으로, 이의 實踐을 위해 貿易去來法에 入超深化地域에 對해 輸入規制를 加하도록 關係規定이 마련되어 있는 것은 周知하시는 바와 같으며, 이는 現在우리나라의 懸案인 貿易逆調 是正을 위해서는 不可避하게 取해진 措置라고 합니다.

今番의 關係規定改正이 日本만을 對象으로 한 것으로 誤解되기 쉬우나 결코 그런뜻은 아니며, 그間 이 制度를 運用해본 結果 入超國을 1 年間の 實績만을 基準으로 決定하는 것은 不合理하며, 長期的으로 보아 妥當性이 없으므로 過去數年間(5 年)의 實績을 平均하여 適用하는 것이 合理的이며 또한 貿易多邊化政策의 根本趣旨에 부합되므로 今番 改正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說明이 있었습니다.

本制度의 不可避性에 對한 日本側의 理解를 要望하며, 對日貿易赤字

가 昨年度에는 우리나라 總貿易赤字의 76%를 차지하였다는 점을 감안, 우리側이 되풀이 要望해오면서도 전혀 改善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貿易逆調問題에 보다 具體的이고 積極的인 協力을 期待해 마지않습니다.

以上으로서 日本側의 貿易增進에 對한 答辯으로 갈음하며, 駐韓日本商社의 STATUS 및 認定課稅 그리고 輸入制限에 對한 日本側의 要望事項은 本會議가 終了되는대로 다시 政府當局에 傳達善處를 要望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韓國海運振興法 및 韓日兩國間航路問題

(社) 日本船主協會
常務理事 三上良造

1. 1979年以後 韓國에서 實施되고 있는 海運振興法施行令에 依據, 日本船社の 一部는 韓國-美國間 콘테이너 定期積取에 있어서 韓國側의 웨이버 取得을 必要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規制는 日本側으로부터의 數次에 걸친 要請에도 不拘하고 점점 더 強化되는 方向에 있으며, 이들 日本船社들은 昨年 7月以後 特히 嚴格한 規制를 받음으로써 積取量의 激減을 免치 못하고 있는 實情입니다. 따라서 北美航路의 特殊性을 勘案하여, 法을 適用함에 있어서 어떠한 救濟 措置가 講究되도록 善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趣旨를 韓國當局에 對해 다시 한번 要望할 생각인바, 本 委員會에 있어서도 本件에 關해 理解와 協力이 있으시기를 當付하는 바입니다.

2. 日韓·韓日兩國間 貨物輸送은 關釜페리를 除外하면 피이더(feeder) 貨物의 輸送을 包含해서 現在 韓國船社만이 이에 從事하고

있는 實情인바, 日本船社들로서도 將次 兩國間 貨物輸送에 參加 할
可能性은 充分히 豫想됩니다. 그 때는 兩國海運協調의 精神에 立
脚하여 船路秩序의 維持 및 安定을 國謀하며 貿易發展에 寄與할 수
있는 體制를 構築하여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이 點을 諒
解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海運協力要請에 對한 答辯

大 韓 海 運 協
社 長 李 孟 基

日本船에 依한 韓國・美國間 콘테이너貨物 定期積取와 韓國・日本間 海上輸出入貨物積取에 關하여, 日本船에 依한 貨物積取가 改善 및 許容되도록 要請하셨습니다. 이것은 本 合同會議에서는 낮익은 案件으로서 이미 數차례 韓國政府의 關係機關 및 關係團體에 日本側의 要望事項을 傳達했습니다.

關係當局의 說明에 依할것 같으면,

韓國은 現在定期船同盟의 行動規範에 關한 유엔協約의 締約當事國으로, 韓國과 關聯된 航路에서 就航하는 第3國船에 對한 積取配分은 上記 協約의 積取原則에 加와지도록 誘導하고 있다고 합니다.

最近의 韓・美 航路에서 第3國船의 積取比率은 參考資料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20%를 훨씬 超過하고 있으며, 또한 韓國의 法律適用이 特定國에 對해서만 差別的으로 適用되는 것은 아니며, 法適用上 特定國에 對해서만 特惠措置를 취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今番 日本側의 海運協力에 對한 要望事項은 本會議가 終了되는대로 政府機關 및 關係機關에 傳達토록 하겠습니다.

北美州航路國家別積取現況

(Container)

(單位：%)

	'80 年	'81 年	'82 年	備 考
韓 國	24.6	25.5	25.9	
美 國	32.6	30.8	30.2	
第 三 國	42.8	43.7	43.9	
(日 本)	(13.1)	(16.2)	(17.3)	
(其 他)	(29.7)	(27.5)	(26.6)	
計	100 %	100 %	100 %	

註 1 . UNCTAD定期船同盟의 行動規範에 關한 國際協約：4：4：2 原則 (國籍船積取率 40 %)

2 . 日本의 積取率은 근소하지만 오히려 增加추세에 있음.

共 同 聲 明

第 15 回 韓日・日韓民間合同經濟委員會 會議는 1983 年 4 月 6 日부터 8 日 까지 大韓民國 서울에서 開催되었다. 韓國側에서는 朴泰俊 韓日經濟委員會 委員長을 團長으로 하는 97 名의 代表團이, 日本側에서는 日高輝 日韓經濟委員會 委員長을 團長으로 하는 71 名의 代表團이 參加하였다.

이번 會議는 韓日國交正常化後 처음으로 實現된 日本國首相의 韓國公式訪問으로 이루어진 兩國頂上會談뒤의 첫 民間合同經濟委員會로서 兩國頂上會談後 發表된 共同聲명의 精神을 바탕으로 兩國經濟界의 關心事인 經濟協力 및 産業技術協力の 擴大와 貿易增進問題가 重點的으로 다루어졌으며, 兩側 代表團은 이러한 分野에서의 兩國의 協력이 兩國의 健全한 經濟發展뿐 아니라 亞細亞, 나아가서 環太平洋諸國의 繁榮에 寄與한다는데 認識을 같이 하였다.

1. 基調演說에서 韓國側은 日本의 對韓技術協력이 日本에 不利益을 招來하는 것이 아니며 兩國의 貿易增大에 寄與했다는 分析結果를 說明하고 日本의 積極的인 技術協力を 促求했고, 日本側은 技術開發에 있어서의 日本의 現況을 說明함과 同時에 技術協力促進을 爲해서는 韓國側이 技術을 받아들이기 爲한 좀더 나은 環境造成을 꾀하며 相互信賴를 쌓아올리는 努力을 할때 兩國間의 技術協力は 円滑히 될 수 있다는 見解를 表明하고 앞으로 對韓技術協力を 더욱 促進시키기 爲한 努力을 할뜻을 밝혔다.

2. 大韓民國 政府 當局으로부터 韓國의 外資導入政策과 對外債務 問題

에 관한 설명이 있었으며 이것은 日本企業의 對韓進出 및 資本協力
에 있어 大端히 有益하였다.

日本側은 韓國의 第5次 經濟社會發展5個年計劃의 円滿한 遂行을
爲하여 民間經濟界로서도 積極的인 經濟協力을 할 뜻을 表明하고 아울
러 韓國側이 이를 爲한 投資環境을 造成해 주는 것이 重要하다고
指摘하였다.

3. 本 會議는 다음의 4個 專門委員會 合同會議 結果報告를 異議없
이 採擇하였다.

- (1) 第10回 韓日・日韓貿易擴大均衡委員會 合同會議
- (2) 第8回 韓日・日韓機械工業協力專門委員會 合同會議
- (3) 第3回 韓日・日韓經濟協力長期構想研究委員會 合同會議
- (4) 第1回 韓日・日韓 中堅・中小企業協力專門委員會 合同會議

4. 韓國側은 對韓技術協力에 對한 一部の 日本企業의 消極性을 指摘
하고 앞으로의 日本側의 積極的인 協力을 要請하였다.

이에 對하여 日本側은 日本의 對韓技術協력이 韓國의 經濟成長에
貢獻하고 있는 點을 指摘하고 相互의 實情을 理解해가며 協力해 나
가는것이 바람직스럽다는 基本的 立場을 表明하였다.

具體的인 技術協力促進을 爲하여 다음과 같이 合意하였다.

(1) 尖端技術移轉을 爲한 專門小委員會 構成 및 定期的인 運營에 關
한 韓國側 提案에 對하여는 尖端技術의 多樣性을 勘案, 우선 雙方業
界間 交流 심포지움, 세미나의 開催등을 積極的으로 推進하고 여기에
서 얻어지는 經驗을 바탕으로 必要하면 專門委員會設置問題를 檢討한
다.

(2) 韓國技術者, 技能工의 日本内 訓練 및 韓國内 訓練과 現場指導를 爲한 日本專門家 派韓 要請問題는 이미 많이 있는 日本의 政府 또는 民間의 既存組織을 一層 活用토록 하고 이것이 可能토록 兩側 委員會는 關係當局 및 機關과 企業에 積極的인 活動을 한다.

(3) 兩國企業間의 技術協力推進을 支援하기 爲한 窓口가 될 機關 또는 團體를 本 會議後 2個月以內에 雙方 委員會가 協議하여 各各에 둔다.

5. 前項의 技術協力問題와 關聯하여 複合技術의 共同開發의 하나의 프로젝트로서 經濟協力長期構想研究委員會가 日韓翻譯機械시스템의 共同開發을 具體的으로 檢討하고 있는 것을 兩側 모두 높이 評價하였다.

6. 貿易分野에 있어 韓國側은 韓國의 對日貿易逆調가 繼續되고 있음을 指摘하고 다음을 要請하였다.

(1) 日本의 貿易障壁의 緩和 및 市場開放의 擴大

(2) 關稅 및 非關稅分野에서 韓國의 關心品目에 對한 措置緩和

(3) 日本政府의 市場開放問題苦情處理推進本部 (O.T.O)에 韓國專擔班 設置

(4) 第3國에 對한 韓日協力 輸出

(5) 日本의 地域單位 對韓購買使節團의 早期派遣

이에 對하여 日本側은 (1)(2)項에 對해서는 日本政府의 現在까지의 市場 開放措置의 展開 및 今後의 展望에 對해 說明, 韓國側의 理解를 求했고 (3)項에 對하여는 O.T.O 制度의 積極的인 活用을 提案한 과 아울러 以上の 韓國側要請을 日本政府 關係當局에 傳達, 善處要望할 뜻을 表明했다. (4)項에 關하여는 지금도 이미 協力 輸出이 이

루어지고 있고 今後에도 加一層 協力體制를 推進할 必要性을 強調하였다. (5)項에 對하여는 早期實現을 約束하였고 韓國側은 이의 促進을 爲하여 必要에 따라 日本各地에서 説明會를 開催할 用意가 있음을 表明하였다.

7. 日本側은 在韓商社의 活動이 韓國의 商品輸出增大에 寄與하고 있음을 強調하고 在韓商社의 STATUS改善, 認定手數料의 合理化를 要請하고 아울러 韓國의 輸入先 多邊化品目에 關聯되는 輸入限度의 緩和를 要請했다.

韓國側은 現在의 韓國政府方針을 說明하고 한편 日本側의 要請이 相當히 反映되어 왔음을 指摘하고 이번의 日本側要請은 다시 政府當局에 傳達, 善處 要望할것을 約束하였다.

8. 日本側은 韓美間 定期航路에 있어서의 日本船의 貨物積取 規制에 救濟措置가 講究될것과 韓日間 貨物輸送에서 日本船의 參加가 實現되었을때의 韓國側의 協調를 要請했다.

韓國側은 韓美航路에서 第3國船에 對한 積取配分은 유엔協約에 따르고 있으며 實際로 日本을 包含하는 第3國船의 積取 比率이 漸次增加하고 있는 事實에 言及하고, 어느 特定國에 對한 特惠措置는 取하기 어려운 立場임을 說明하였다. 그리고 日本側에서 다시 要請이 있었던 內容은 政府當局 및 關係機關에 傳達, 善處 要望할것을 約束하였다.

9. 次期 會議는 明春, 兩側이 合意하는 時期에 日本國 東京에서 開催할것에 合意하였다.

1983年 4月 8日

韓國代表團團長	朴 泰 俊
日本代表團團長	日 高 輝

閉 會 辭

韓 日 經 濟 委 員 會

委員長 朴 泰 俊

6 日부터 連 3 日間, 韓日兩國의 民間經濟界를 代表하는 여러 人士들이 한자리에 모여, 眞摯하고도 和氣에 찬 霧圍氣속에서, 서로의 關心事를 隔意없이 協議한 끝에, 오늘 깊이 있고 알찬 內容의 共同聲明을 採擇하고 第 15 回 韓日・日韓民間合同經濟委員會를 마치게 된것을 매우 多幸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자리를 빌어 이번 合同委員會에 參席해주신 兩國代表團 여러분께 다시 한번 深甚한 感謝를 드립니다.

이번 合同委員會는 이것으로 幕을 내립니다만, 共同聲明에서 採擇한 모든 課題는 이제부터 우리 모두가 相互協力하여 推進해서 좋은 結實을 맺어야 할것이라는 點을 생각할때, 韓日兩國의 民間經濟界가 이루어 나가야할 責務는 莫重한바가 있다고 아니할수 없습니다.

率直히 말씀드려 從前에는 雙方間에 約束이 이루어지고 相互協力할 것에 合意하였음에도 不拘하고, 그後 具體化 段階에 있어서는 相互誠意와 努力不足으로 期待한만큼의 成果를 올릴수 없었던 部分的인 事例도 없지않았다는 點에 對해 깊이 反省하면서, 적어도 이번에 成立된 約束은 期必코 보람있는 結實을 가져오도록 끊임없는 努力과 誠意가 傾注되어야 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開會때에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特히 지난 1 월에 있었던 日本의 中曾根首相의 訪韓과 그에따른 兩國頂上會談의 成功으로, 이제 韓

日兩國은 새로운 次元에서 앞으로의 千年을 向해 굳게 結束하고 協力해 나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時期에 本 合同委員會가 열렸다는 것은 여러모로 그 뜻이 깊다고 하겠으며 그럴수록 이번에 討議되고 合意된 內容은 반드시 達成해야만, 모처럼 이룩된 새로운 兩國關係를 더욱 促進시키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點, 이번 合同委員會의 主된 題마였던 産業技術協力問題를 다룸에 있어서, 日本側 代表 여러분께서 積極的인 姿勢를 보여주신데 對하여 衷心으로 感謝를 드립니다.

또한 이번 合同委員會를 通해 各專門委員會의 活動이 더욱 活潑해지고 많은 成果를 내고 있다는 事實이 確認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發展하여 兩國間 民間經濟協力の 힘찬 推進力이 되어주시기를 眞心으로 付託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會議에 參席하시기 위해 訪韓해주신 日本側 代表團 여러분께, 韓國側委員會를 代表해서 다시 한번 깊은 謝意를 表하며, 來年 東京에서 다시 뵈게 될때까지 내내 健勝하시기를 祈願하면서 閉會人事를 마치겠습니다.

閉 會 辭

日 韓 經 濟 委 員 會

委員長 日 高 輝

韓國側 및 日本側 代表團委員 여러분, 방금 採擇된 共同聲明에 나타나있드시 이번 第 15 回 合同委員會 會議은 兩國內외의 經濟動向 과 그 環境의 變化에 對應하면서, 兩國간의 民間經濟交流를 한층 더 깊히 하기 爲해 무엇을 하여야 할 것인가, 무엇을 해서는 안될 것인가 이러한 問題에 對해서 새삼 檢討하였읍니다. 그 結果가 共同聲明에 表明된 것입니다. 그 檢討의 對象이었던 資本, 技術의 協力 및 貿易의 增進이라는 命題 그 自體는 第 1 回 合同會議 以來 하등 變함이 없었던 것은 當然한 일입니다. 그러나 모든 情勢의 變化에 따라 자연히 그 比重이 달라지게 된다는 點은 말할 나위도 없읍니다.

이번 會議의 特色은 그런 意味에서 産業技術協力の 推進을 擴大시키는 것과 이것을 中心으로해서 資本協력과 또한 貿易增進에 對해서도 새로이 再檢討를 행한 後 兩國民間經濟交流의 方向을 確認하였다는 點에 있다 하겠읍니다.

말할것도 없이 韓日 兩國은 다 같이 工業立國으로서, 工業의 進展으로 인한 貿易擴大을 통해 兩國이 나라의 經濟를 維持시키고 發展시킨다는 같은 立場에 있습니다. 따라서 工業의 振興에 있어서는 産業革命이라는 말을 引用할 必要도 없이 이미 새로운 그리고 보다 高度의 技術을 開發하고 工業化해 가는 것이 必須條件이라 하겠읍니다.

또 國際적으로 볼 때, 世界 各國이 各々 開發한 新技術을 必要에 따라 다른 나라에 移轉하여 國際分業態勢가 自然스럽게 造成되어 가는 것이 世界經濟의 維持發展에 不可缺한 要因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韓日 兩國은 一衣帶水의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이며 貿易立國이라는 同質性을 함께 하고있는만큼, 國民의 資源 그 自體에 있어서도 높은 水準에 있다는것은 世界的으로도 共認받고 있는 事實입니다. 이러한 두 나라가 손을 맞잡고 經濟交流를 深化시키고 共存共榮의 길을 蒼實히 걸어 나간다면 반드시 世界の 平和共存의 MODEL CASE로서 크게 注目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까 朴會長님의 말씀도 제셨드시 今年 1월에 開催된 兩國頂上間의 公式會談에 의해서 새로운 善隣友好의 時代는 그 幕을 올렸읍니다. 가장 重要的 것은 이 基盤을 한층 더 鞏固히 함과 同時に 相互理解를 깊이하는 부단한 努力을 계속함으로써 兩國關係를 더욱 維持 發展시켜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특히 産業技術協力の 推進에 重點이 주어진 點에 對해 韓國側 代表團여러분에게 한가지 留意하여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貴國에 있어서는 1988년에 올림픽이 開催됩니다만 日本에 있어서는 1985년에 科學技術萬國博覽會가 이바라기縣의 조구바學院都市에서 開催될 豫定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貴國에서는 아직 參加申請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世界の 모든 最高, 最新의 技術이 한자리에 展示되는 이 科學技術萬國博覽會는 貴國의 工業力, 技術力을 世界에

널리 알리는 絶好의 機會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機會에 貴國이 參加을 하여주신다면 대단히 좋은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記念할만한 第15回 合同會議가 兩國 代表여러분의 率直하고도 眞摯한 討議에 의해서 이와 같은 成果를 얻을수 있었던 것에 대해 日本側 團長으로서 깊이 感謝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많은 日本代表團의 滞在期間동안 여러가지로 각별한 配慮를 하여주셨고, 또한 圓滿한 會議運營을 圖謀하여주신 朴團長을 비롯한 韓國側 團員여러분, 그리고 事務局 여러분께 다시 한번 感謝말씀을 드리면서 以上으로 簡單합니다만, 閉會人事로 代身하겠습니다. 來년에는 또 東京에서 여러분을 뵈게 되기를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